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페이지 숫자만
<u>본문</u> (1) 명성, 오독, 그리고 자유의 문제	1
<u>이론</u> (2)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	9
제2장 『카탈로니아 찬가』와 『1984』: 행위로서의 자유	22
(1) 『카탈로니아 찬가』: 스페인의 진실과 글쓰기	22
(2) 『1984』: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설적 가치	40
제3장 도그마 너머의 자유: 조지 오웰의 자유주의적 정치 윤리	
(1) 토리 무정부주의자,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	72
(2) 엘리트주의와 검열에 맞서는 자유주의적 통찰	87
제4장 『위건 부두로 가는 길』과 『숨 쉴 곳을 찾아서』 :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	
(1)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안전 메커니즘과 국가 권력 확장의 역설	116
(2) 『숨 쉴 곳을 찾아서』: 자기 경영 주체의 역설	137
제5장 결론	
인용문헌	
영문초록	

조지 오웰: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의 교차로

이 선 영

전남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이 주 리)

(국문초록)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50)은 냉전(Cold War) 체제와 맞물려 사후에 더욱 명성을 획득한 작가로 현대 정치 담론에서 빈번히 소환된다. 오웰은 평생 에세이스트, 저널리스트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소설가로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글이 단순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 관점일 수도 있고 다소간 오해일 수도 있다. 오웰이 강조한 '자유'라는 가치는 그 자신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우파적 맥락에서 자의적으로 인용되곤 했다. 이러한 오독 때문에 냉전 체제를 거치며 오웰의 명성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이 연구는 오웰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독에 시달려온 사실에 착안하여 자유(liberty),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주의 통치성(liberal governmentality)이라는 상호 연관되면서도 구별되는 세 개념을 분석의 축으로 삼아 오웰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읽고자 한다. 오웰에 대한 오해와 오독을 탐색하고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 독해로 넘어갈 것이다.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은 전부 다른 개념이면서 조지 오웰과 깊은 상관을 갖는다. 자유는 외부의 강압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치철학에서 자유는 보통 국가나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없는 상태, 또는 자기결정 능력을 의미한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 법치, 권력 분립, 시장경제와 같은 장치를 통해 보호하려는 사상이다. 즉 자유를

추상적 가치로 두는 것을 넘어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바로 그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주체화하는지를 분석한 개념이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전개한 논의로 국가가 개인을 직접 억압하기보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개인들을 전제로 그 자유를 조정, 조직, 관리하는 통치방식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는 자유가 통치의 반대편에만 있지 않고 오히려 통치를 작동시키는 조건이 된다. 자유는 가치, 자유주의는 그 가치를 제도화한 사상, 자유주의 통치성은 그 제도와 사상이 실제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통치성이란 인구의 건강, 안전, 복지와 같은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해치지 않으려는 18세기 이후의 통치 합리성을 말한다. 이 통치성은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명령하는 대신 안전 장치와 행정 기술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다만 여기서의 자유는 국가의 통치가 유도하는 방식의 자유이자 시장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거한 제한적 자유이다. 이 점에서 '자유를 보호한다'는 말은 곧 '자유가 작동하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조절한다'는 의미이며 자유주의 통치성은 바로 그 역설을 분석하는 개념이다.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모두 완전히 방임하지 않고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니지만 시장을 다루는 방식과 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통치성이 시장의 자연적 작동과 최소한의 개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사회 전반을 경쟁과 기업 논리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통치술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시장에 맞게 덜 통치하는 것에 가깝고 신자유주의는 시장 원리를 위해 더 정교하게 통치하는 것에 가깝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 개인은 단순한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업처럼 관리하고 투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Oeconomicus)', 즉 기업가적 주체로 형성된다.

이 논문은 세 개의 본론을 통해 논지를 전개한다. 제 2장에서는 오웰이 어떠한 경험적, 사상적 과정을 통해 자유를 핵심 가치로 정립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가 추구한 자유의 구체적 내용 중 특히 진실을 말하고 추구할 자유를 분석한

다. 제 2장이 다루는 『카탈로니아 찬가』(Homage to Catalonia, 1938)와 『1984』(Nineteen Eighty-Four, 1949)는 진실을 말할 자유의 억압이라는 동일한 물음을 각각 다큐멘터리적 기록과 디스토피아적 픽션이라는 상이한 형식으로 탐구한다. 두 작품은 오웰 자신의 스페인 내전 참전과 인물 윈스턴 스미스(Winston Smith)의 저항을 통해 전체주의적 억압 앞에서도 인간이 진실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두 작품에 공통된 가치론적 명제로 투쟁의 결과가 패배로 귀결되더라도 진실을 향한 투쟁 행위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논증한다. 오웰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에 맞서고자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으며, 개인의 자유 중에서도 진실을 말할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강조한다.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는 『카탈로니아 찬가』출판 이후 11년이 지나 발표된 『1984』에서 픽션의 형식으로 확장되고 심화된다. 전자가 역사적 현실을 다큐멘터리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진실 억압의 구체적 양상을 고발한다면, 후자는 그 억압이 논리적 극단에 이르렀을 때 도달하게 될 세계를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다. 두 작품은 진실을 말할 자유가 어떻게 억압되는가라는 동일한 물음을 각각 다른 형식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형성한다.

오웰 자신이 스페인에서 수행한 분투처럼 『1984』의 주인공 윈스턴 역시 진실을 말할 자유를 집요하게 추구한다. 진리부에서 기록을 조작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는 어딘가에 진실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며, 그 믿음은 일기 쓰기, 줄리아와의 금지된 연애, 그리고 오브라이언의 고문 앞에서도 이어지는 반박으로 표출된다. 작품의 결말에서 윈스턴은 가혹한 고문 끝에 굴복하여 빅브라더를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의견상 패배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암울한 결말은 윈스턴의 저항이 무의미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이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동원해야 했던 극단적 폭력의 규모 자체가 인간 내면에 자리한 자유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오웰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여러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실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오웰의 전체주의 비판이라는 주제 혹은 두 작품 각각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해왔다. 덧붙여 이 논문은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 즉, 억압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실천

그 자체에 담긴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실을 말할 자유를 추구한 오웰 자신의 분투를 기록한 『카탈로니아 찬가』와 그의 인물 윈스턴의 저항을 형상화한 『1984』는 모두 패배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 행위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공유한다. 이 연구는 두 작품에 걸쳐 나타나는 이 공통된 가치론적 명제를 논증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카탈로니아 찬가』와 『위건 부두로 가는 길』(The Road to Wigan Pier, 1937)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웰의 정치적 자기 규정은 '토리 무정부주의자'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변화되는데 이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그 구심축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적 기질이다. 이 기질은 오웰로 하여금 사회주의 운동의 엘리트주의적 괴리와 지식인 사회의 자발적 검열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한 근거였다. 제 3장은 오웰을 단일 이념으로 환원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그의 사상을 자유주의적 기질이라는 하나의 내적 논리를 중심으로 해명하면서 그의 통찰을 조명하고자 한다. 조지 오웰의 정치적 자기 규정은 표면적으로 모순처럼 보인다. 그는 한때 자신을 "토리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렀고, 1936년 스페인 내전 이후에는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절이라기보다 연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토리 무정부주의가 이미 전통에 대한 애착, 권력 집중에 대한 불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라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후기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이를 다른 정치 언어로 확장, 재구성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웰의 정치 사상에는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충하는 이념들이 가로질러 일관되게 작동하는 하나의 구심축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적 기질이라고 본다. 로브 브레튼(Rob Breton)이 오웰을 "충성심에 의한 사회주의자이자 성격상 자유주의자"(47)로 규정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오웰의 자유주의는 그가 평생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당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지속적으로 불화한 이유를 해명하는 열쇠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질은 오웰이 당대 지배적 이념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통찰을 산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다. 오웰의 통찰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된

이 기질한
비자유주의!

✓
? 뭔가?
이런 명제는
인도(리)적
행위로
생각 있게?

음

보수-진보
사회주의-사회주의
(오웰)

등인 위상에
있는 개념?

선명할수록 옳은 것일
명명한다고 퍼서 써 봐야겠어!

자유주의적 기질!
자유주의!

이념의 시대에
이념이식 벗어날려는 오웰!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기질"

이념적 ↔ (민주적) 집중

다. 첫째, 오웰은 당대 사회주의 운동이 대의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 계급의 삶과 정동(affect)으로부터 유리된 고립된 엘리트주의의 함정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구체적 삶의 현실을 정치적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유주의자로서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권력의 집중화 기구로 변질되는 구조적 패턴을 고발한 것이다. 둘째, 오웰은 당시 공산주의와 공산당이 공식적 억압 없이도 지식인 사회에 암묵적으로 작동시키는 자발적 검열의 메커니즘에 저항한다.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던 자유주의자 오웰에게 이 검열은 작가의 정직성과 창의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두 가지 통찰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이념적 연대보다 선행하는 가치로 ^{여기} 위치시키는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웰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자유주의적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기에 '충성심에 의한 사회주의자이자 성격상 자유주의자'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념적 양가성은 그를 특정 진영의 전위로 귀속시키는 것을 가로막은 반면 동시에 당대 사회주의의 내재적 문제를 예리하게 통찰하는 독자적인 비판의 시선을 가능하게 했다. 즉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은 그만의 이념 비판적 통찰을 산출하는 인식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카탈로니아 찬가』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집중주의

? 이념?

민주주의의
체제주의
자유주의의
사상주의
개념적
이데올로기

인식론적 토대

공산주의적

오웰의 정치적 정체성을 둘러싼 기존 연구들은 그를 사회주의자,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 중 어느 하나로 귀속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범주화는 오웰 사상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오웰을 사회주의의 전통 안에서 독해하는 연구들은 그의 계급 비판과 반제국주의적 감수성에 주목하지만, 그가 당 노선과 이념적 연대보다 개인의 자유와 지적 정직성을 일관되게 우선시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적 맥락에서 오웰을 독해하는 시도들은 그의 전통 애착과 급진적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회의를 포착하지만 그것이 왜 사회주의적 지향과 공존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 역시 오웰의 개인 자유 옹호와 반전체주의적 감각을 조명하기는 하나 이를 그의 보수주의 및 사회주의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공백에 응답하고자 한다. 오웰의 정치 사상을 어

? 이념

여러 지향의 표준

관통하는 것을 찾아야!

개념
 ↓
 자유주의 (자유주의/인간주의)
 ↓
 통치성
 ↓
 자유주의 (자유주의/인간주의) → 통치성
 ↓
 통치성 (자유주의) 다른 것들
 ↓
 통치성

는 하나의 이념으로 환원하는 대신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라는 세 정체성을 하나의 내적 논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되 그 중심점이 자유주의적 기질에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접근은 오웰을 특정이념의 대변자로 전유하려는 시도들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고 이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도 일관된 윤리적, 정치적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오웰 사상의 고유한 구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제 4장은 본론 3으로 푸코의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분석 틀로 삼아 '자유와 최소한의 개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정교한 통제로 귀결되는 통치'에 대한 오웰적 문제의식을 『위건 부두로 가는 길』과 『숨 쉴 곳을 찾아서』(Coming Up for Air, 1939)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오웰은 통치성이라는 개념어를 알지 못했음에도 두 작품을 통해 자유주의적 복지 장치가 개인을 관리 가능한 주체로 예측시키는 역설, 그리고 시장 논리의 내면화를 통해 자기 경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선취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오웰이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의 교차로에 존재하는 작가임을 논증함으로써 오웰에 대한 기존의 오독을 교정하고 그의 문학적, 사상적 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3가지 차이의 다른 것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통치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통치성의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원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국가, 교육, 복지, 노동 같은 영역까지 경제적 논리로 재편한다. 자유주의에서는 국가를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쪽에 가깝고,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오히려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된다. 또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심에 놓는다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자기 자신을 기업처럼 관리하는 주체,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자유주의 통치성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치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면,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그 자유의 논리를 더 넓은 영역에 적용해 사회 전체를 시장화하는 방식이다.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연속성과 변형을 함께 가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동일!

주목할 것은 이 두 개념이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¹⁾

강의록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훨씬 이전에 조지 오웰이 이미 문학적 감각으로 그 작동 방식을 포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웰은 자유주의 통치성이나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개념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문학적 구현을 통해 통치^V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주체를 형성하고 자유를 관리하는지를 날카롭게 감지하고 선취하고 있다. 오웰의 작품들에서는 복지 제도와 안전 장치를 통해 작동하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 다시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을 관리 가능한 주체로 예측시키는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나아가 후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 불릴 전환의 징후로 시장 논리의 내면화와 자기 경영 주체의 형성 과정 역시 오웰의 텍스트 안에서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의구심과 냉소적 불만의 형태로 선취되어 있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국가의 복지 제도와 통계적 안전 장치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관리 가능한 주체로 예측시키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을 고발한다. 『숨 쉴 곳을 찾아서』에서는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자기 경영 주체의 형성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시스템에 적응한 듯 보이면서도 끝내 냉소를 멈추지 않는 주인공을 통해 오웰은 신자유주의^V 통치성의 한계와 저항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오웰 연구는 그의 정치적 알레고리나 전체주의 비판, 혹은 계급 문제에 집중해왔을 뿐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두 개념을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아 오웰의 텍스트를 독해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오웰과 푸코^V적 통치성 개념 사이의 시대적, 지적 거리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 텍스트 안에서 통치성^V의 문제가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독해 방식이 오웰을 중심으로는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4장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오웰이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의 교차로에 존

1) 1970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푸코의 강의를 정리한 시리즈이다. 푸코 사후 녹음 테이프를 바탕으로 편집, 출판되었으며 권력, 통치성, 주체성, 생명정치 등 푸코가 천착한 핵심 개념들을 발전시킨 텍스트들을 포함한다.

재하는 작가임을 논증함으로써 오웰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오독을 점검하고 그의 문학적, 사상적 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

제1장 서론

(1) 명성, 오독, 그리고 자유의 문제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50)을 읽는 독자들은 “나는 언제나 오웰이 쓴 것들보다 오웰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어왔다”(Cain 79 재 인용)는 비평가 줄리안 시먼즈(Julian Symons)의 말에 쉽게 동의하게 된다. 오웰은 그만큼 흥미로운 인생 이력을 가진 작가이다. 오웰은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상류 중산층 중 하급에 속한다고 하는 집안”(RWP 113)에서 태어나 계급적 질서에 걸맞은 사립학교들을 다닌다. 그러나 타고난 신분으로는 가까스로 사립학교 정체성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실제적 부에 있어서는 그 규격에 미치지 못했던 현실 때문에 오웰은 일종의 분열된 자아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오웰은 “암울하고 힘든 방식으로 성공”(Essays 440)하거나 낙오되는 미래를 선택하는 대신 영국을 떠나 식민지 버마(Burma)²⁾에 가 5년 동안 제국의 경찰로 복무한다. 귀국 후 오웰은 단순히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RWP 138). 이후 그는 접시당 이와 노숙자 생활을 직접 감내하며 빈곤을 체험하고, 영국 탄광 노동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해 르포르타주로 남긴다. 1936년 스페인 내전(The Spanish Civil War, 1936-1939)이 발발했고 오웰은 1937년 기사 취재를 목적으로 스페인으로 향하지만 이내 파시즘(Fascism)에 맞서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의용군으로 참전한다. 목에 총상을 입는 중상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귀국한 오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방송사 BBC에서 인도 방송 담당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만 46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한다. 오웰은 사회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작가였으며 흥미롭고 독특한 삶을 살았다. 이와 같은 삶의 궤적이 전기적 서사와 맞물리면서 그를 하나의 정치적 아이콘으로 부각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오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그의 삶을 다룬 전기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2) 현재의 미얀마(Myanmar). 미얀마는 1989년 군사정부가 변경한 공식 명칭이지만 전통적, 역사적으로는 버마라는 국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문학비평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오웰』(*Orwell*, 1971)을 시작으로, 피터 스탠스키(Peter Stansky)와 윌리엄 에이브러햄스(William Abrahams)는 『알려지지 않은 오웰』(*The Unknown Orwell*, 1972)과 『오웰: 변모』(*Orwell: The Transformation*, 1979) 두 권의 전기를 공저하며 오웰 전기 연구의 기반을 닦았다. 버나드 크릭(Bernard Crick)³⁾의 『조지 오웰: 삶』(*George Orwell: A Life*, 1982)은 오웰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본격 전기이며 크릭의 전기가 작가의 내면적 삶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이클 셸든(Michael Sheldon)은 오웰 개인의 특성에 보다 주목한 『오웰: 공인된 전기』(*Orwell: The Authorized Biography*, 1991)를 출판한다. 셸든은 오웰을 품위 있고 병약하며 사적이면서도 자기 비하적인 괴짜로 묘사하며 그의 내면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두 번째 아내인 소니아와의 관계, 그리고 오웰 자신의 영국성에 대한 분석이 잘 드러난 고든 보우커(Gordon Bowker)의 『조지 오웰』(*George Orwell*, 2003)은 새로운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오웰의 사적인 면모를 폭넓게 조명한다. 새롭게 발견된 편지들과 오웰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담은 D. J. 테일러(D. J. Taylor)의 『오웰: 새로운 삶』(*Orwell: The New Life*, 2023)은 풍부한 사료를 제공하는 한편 저자에 의해 재구성된 오웰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해석의 객관성 면에서 논란의 여지도 남긴다. 한편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의 『왜 오웰이 중요한가』(*Why Orwell Matters*, 2002)는 오웰과 파시즘, 제국, 페미니즘, 영국성, 그리고 그가 많은 양가감정을 품었던 미국에 대한 그의 견해를 탐색한 저술로, 전기적 요소와 문학 비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작업이다. 대표적인 오웰 연구자 중 한 명인 존 로든(John Rodden)의 『조지 오웰: 문학적 명성의 정치학』(*George Orwell: The Politics of Literary Reputation*, 2002)은 오웰이 생전에 작가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에 그의 명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모해왔는지를 문학적 명성이라는 현상의 차원에서 추적한다. 제프리 메이어스(Jeffrey Meyers)의 『오웰: 삶과 예술』(*Orwell: Life and Art*, 2010)은 오웰의

3) 크릭(Sir Bernard Crick)은 이 책의 양장본 판 로열티로 조지 오웰 기념 신탁(George Orwell Memorial Trust)을 설립하고 1993년에는 오웰상(The Orwell Prize)을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오웰의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들겠다”는 소신을 가장 잘 구현한 책과 저널리즘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되고 있다.

문체와 독특한 풍자 유머, 글쓰기 예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며 문학적 측면에서의 오웰을 조명한다. 로버트 콜스(Robert Colls)는 『조지 오웰: 영국의 반항아』(*George Orwell: English Rebel*, 2013)에서 오웰의 깊은 사고와 모순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그를 영국 전통 안에서 독자적으로 저항한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한다. 레스 윌슨(Les Wilson)의 『오웰의 섬』(*Orwell's Island*, 2024)은 오웰의 말년에 집중하여, 그가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 유라(Jura)의 고립된 시골 반힐(Barnhill)에서 보낸 시절과 그곳에서 『1984』를 집필하게 된 창작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룬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으로 풍부하게 축적되어 온 전기들은 오웰의 현재성과 정치적 아이콘으로서의 지속적인 가치를 반증한다.

오웰은 사후에 더 큰 명성을 획득한 작가이기도 하다. ‘냉전(Cold War)’이나 ‘오웰리안(Orwellian)’ 같은 단어들은 현대 정치 담론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며 그의 유명세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웰이 1945년 발표한 에세이 「당신과 원자폭탄」("You and the Atomic Bomb")에서 사용한 냉전이라는 표현은 이후 초강대국 간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정치 구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더불어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형용사 ‘오웰리안’은 전체주의적 감시와 통제를 상징하는 정치 용어로 널리 쓰인다. 이 단어는 오웰이 소설 『동물농장』(*Animal Farm*, 1945)과 『1984』에서 묘사한 전체주의 사회의 특성, 즉 권위주의 국가가 개인을 감시, 통제,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자유를 말살하는 상황과 체제를 가리킨다. 오늘날에는 국가의 대규모 감시, 언론 및 인터넷 검열,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 등이 거론될 때마다 소환되는 표현이 되었다. 이처럼 오웰과 결부된 정치 용어들만 보더라도 그의 영향력은 분명하게 드러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떤 다른 영국 작가보다 오웰이 짧은 앵글로, 미국 작가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Rodden 1991, 504)는 평가는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오웰이 아이코닉한 작가이고 그의 작품들이 광범위하게 읽혔다는 사실이 곧 그 작품들의 문학적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웰의 작품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무시되거나 일축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Woloch 1), 이는 그의 작품이 시대적, 사료적, 정치적 가치는 인정받으면서도 순수한 문학 작품으로서의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결론적으로 오웰은 평생 동안 소설가로서의 평가와 저널리스트, 에세

이스트로서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던 작가였다(Saunders 95).

오웰의 작품세계에 대한 평가절하는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지 않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평들로 정리된다. 그의 작품 세계는 대체적으로 “미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창조물, 즉 그의 강렬하고 당파적인 열정에 예술성이 종속된 정치 사상가의 작품”(Mambrol "Analysis")으로 간주되었다. “오웰의 소설이 지나치게 자전적이고 이념적이며, 우리가 소설에서 기대하는 경험의 완전한 변형이 부족하다는 것”(Meyers 22)이다. 이러한 평가는 오웰의 대표작인 『1984』에 대한 비평에서도 반복된다. 해롤드 블룸(Harold Bloom) 역시 『1984』를 두고 오웰의 인물 창조력이 서투르고(3), 미적 결함(5)을 가진 작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오웰이 열정적인 도덕주의자이자 능숙한 수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작가에게 필요한 재능은 결여되어 있다고 평한다. 그는 결국 『1984』가 “명예로운 미학적 실패작”(5)이라고 정리한다. 테레세프스키(Tereszewski, M.) 역시 “소설 전통과 연관된 수준의 심리적 진실성을 등장인물에게 부여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 『1984』의 미학적 결함”(54)이라고 평한 바 있다.

오웰의 문체에 대한 논쟁도 이와 유사한 구도를 갖는다. 오웰은 단순하고 평이한 글쓰기를 표방했으며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이 문학이 응당 지녀야 할 복잡성과 섬세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웰은 작가론에 대한 에세이인 부를 수 있는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 1946)에서 “좋은 산문은 유리창과 같다”(Essays 7)고 말하며 ‘단순한 문체(plain style)’라 불리는 평이하고 단순한 문체에 대한 선호를 밝혔다. 「정치와 영어」("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1946)에서도 긴 단어 대신 짧은 단어, 빼도 되는 단어가 있다면 빼고, 전문 용어 대신 가능한 일상어 사용 등등의 간결하고 쉬운 문체에 대한 원칙을 설명한다(Essays 359). 그러나 이는 오히려 논쟁과 비판적 사고를 제한하고, 언어의 풍부한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프리드먼(Freedman)은 이를 오웰이 소설 『1984』에서 묘사한 신어(Newspeak)⁴⁾와 유사한 경향으로 지적하면서 단순한 문체는 미국 사회의 경험주의적, 반개념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체제 유지적 사고방식을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오웰이 글의 명료함을 위해 선택한 문체가 도리어 문학적 가치의 상실로

4) 논문 45쪽 참조.

이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키타나(Ricardo Quintana)는 오웰의 작품은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단순하여, 신화나 상징을 찾는 전통적 문학 비평 양식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평을 소개하며 그의 작품의 가치를 풍자에서 찾는다(Quintana 31).

그러나 오웰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오해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웰에 대한 문학 비평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손더스(Loraine Saunders)의 연구는 오웰이 20세기에 가장 활기 넘치고 놀라운 산문을 썼으나 이를 평범한 산문으로 가장했다(112)고 주장하며 단순하고 평범해보이지만 사실 매우 강렬한 것이라고 평한다. 메키(Mechie, C.)는 오웰이 “아름다운 단순함”(15)으로 글을 썼으며 이는 오웰이 항상 강조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크레이그(Craig)는 이를 “집요한 기법(insistent technique)”으로 명명하면서, 오웰이 과거의 특정 순간과 이미지를 정확하게 묘사함으로써 “경험의 흐름 속에 내재된 질서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124). 또한 오웰의 단순명료한 문체를 문학의 사실주의 전통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의 문체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세심하게 구성하려는 경향”(Mechie 21 재인용)을 의미하며, 섬세함의 결여나 사고의 제한과는 거리가 멀다. 클룬(Michael Clune)은 오웰 작품들의 가진 예술성의 부재를 언급하지만 오웰의 문체가 자명해보이는 것들을 통해 예술을 인지하게 해준다는 점을 『1984』를 통해 주장한다(43). 오웰이 구사한 간결하고 명료해서 일견 단순해 보이는 문체가 섬세함의 결여나 사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런 비평들은 오웰의 평이한 문체가 문학적 가치 부족을 의미한다는 평이 오해라고 주장한다.

오웰의 문체와 언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오웰이 주장한 단순한 문체 ^가 걸보기와 같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델러니(Paul Delany)는 오웰의 언어를 둘러싼 논쟁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오웰의 문체에 대한 공식들을 살펴보면 그 자신 스스로의 전제에 반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쓴다(96). 다시 말하자면 평이한 문체에 대한 주장과는 다르게 오웰 자신의 글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비평이다. 실제로 오웰 자신도 사고와 언어 간의 연관에 대해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46년 발표한 에세이 「정치와 영어」("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에서 정치적 언어가 완곡 어법, 논점 회피, 아리송한 표현 등을 동원하며 추방을 인구 이동이라 부르고 숙청을 의심 분자 제거라 부르

는 등 변호할 수 없는 일을 변호하는 데 쓰인다고 지적한다(*Essays* 356). 진실의 은폐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웰이 당대 사회주의자들의 난삽한 이론적 언어와 마르크스주의적 전문 용어에 반발한 것은 그 언어들이 노동계급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웰은 『1984』에서 이 주제를 가장 철저히 극적으로 탐구하였다(Mechie 134). 즉 작가 자신이 주장한 문체의 단순명료함이 사고나 독해의 단순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로니(Roney)는 이러한 오웰의 명료성 옹호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난해한 문체보다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언어와 사고, 정치적 맥락의 관계를 탐구”(21)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오웰이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철학적 독해 연구들로부터도 확인된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피터 브라이언 배리(Peter Brian Barry)가 『조지 오웰: 평등의 윤리』(*George Orwell: The Ethics of Equality*, 2023)를 통해 오웰이 철학에서는 아웃사이드이지만 품위, 자유, 정의, 평등에 대한 깊은 윤리적 태도를 보여주며 기존의 저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버츠(John Michael Roberts)는 들뢰즈를 통해 오웰을 읽으며 오웰을 “타인의 정동(affects)을 횡단하는 분열적 유목자(schizoid nomad)”(356)로 규정하면서, 그가 중산층 환경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영토화하는 과정에서 지배 세력에 맞서 비판적이고 열정적인 도덕적 관점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356). 무엇보다 오웰의 독창적인 사유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낮의 어둠』(*Darkness at Noon*, 1940)을 쓴 작가 아서 퀴슬러(Arthur Koestler)는 “나는 조지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를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Judd)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인은 오웰은 자신의 글을 통해 독자의 “고정된 생각과 관습적 의견에 불만을 느끼도록 강요”(Cain 76)한다고 말한다. 즉 오웰의 글이 “우리가 무심코 ‘상식’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의 초월주의 철학자(Transcendentalism)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이 말하는 “사유하는 인간(man thinking)”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Cain 76).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오웰을 단순히 정치적 작가가 아

나라 시대적 한계와 가능성의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재독해해야 할 작가로 자리 매김한다. 즉 오웰이 단순한 작가라는 오웰을 향한 흔한 오해에 대한 비평들이 있는 것이다.

오웰의 작품 세계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오웰의 유명세를 둘러싼 오독은 흥미로우면서 반드시 재고해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웰의 유명세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데에는 앞서 소개되었다시피 ‘냉전’이나 ‘오웰리안’ 등의 정치적 단어들 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자의적으로 상대방 진영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추정할 때 정치적 비난의 용어로 쓰인다는 점이다. 오웰은 평생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했기에 좌파 지식인의 아이콘으로 간주되지만 정치 담론에 있어 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인용된다. 진보 진영은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영국의 존슨(Boris Johnson),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 등 우파 지도자의 오웰리안 거짓말을 비난하는 반면, 보수파는 정부와 주류 언론을 오웰리안 검열로 비난한다. 이러한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오웰 인용과 관련하여, 골드스타인(Philip Goldstein)은 오웰이 번햄(James Burnham)의 권력승배를 비판했음에도 그에게 진 지적 채무가 상당했다고 주장하며 오웰의 보수주의적 면모를 조명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사례들은 도처에 있다. 트럼프의 아들 돈 주니어(Donald Trump Jr.)는 2021년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 정지 사건을 두고 “우리는 오웰의 1984년을 살고 있다”(Orrall "Orwellian")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상원의원 릭 스콧(Rick Scott)은 바이든 정부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허위 정보 거버넌스 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 설립을 시도하자 이것이 『1984』에 등장하는 사상경찰(Thought Police)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Gancarski). 영국에서는 BNP(British National Party)⁵⁾가 이민 반대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오웰을 인용한 바 있고, 존 버치 소사이어티(John Birch Society)라는 미국의 극우단체가 자유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1984’로 한 일(Rodden 2020, 314)까지 있었다. 포셋(Max Fawcett)은 이를 두고 “오웰이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주장을 위해 오웰의 말을 무기로 쓰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레이브존(Danny D. Leybzon)은 『동물농장』과 『1984』가 보편적 의료나

5) BNP(British National Party)는 1982년 창당된 영국의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다.

무상교육 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다("Orwell"). 뉴싱어(John Newsinger)는 『1984』가 “저자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목적”(2018, 138)을 위해 냉전 체제의 선전 도구가 되었던 사실을 지적하는데, 한국에서도 해방 이후 이 작품이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표명하기 위한 의도”(안미영 339)로 활용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웰이 “그토록 자주 오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대중적 위상을 보여준다”(Williams, "Orwell" 110)는 역설도 성립한다.

그런데 이 오독과 오용의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오웰에게 붙여진 이름들도 그만큼 다양해진다. 그의 명성이 특정 진영에 귀속되기를 거부하는 만큼 각 진영은 저마다의 오웰을 빚어내 왔다. 로든(John Rodden)은 자신의 저서 『조지 오웰: 정치적 명성의 정치학』(*George Orwell The Politics of Literary Reputation*, 2017)에서 오웰을 다채롭게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돈키호테적 도덕주의자, 사회주의 반역자, 무정부주의자, 영국 애국자, 신보수주의자, 문화 연구의 선구자, 심지어 미디어 및 상업 스타 등의 정체성이 있다. 맥러플린(Neil McLaughlin)은 오웰이 공공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독립적인 ‘쇠파리(Gadfly)⁶⁾’ 지식인의 역할을 창조하고 구현했다고 평가하며, 테리 이글턴 역시 “오웰의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문화연구라고 부르는 것이 싹을 틔우기 시작”(183)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냉전부터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현대 위기는 오웰식 헤드라인 없이 지나간 적이 없다”(Vaninskaya 598)고 언급될만큼 오웰은 “정치적 좌파와 우파 모두의 시금석”(Stephen Armstrong)이자 그에 대한 논의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모든 지점 즉 우파, 중도, 좌파”(Rossi, Rodden 11)에서 발생하는 아이콘이기도 하다.

오웰을 둘러싼 이 광범위하고 때로는 자의적인 인용들은 그의 사상이 단일한 정치적 라벨로 포획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그 포획 불가능성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유’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그러나 오웰의 자유는 단일하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외부의 강압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

6) 쇠파리(Gadfly)는 잔소리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며 모든 주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 이슈들을 뼈뼉하게 바라보며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지식인의 공익적 기여를 뜻한다.

동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자유(liberty)이기도 하고, 그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자유주의(liberalism)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으며, 나아가 자유를 보장하는 바로 그 장치가 어떻게 개인을 관리하고 종속시키는가를 묻는 자유주의 통치성(liberal governmentality)의 문제와도 교차한다. 이 연구는 오웰에 대한 오독의 핵심 키워드인 '자유'에 착안하여,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서로 연관되면서도 구별되는 세 개념의 교차로에 오웰을 위치시키고 그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먼저 세 개념의 내용과 상호 관계를 정리한다. *이렇게 ?*

이런게 토대.

(2)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

이 연구는 조지 오웰을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작가로 상정하고 그의 작품 세계와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표현의 자유, 존 로크(J. Locke)의 고전적 자유주의론, 그리고 미셸 푸코(M. Foucault)의 자유주의 통치성 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은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개념들이다. 개념상 자유는 어떤 상태를 뜻하며 자유주의는 이러한 상태를 제도를 동원해 유지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자유에 대해 논의한 철학자들을 자유주의자로 부를 수 있기에 아래에서 다룰 밀과 로크 모두를 자유주의자로 부르고 자유주의를 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와 자유주의 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Mill)이나 존 로크(Locke) 같은 철학자들을 공통적으로 참조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별되어야 한다. *논쟁!*

*권제주의
↓
자유주의
↓
대체주의
↓
권제주의*

자유 중에서도 오웰이 진실을 말하고 추구할 자유를 중시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로크의 자유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최소화된 개입을 요구한다. 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국가의 강력한 권한과는 충돌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은 그의 사회주의자라는 자기규정과 충돌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의 최소한의

고정성!

*자유주의는 병역제(병역제)를 들고 나온 개념. (emancipation)
권제주의
↓
자본주의 (국동과 흥자) 시기에 강력한 국가를 막기, 결합
↓
2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는 국가의 역할
↓
경쟁이다.*

개입을 주장한 자유주의로서 로크의 자유주의론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통치성을 살펴보기 위해 미셸 푸코의 담론을 가져올 것이다. 오웰은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들을 썼지만, 푸코의 자유주의 통치성 논의는 18세기로부터 시작해 19세기 자유주의의 확산을 거치며 전개되고 20세기에는 정치적 기술들로 구현된다. 오웰의 작품들은 이러한 징후와 흐름을 예고하고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오웰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 지적 자유, 개인의 자율성 등을 이념에 우선한 자유주의자이며 저작을 통해 자유를 옹호한다. 그리고 오웰은 자유주의가 통치성과 결합되어 개인을 포섭하는 과정의 징후를 포착하고 비판한다.

자유는 보통 개인의 선택과 자율, 외부의 강압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자체를 가리킨다. 자유라는 개념은 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공동체적 삶의 기록이 시작된 이래 상상력과 관행, 집단적 경험에 대한 기억, 인간의 사회적 및 종교적 본성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가치 규범이 등장하고, 또한 인간관계와 정치권력의 기제가 복잡하게 확대되면서 자유에 대한 인식과 사유도 심화되어 왔다”(유홍림 423)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에서부터 중세와 근대, 포스트모던 사유에 이르기까지 자유는 그 의미가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다. 자유는 대부분의 규범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유리수와 같이 분절된 독립개념이라기보다 무리수와 같이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연속선상에서 다른 관념들과 연결되어 사고되었다(유홍림 423). 정의, 평등, 민주주의, 개인성, 자율성, 상호존중, 법, 가치 규범 등등의 관념들과 더불어 자유는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중심 개념이며, 그 관념들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유홍림 423).

오웰이 영국 철학사의 자유 관념에 영향을 받은 사상적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강조한 진실을 말하고 추구할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밀의 자유 논의는 오웰을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오웰은 19세기 영국 급진주의 전통 즉, 권위주의적 교조주의에 맞서 도덕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빅토리아 시대적 가치에 충실했다(Beadle "George"). 이러한 영국적 특성은 오웰로 하여금 정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 삶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고수하게 했다.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은 1859년 『자유론(On Liberty)』을 발표한다. 이 저서는 밀과 아내 헤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 Mill, 1807-1858)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는데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⁷⁾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개인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대 대두된 정치 사회적 의제 중 하나인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라는 문제, 대량생산과 대중문화의 확산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상실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화와 강조를 담은 책이다. 밀은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밀은 “자유 의 기본 원칙과 함께 자유 그 자체의 소중함을 옹호한 사상가(유희림 424)”이며 자유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본다. 그가 강조하는 자유는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이며 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구분⁸⁾을 빌리자면, 소극적 자유는 타인들에 의한 간섭의 부재 또는 타인의 방해 없이 행위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적극적 자유는 자기 지배(self-government)를 특징으로 하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스스로 결정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소망이다(Berlin 131). 공리주의자인 밀은

7)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 역사에서 1837년부터 1901년에 이르는 빅토리아 여왕(1819~1901)의 치세 기간을 말한다.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을 형성하였고 문화적으로는 낭만주의로의 전환이 있었다. 정치 개혁에 한정해서 말해보자면 사회개혁의 동향, 참정권의 확대 등으로 정치 의제들이 갈수록 자유적인 경향을 보인 시기이다.

8) 벌린은 타인들에 의한 간섭의 부재 또는 어떤 사람이 타인들의 방해없이 행위할 수 있는 영역을 소극적 자유(Berlin 121-3), 절대적인 주장들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는 인간이 처한 상황의 피할 수 없는 특징이고, 여기서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Berlin 169) 적극적 자유란 자기 지배(self-government)를 특징으로 하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며 스스로 방향으로 찾아가고 자신의 목표와 정책을 인식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소망(Berlin 131) 이라고 정리한다.

Emancipation
Liberty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보장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자유론에 적용한다(박성우 7).

밀은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에 개인이 타인의 간섭없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의견이 들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호규 11). 개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합은 해당 의견을 가진 사람들 보다 그 의견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 의견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표현과 발화의 자유가 제지된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들리지 않는다(이호규 11). 이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 '포획된 청중'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생각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모든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는 권리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다(이호규 11). 이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가 최고의 덕목이라는 밀의 논의가 공리주의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호규 11). "성격의 개인성", "다양한 발전", "취향과 재능의 다양성", "다양한 지적 관점", "자극적인 충돌"과 같은 말들이 밀의 주장이었으며 동시에 "오웰이 꿈꾸는 자유주의적 사회 민주주의"(Rodden 2020, 272)라는 점에서, 오웰은 밀이 시작한 영국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영향을 받은 사상가임을 알 수 있다.

오웰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Woodcock 29)했으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핵심 가치였다. 우드콕(George Woodcock)은 오웰이 정치적 프로그램의 원리보다 "행동의 일반적 원칙, 특히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원칙"(29)에 훨씬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영국 급진적 반대 전통 속에서 발전해왔으나 현대 정치 생활에서 급속히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Woodcock 29) 가치들이었다. 오웰에게 자유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스페인 내전 참전과 검열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된 실제적 가치이기도 했다. 벌린의 구분에 따르면 오웰이 저술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는 "무언가를 향한 자유(Freedom to)"이며, 그 무언가의 대상은 다름 아닌 진실이다. 오웰은 자신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 1946)에서 정치적 글쓰기와 진실을 말할 자유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피력했으며, 이는 그의 작가 정신의 핵심을 이룬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 법치, 권력 분립, 시장경제와 같은 장치를 통해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사상이다. 자유를 추상적 가치로 두는 것

자유

강령

위함?

자유 논의 — 책임이 있어야 책임이 따르니까
— 책임이 없으면 책임이 따르니까
— 책임이 없으면 책임이 따르니까

을 넘어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치 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는 자유와 구별된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왔다. 밀과 로크는 자유를 논했다는 점에서 자유에 관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논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철학자이기도 하다. 두 개념이 같은 철학자들을 참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자유가 '어떤 상태인가'를 묻는다면 자유주의는 '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층위가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논의로 '국가는 필요악이다'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시기는 자유주의의 태동기로 절대왕정의 억압에 맞서 개인의 신체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주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존 로크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또한 당대 루소와 마찬가지로 사회계약론을 논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정치질서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자유라는 가치에 의거하여 사회제도를 적극적으로 구상한 근대의 사회계약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박성호 226)를 이룬다. 로크를 비롯한 사회계약론자들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시민의 정치적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위는 과연 무엇'(강정인 12)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답은 "정치적 권위란 시민의 동의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강정인 12)이었다.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자유주의는 자연상태에서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이성과 욕망의 주체로 인정한다. 인간이 개인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갖추고 있으며, 또 이를 이성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고 가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된 권력이 없는 자연상태에서 자기 이익의 무제한적인 추구는 필연적으로 개인들 사이에 갈등과 투쟁을 야기하고, 급기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이론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한 결과 자연상태에서 관찰되는 무제한적인 자기 이익 추구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를 상호 동등하게 포기,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계약을 이론화했다.

(강정인 12)

국가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합의인 사회계약으로 만들어진 존 재일 뿐이며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면 시민은 저항할 권리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의 자유주의는 정치권력의 근거를 구성원의 자유로운 동의에 두고 그 권력의 목적은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에 두고 있다”(박성호 226)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논의했는데 그의 유명한 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에 국가의 간섭 없는 상태가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담았다. 이러한 자유주의 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야경국가관’(Night-watcher state)으로 정리된다.

밀의 고전 저작에서도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조직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Le Galès 160) 원칙이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행동 자유를 위한 넓은 영역을 창출하는 데 있으며, 특별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조용하고 자비로워야 하며,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권을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시장 실패의 경우에만 완만한 개입이 고려될 수 있다(Le Galès 160). 정리하자면 자유주의는 “가능한 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극소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개인은 모든 정당한 사회적 행동의 유일한 원천”(이남복 196)이라고 가정하며, 전근대적 형태의 권력이 문제되는 곳에서 항상 해방적인 잠재력을 발휘해왔다(정태창 141).

근대의 자유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의 논의로, 산업화의 부작용에 따른 빈부격차와 노동문제 같은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가가 복지적 개입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담게 된다.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육이나 복지 등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케인즈주의(Keynesianism)로 불리게 될 복지국가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대공황을 겪으며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옹호했다. 오웰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 시기, 즉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 안에 있으면서도 국가의 복

지 개입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가던 전환기였다.

오웰은 평생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규정했지만 동시에 깊은 자유주의적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와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은 강력한 국가 권한을 전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 긴장이 오웰 사상의 핵심이며, 그의 자유주의적 기질은 오히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실천의 문제를 포착하는 시각을 제공했다. 이는 오웰 문학의 창조적 동력이 되어 『위건 부두로 가는 길』과 『카탈로니아 찬가』를 통해 드러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논의의 다다르기 전 권력⁹⁾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권력과 관련하여 주권권력(Sovereign Power),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 생명권력(Biopower) 등의 개념을 제시한다. 주권권력은 전근대 국가, 왕정 국가의 전형적 권력 형태로서 주권자인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며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 것(To make die and to let live)”(푸코 2015, 289)을 행사한다. 규율권력은 근대 산업 사회와 함께 등장하며 개인의 신체와 품행을 조성하기 위해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기술을 말한다. 푸코는 1975년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감옥에 응용된 규율 기술을 연구하고, 학교, 공장, 감옥 등 일련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 내에서 개인의 행위를 관찰, 감독, 생산, 통제하는 권력의 기술 혹은 지식과 권력을 추적함으로써 근대 사회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든 17). 규율은 신체를 길들여 유순하고 효율적인 노동력으로 만드는데 학교, 공장, 군대, 감옥처럼 일정한 공간 안에서 감시와 교정을 통해 실행된다. 이러한 규율이 개인에게 내재화되면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검열하며 교정하는 내면화된 감시로 전환된다.

생명권력은 1976년 처음 출판된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 1권에 등장하고 『안전, 영토, 인구』(Security, Territory, Population)에서 본격적으로

9) 권력과 통치의 상관성에 대한 서구 철학의 논의는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와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마키아벨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적용되는 권력과 통치 기술에 관심을 가졌고 “공공선이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권력의 존재를 필요로 했다. 한편 홉스는 안정된 질서를 위한 권력 위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수석 84). 이처럼 권력과 통치는 정치학의 핵심적인 주제들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권력이다. 또 통치는 권력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권력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체계를 일컫기도 하며 국가 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로 논의된다. 이는 “살게 만들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것(To make live and to let die)”(푸코 2015, 289)이라는 점에서 주권권력과 대립되는 논리를 갖는다. 생명권력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위협을 줄이고, 질병, 재난, 경제적 위기 같은 가능성들을 관리하는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둔다.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이 행사되는 단위에 있다. 규율권력을 통해 개인은 사회의 규율을 내재화하고 사회화를 달성하는 반면, 생명권력은 이렇게 형성된 사회라는 집합체, 정확히는 ‘인구’라는 단위를 대상으로 한 권력 행사이다. 생명권력의 기술을 실천하는 국가는 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애로운 모습을 띠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생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이데올로기적 신화적 풍경 안에서 국가 인종주의적 논리를 작동”(이진일 331)시킬 수 있다.

주권권력
생명권력
생명 기술!

푸코는 주권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 등의 개념들이 ‘주권사회-규율사회-통치사회’와 같은 시간에 따른 단계적 변화로 이해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현실은 “주권, 규율, 통치적 관리라는 삼각형”이며 특히 “인구가 바로 이 삼각형의 핵심 표적”이라고 주장했다(푸코 2011). 이후 푸코는 국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응답하며, ‘통치성’이라는 개념 아래 기존 권력 개념들을 통합한다(신충식 2010). ‘통치성’은 ‘품행의 인도(the conduct of conduct)’를 의미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부터 아이를 훈육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활동, 즉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통치는 이로써 국가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학교, 병원, 군대 등 사회 곳곳에 내재하는 미시적 차원을 갖게 된다. 통치성은 주권 권력이나 훈육 권력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재배치하고 새로운 합리성의 논리 안으로 흡수하는 메타-수준의 권력 기술이다.

?

개사 ↔

개사인 다름가?

이러한 통치성 개념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통치성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국がい성(Staatsräson)과의 단절을 통해 등장한다. 국がい성의 논리에서 통치는 군주의 의지를 인구에 부과하는 하향식 명령의 체계였으며 통치의 목표는 국가의 강화와 보존이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통치성은 자연적 대상으로서의 사회의 운동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방식, 즉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개입 방식을 만들어낸다. 푸코가 즐겨 인용하는 중농주의(physiocracy)의 ‘자연

질서'(ordre naturel) 개념이 바로 이 논리의 원천이다.

새로운 통치성이 가진 전제는 국가이성에서처럼 군주 혹은 국가의 의지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대상으로서의 사회의 운동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단순히 규칙이나 규제를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국가의 개입 방식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리하여 푸코는 다섯 번째로 자유주의가 문자 그대로 자유(liberty)에 기반을 둔 통치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그것, 즉 좋은 통치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란 점을 꼽는다. 이런 주장의 근거 역시 중농주의자들이 제시한 주장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것이 푸코의 생각이다. 중농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인구란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전체처럼 다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두가 하나의 행위의 동인(mainspring), 즉 "욕망"(desire)을 통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명령이 아닌 바로 이런 욕망의 법칙, 즉 정치경제학이 상대하는 경제적 인간, 이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일 욕망을 좇으며 살아가는 개별적이면서도 또한 전체인 인구=시민, 바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지 않을 수 없다. (서동진 324-25)

욕망?
개인
집합적 욕망!

중농주의자들은 경제 현상을 자연의 불변법칙에 따르는 과정으로 제시하며 국가의 자의적 규제가 오히려 자연적 운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푸코 2008, 44-46). 통치의 합리성은 이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에 따르는 것으로 제정의 된다.

이 새로운 통치성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계기는 인구 문제의 출현이었다. 18세기 중농주의자들에 의해 인구는 주권자의 의지에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후, 환경, 경제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변화하는 자연적 현상으로 재인식되었다. 즉 "인구에 내재하는 자연성"이라 불린다(푸코 2011, 112). 이 인식론적 전환은 중요한 귀결을 낳는다. 인구가 자연적 현상이라면, 그것은 법령으로 직접 조형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인구가 권력기술의 상관물로서 구성"(푸코 2011, 129)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해 인구는 통치의 목적이자 수단이며 동시에 통치 지식의 핵심 대상으로 삼중의 위상을 갖게 된다. 통치자는 이제 인구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 얽힌 인구의 자연적 운동 원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 즉 정치경제학을

요구한다.

『안전, 영토, 인구』는 이러한 통치 대상으로서의 인구 개념을 서술하는 동시에, 질병, 식량난, 재난, 경제위기 등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 계산하여 인구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삶의 조건을 최적화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안전’(sécurité)의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 안전은 일상적 의미의 치안이나 보안이 아니라, 인구의 정상적 운동을 유지하고 우발적 사건들을 관리하는 통치 기술의 총체다. 규율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의 규범을 확립한다면, 안전은 인구 전체의 집합적 현상에 개입하여 그것의 통계적 분포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발트(François Ewald)는 이를 ‘위험의 사회화’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며 안전을 위한 보험을 통해 다종다기한 위험들이 불의의 운명이 아닌 객관성의 유형을 구성하고 합리성을 실천하게 한다고 말한다(에발트 294-95).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 통치성과 복지국가의 논리가 교차한다.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즉 건강한 인구,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해야 하는 통치의 과제를 내포한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푸코 2008, 65). 자유주의적 통치 원리인 자유방임(laissez-faire)이 최소 개입을 표방할 때, “통치의 간소성 문제, 이것은 바로 자유주의의 문제”(푸코 2011, 31), 그 이면에서는 자유에 수반되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 메커니즘이 동시에 가동된다. 결국 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은 자유가 통치의 조건이자 기술로 작용하여 개인을 자율적 주체로 형성한다는 점에 있다.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모두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니지만, 시장을 다루는 방식과 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쪽에 가깝고,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오히려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된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심에 놓는다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자기 자신을 기업처럼 관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르 갈레스(Le Galès)의 정리에 따르면 신자

?
쟁점

유주의 체제하에서 시장은 그 자체로 절대적 선이자 사회 조직의 최상위 규범으로 격상되며 신자유주의는 시장 실패의 개념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모든 위기에 대해 더 많은 시장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레를 달리한다(Le Galès 160).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시장의 원리를 사회 생활의 전 영역으로 침투시켜 국가와 시민 사회의 모든 활동 영역을 시장 지배력 아래 재편하려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닌다.

하이에크(F. Hayek)와 그의 주도로 조직된 몽펠랭협회(Mont Pelerin Society)는 자신들의 관점을 신자유주의로 명명했는데, 이를 신자유주의 관념의 출발점으로 파악한다. 시장을 개인들 사이에서 구성되는 이상적인 '자생적 질서(catalaxy)'로 인식했던 하이에크는 빅토리아 시대에 수립된 자유시장이 194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영역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권위적 관료주의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던 파시즘과 케인스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는 비록 그 구체적인 외양은 다르지만, 공공선이라는 평등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결국 시장을 대체하는 폭정으로 나아가게 될 전체주의적인 관료의 지배가능성을 공유했다. 본질적으로 파시즘, 케인스주의, 사회주의는 '예속으로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박찬중 87).

푸코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새로운 국면을 분석하기 위해 1930~50년대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1950~70년대 미국 시카고학파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검토한다. 독일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정이 그 자체로 취약하다고 보고 순수한 경쟁의 논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사법적 틀과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카고학파는 뉴딜정책 이후 국가 행정의 과잉을 비판하며 가족, 출생률, 비행, 형벌정책 등 경제와 무관해 보이는 영역까지 시장 합리성을 확장하는 인적자본론을 발전시켰다. 상반되어 보이는 두 흐름이지만 푸코에 따르면 이 둘은 모든 사회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사회 전역에 경쟁 논리를 침투시키는 통치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이처럼 직접적인 억압 대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자본 가치를 높이려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oeconomicus)'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

질서자유주의도 시카고학파의 인적자본 이론도 자본주의를 사는 개인들에게 자신의 자산 가치를 끌어 올리고 이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라고 주문한다. 이런 사회는 분명 “철저하게 규율적인 사회, 즉 그 내부에서 법률적 망이 개인들을 속박하면서 이른바 규범적 메커니즘”(이문수 75)이 지배적인 사회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소수자들에 대하여 관용을 보이는 사회일지라도 (이런 사회는) 개인을 내적으로 복종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마르크스의 추상적 노동 개념이 인간 주체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객체인 동시에 주체로서의 노동자를 보지 못했다는 시카고학파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들의 합리적 행위가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권력은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낸다. 이 새로운 주체는 신자유주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아니면 소비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본의 가치를 높이려하거나 이를 투자하여 더욱 큰 만족을 얻고자하는 자들이다. (이문수 75)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외부의 강제 없이도 스스로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존재로 구성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와 지배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매개하는 관계로 드러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자유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푸코적 분석의 비판적 가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 첫째, 그것은 자유주의를 순수하게 자유의 이념으로, 혹은 반대로 단순한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환원하는 양 극단의 도식적 이해를 모두 거부한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지배의 특수한 접합 방식—자유를 통한 지배, 지배를 통한 자유—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둘째, 통치성 분석은 권력을 단순히 억압이나 부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해체하고, 그것이 어떻게 주체성을 생산하고 욕망을 형성하며 지식을 구성하는지를 드러낸다. 이로써 저항 또한 단순한 권력의 외부가 아닌, 통

치 합리성의 내부에서 그 균열을 찾는 방식으로 재사유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개념이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훨씬 이전에 조지 오웰이 이미 문학적 감각으로 그 작동 방식을 포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웰은 자유주의 통치성이나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개념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통치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주체를 형성하고 자유를 관리하는지를 감지하고 선취하고 있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국가의 복지 제도와 통계적 안전 장치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관리 가능한 주체로 예측시키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을 고발한다. 『숨 쉴 곳을 찾아서』에서는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자기 경영 주체의 형성이 그려진다. 시스템에 적응한 듯 보이면서도 끝내 냉소를 멈추지 않는 주인공을 통해 오웰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한계와 저항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성은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하면서도 철학, 윤리,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많은 논의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조지 오웰의 작품들이 이 세 개념의 교차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세 키워드가 각기 오웰과 깊은 상관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웰이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추구했는지,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이 그의 이념적 긴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웰이 당대 자유주의 통치성의 흐름을 어떻게 예감하고 작품에 담아 비판했는지를 그의 작품들을 통해 탐색할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 연구는 세 개의 본론을 통해 논지를 전개한다. 제2장은 오웰이 진실을 말하고 추구할 자유를 핵심 가치로 정립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 가치가 『카탈로니아 찬가』와 『1984』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제3장은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이 그의 정치적 자기 규정과 어떤 긴장을 형성하며 그 긴장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과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어떤 통찰을 산출하는지를 살핀다. 제4장은 푸코의 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분석 틀로 삼아 오웰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과 『숨 쉴 곳을 찾아서』를 통해 자유주의 복지 장치의 역설과 자기 경영 주체의 형성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선취하고 비판했는지를 논증한다.

제2장 행위로서의 자유: 『카탈로니아 찬가』와 『1984』에 나타난 저항의 가치론

(1) 『카탈로니아 찬가』: 스페인의 진실과 글쓰기

스페인 내전 참전의 기록을 담은 『카탈로니아 찬가』는 자유에 대한 오웰의 관점을 구체화시킨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오웰은 당시 파시즘과 반파시즘 세력의 대립으로 알려졌던 스페인 내전에 목숨을 걸고 참전한다. 오웰이 활동하던 시기 즉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럽 전역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¹⁰⁾와 파시즘(Fascism)¹¹⁾의 확산에 휩쓸리고 있었다. 오웰은 파시즘의 위협과 도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심각한 상황으로 보았다. 두 사상 모두 국가와 집단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말살하는데 오웰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극단적 억압이 문명의 파괴와 맞먹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오웰은 “파시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에 대한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반대”(Boyer 97)를 드러낸 작가인데 이는 권위가 억압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들과¹²⁾ 오웰이 공유했던 문제의식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에 맞서고자 목숨을 건 참전을 감행했기에 오웰은 “자유를 위한 투사”(Boyer 96)로 불리게 된다.

스페인 내전 당시 세계 각국에서 스페인 제 2공화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모인 의용군으로 이뤄진 국제 여단 의용군¹³⁾이 있었는데 오웰도 여기에 가담한다.

10)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을 통해 전체주의 정권은 무한히 많고 다양한 인간들을 마치 모든 인간이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조직 복수의 다원성이 사라지고 단수의 획일성만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한다(26).

11) 파시즘, 전체주의, 정치적 종교의 개념적, 역사적 관계에 대한 탐구와 현대 정치적 광신과 폭력과의 관계는 로저 그리핀(Roger Griffin)의 2005년 출판 『파시즘 전체주의 정치적 종교』(Fascism, totalitarianism and political religion, Vol. 1) 참조.

12)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내전을 넘어 지성의 최전선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 수많은 지식인들이 파시즘에 대해 총과 펜을 들고 모여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 시몬 베유(Simone Weil), 아서 코슬러(Arthur Koestler),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등이 대표적인 참전 작가, 철학자이다.

13) 의용군(Volunteer Corps)은 자원하여 참전한 군인 집단을 말한다. 민병대(Militia)는 정규군이 아닌 지역 방어나 치안 유지를 위해 조직된 무장 집단을 말한다. 민병대는 어떤 군사 집단

이 국제 여단은 스페인으로 가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프란시스코 프랑코¹⁴⁾의 파시스트 군대에 대해 싸운다. 국제여단의 의용군을 포함해 공화 정부를 위해 싸운 많은 이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프랑코라는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전쟁에 이긴다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다. 즉 공화파는 오웰을 포함해서 파시즘 반대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웰은 공화파의 일원으로 싸우다가 목에 총을 맞는 부상을 당한다. 목숨을 간신히 건져 귀국한 오웰은 스페인에서의 기록을 『카탈로니아 찬가』에 담아 발표한다.

이후 오웰은 “스페인 내전과 1936~1937년에 있었던 그 밖의 사건들”(Essays 5)로 인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되었다”(Essays 5)고 말한다. 물론 참전 이유에서 드러났다시피 그는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반대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반대편에 자리한다. 동시에 당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상황에 대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오웰은 자신이 『카탈로니아 찬가』를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스페인 내전에 대해 쓴 『카탈로니아 찬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책이다. 그러나 대체로 거리를 유지하며 형식을 고려하여 쓴 작품이다. 나는 이 책에서 나의 문학적인 본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애를 썼다.

My book about the Spanish Civil War, *Homage to Catalonia*, is, of course, a frankly political book, but in the main it is written with a certain detachment and regard for form. I did try very hard in it to tell the whole truth without violating my literary instincts. (Essays 6)

오웰은 자신이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힌다. 그에게 스페인

인지를 설명하며, 의용군은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를 설명한다. 오웰은 자신이 자원하여 참전했다는 의미로 의용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용군들이 소속된 각 집단들은 민병대로 간주된다.

14)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1892-1975)는 1936년 스페인 제2공화국의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과 파시스트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고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한 뒤 1939년 4월 1일 내전 종결을 선언하며 정권을 수립한다. 프랑코는 전형적인 개발독재자로 평가된다.

반란이긴
거기...
반란? 거기... X

에서의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사실은 스페인에서의 진실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긴다. 어떤 진실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오웰이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회고하는 것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웰에게 진실이란 강요된 거짓에 오염되지 않은 경험의 정직성을 의미한다.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오웰이 진실에 집착하게 된 것은 당시 스페인 내전¹⁵⁾을 보도하는 언론들에 대한 환멸로부터 비롯한다. 당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를 살펴보기 전 스페인 내전의 정황에 대해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화파는 합법 정부를 수호하는 세력이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섞여 있었다. 반대로 국민파는 반혁명 쿠데타 세력으로 프랑코¹⁶⁾ 장군을 위시한 군부, 스페인 파시스트 그룹이었던 팔랑헤당(Falange), 가톨릭 교회와 왕당파, 지주 등이 섞여 있었다. 공화파는 선거로 집권한 합법 정부를 수호하는 연합이었으나 다양한 좌파 계열의 혼합으로 노선 갈등을 겪었다.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았고 당시 국제여단이라고 불린 전세계 좌파 연합이 참전하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는 같은 파시스트 세력인 국민파에게 많은 무기를 지원한 반면 공화파에게 소련이 제공한 군사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 국민파는 프랑코 장군을 중심으로 군부, 가톨릭 교회, 지주 세력이 뭉친 반혁명 세력이었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국민파에게 최신 무기와 대규모 병력을 지원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불간섭 원칙을 내세웠는데 사실상 국민파에게 유리한 방관이었다고 간주된다. 결국 1939년 스페인 내전은 국민파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이후 1939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프랑코 독재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스페인 내전에서 국민파의 주요 세력 중 하나는 팔랑헤당이라는 스페인 파시

15) 스페인 내전은 '20세기 모든 이념들의 각축장'으로 불린다. 영국의 전쟁사학자 앤터니 비버(Antony Beevor)는 그의 저서 『스페인 내전』 머리말에서 이 전쟁의 흔히 알려진 구도인 좌파와 우파의 대립과 더불어 두 개의 갈등 축을 제시한다. 하나는 국가의 중앙집권과 지역적 독립 간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와 개인의 자유 간의 갈등이다(8). 다양한 이념 집단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한편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시키려 했다. 스페인 내전의 양상이 좌, 우파의 대립 외에도 복잡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는 한편 이 전쟁이 모든 이념들의 집합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성격을 설명해준다.

16) 프랑코는 1939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독재 기간 동안 군부를 기반으로 하여 팔랑헤당(Falange)이라는 파시스트 정당을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내세웠고 가톨릭 교회의 지원으로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독재를 지속한다. 이 독재는 검열, 비밀경찰, 언어 탄압, 여성 억압 등을 양산했으며 프랑코 사망 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Juan Carlos I)가 즉위하고 민주화를 이행하면서 마무리된다.

스트 그룹이었다. 당시 파시즘 정부였던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이들을 지원했기에 국민파에 맞서 싸우는 것은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간주되었다. 오웰 뿐 아니라 당대 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이 스페인 참전을 감행한 것도 유럽 전체를 잠식하려는 파시즘을 막고자 한 의도였다. 따라서 오웰이 처음 주목한 갈등 구도는 국민파의 파시즘과 이에 맞서는 좌파들로 구성된 공화파 사이의 명백한 대립이었다. 그러나 참전 이후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공화파를 위해 싸우고 있던 좌파 세력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공화 정부를 위해 싸운 세력 중 카탈로니아에서 주요하게 활동했던 반파시즘 집단의 정당들에는 세 집단이 있었다. 통일사회당(P.S.U.C.)¹⁷⁾, 통일노동자당(P.O.U.M.)¹⁸⁾, 통상적으로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통칭되는 전국노동자연맹(C.N.T.)¹⁹⁾, 이렇게 세 정당이다. 이 중에서 오웰은 통일노동자당 소속으로 참전한다. 세 정당 중 제일 큰 세력이었던 통일사회당은 일부의 노동자와 일부의 프티부르주아지 즉 상점 주인, 공무원, 부유한 농민들 이루어진 정당이었다(HC 209). 오웰은 통일사회당의 노선을 이렇게 정리한다.

현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 .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내전을 사회 혁명으로 바꾸려는 자는 파시스트의 손에 돌아나는 자이며,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반역자이다.

At present nothing matters except winning the war; without victory in the war all else is meaningless. . . .At this stage we are not fighting for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we are fighting for parliamentar

17) 통합사회당이라고도 불린다. 1936년 봄 카탈로니아 지역 사회주의 정당들의 합병으로 만들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다. 대개 카탈로니아 공산당으로 불렸다(비버 20).

18) 통합노동자당이라고도 불린다. 안드레우 닌(Andreu Nin)과 호아킨 마우린(Joaquín Maurin)이 이끌었고 스탈린주의자들을 이 당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당이라고 불렀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그보다는 소련의 좌익 반대파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비버 20).

19) 아나르코 생디칼리즘(Syndicalism) 계열의 노동조합 조직이다(비버 21). 생디칼리즘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한 노동조합주의 운동을 말하며 선거나 정당 활동을 통한 정치적 투쟁을 거부하고 직접 행동과 총파업 등을 무기로 삼았다.

헛감의
사회주의 노선임.

y democracy. Whoever tries to turn the civil war into a social revolution is playing into the hands of the Fascists and is in effect, if not in intention, a traitor. (HC 209)

통일사회당

통일사회당의 핵심 전략은 전쟁 승리가 우선이며 혁명은 차후 과제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노선을 대변하면서 사회주의 혁명보다는 파시즘으로부터의 승리와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광범위한 연대를 지향하면서 중산층과 부유한 농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과격한 자산 몰수나 집산화²⁰⁾를 지양하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통일된 지휘 체계하에 제대로 훈련받고 완벽하게 체계화된 군대”(HC 209)를 갖추기 위해 무질서한 노동자 위원회 대신 강력한 중앙 권력을 추구했다. 통일사회당의 이런 기조는 당시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 채택한 인민전선²¹⁾ 국제여단²²⁾ 전술의 전형을 보여준다.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프롤레타리아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중산층, 민주적 부르주아와도 손을 잡는 광범위한 반파시즘 연합을 구성하고자 했다. 이들은 사회주의로 가기 전에 부르주아 민주.

20) 개인 소유의 농지를 집단, 협동조합 등으로 통합해 생산을 집단화하는 정책

21) 인민전선(Popular Front)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연합으로, 사회주의, 반파시즘, 반제국주의, 반전주의를 공동목표로 삼았으며 다양한 정당과 정치세력을 포함한다. 인민전선 이론은 코민테른 대회에서 불가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자 공산주의 혁명가인 게오르기 디미트리프(Georgi Dimitrov)가 처음 고안했으며 1930년대 프랑스, 스페인, 칠레 등에서 공산당 주도의 인민전선들이 집권하여 노동개혁 및 사회개혁을 도모하였다. 좌파의 역사에 있어 주요한 전술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인민전선 이론은 파시즘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야한다는 목표 아래 거대한 부르주아를 제외한 나머지 즉, 노동자, 농민, 진보적 부르주아를 포함하는 계급 동맹이었다. 다양한 계층의 동맹을 추구하다보니 생길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인민전선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트로츠키를 비롯한 혁명가들은 인민전선을 노동운동 내 다양한 세력을 공통의 적에 맞서 단결시키는 공동전선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계급을 자본가 계급의 일부에 종속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영한다.

22) 인민전선 국제여단은 1936년 스페인 내전 당시 코민테른이 조직한 국제의용군으로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를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초국적 연대의 상징이었다. 1936년 스페인에서는 인민전선이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았으나 프랑코 장군과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며 내전이 발발한다. 이에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 포르투갈이 프랑코를 지원했고, 반대편에서는 소련과 각국의 반파시즘 인사들이 국제여단을 조직하여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제여단은 코민테른의 주도 하에 프랑스 파리에서 모병이 시작되었고 1936년 9월부터 1938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스탈린은 1936년 10월 17일 호세 디아스에서 스페인의 파시스트 반란이 전 인류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코민테른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지원을 호소할 것을 지시했다.

진노회!

단계론. (레닌 - 혁명단계론)
 사회주의 혁명의 민주주의적 단계 인구 주권
 민주주의적 단계 민주주의적 단계
 사회 혁명!

주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때가 아니라 파시즘을 막아내고 민주 공화국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전쟁 수행 능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의 직접 통제나 분권화된 민병대같은 분산된 권력 양상보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② 통일노동자당

오웰이 소속되었던 통일노동자당²³⁾은 “정치적 의식을 가진 당원의 비율이 높아서 중요하게 대접받기는 했으나 수적으로 적고 카탈로니아 지역을 벗어나서는 영향력도 크지 않은 정당”(HC 210)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의 노선은 ‘전쟁에서 이겨야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노선과 달랐다(HC 209). 통일노동자당은 스탈린주의에 반대하여 나타난 것으로서 공산주의 정책의 변질에 반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출현한 반대와 공산주의 정당 중 하나였다(HC 210). 통일노동자당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공산주의자였으며 일부는 노동자-농민 블록의 구성원들이었다(HC 210). 오웰이 정리한 통일노동자당의 노선은 이렇다.

✓ 반대파
 민주 혁명

pt 인구 주권
 (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그 점은 파시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파시즘과 싸운다는 것은 한 가지 형태의 자본주의를 위하여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싸우자는 것인데, 첫 번째 형태의 자본주의는 언제라도 두 번째 형태의 자본주의로 변할 수 있다. . . . 노동자들이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면, 군대가 노동자들을 통제할 것이다. 전쟁과 혁명은 분리될 수 없다.

It is nonsense to talk of opposing Fascism by bourgeois "democracy".
 Bourgeois "democracy" is only another name for capitalism, and so is Fascism; to fight against Fascism on behalf of "democracy" is to fight

23) 오웰은 자신이 통일노동자당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스페인 민병대에 대한 노트」("Notes on the Spanish Militias", 1939)라는 에세이를 통해 밝히고 있다. 오웰은 이 글에서 처음 자신이 스페인에 간 이유는 신문 기사 등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한 의도였으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싸울 각오도 했다고 말한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군 경험이 비교적 적어 주저하던 상황이었다. 누군가 좌파 단체의 서류가 없으면 국경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던 탓에 오웰은 당시 개인적으로 약간의 인연이 있던 I.L.P(독립노동당, Independent Labour Party)에 전화를 걸어 추천서를 부탁한다. I.L.P와 P.O.U.M의 관계가 있던 터에 오웰은 P.O.U.M에 소속된 것이다. 오웰은 에세이에서 자신은 당시 통일사회당, 통일노동자당, 전국노동자연맹 등 좌파 집단들의 이념차에 대해 회피하게만 알고 있었으며 상황을 이해했다더라면 무정부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전국노동자연맹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한다(Orwell, "Notes").

무정부주의적 경향.
 ⇔ 자본주의
 (공산당)

against one form of capitalism on behalf of a second which is liable to turn into the first at any moment. . . .If the workers do not control the armed forces, the armed forces will control the workers. The war and the revolution are inseparable. (HC 210)

공산당
인민군에 사회주의
인민군을 주도 (우제)
통일노동자당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전쟁과 혁명을 분리할 수 없다는 혁명적 전쟁 수행론에 있다. 이들은 파시즘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야 한다고 여겼고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사회주의적 해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통일노동자당의 입장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통일노동자당은 의회 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일환일 뿐이며 언젠가 파시즘으로 변질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으로 채택한 중산층과의 연합인 인민전선에 대해서도 자기 기만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중앙집권화보다 노동자 위원회의 의용군 시스템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고수했다. ?

앞서 두 정당의 입장 정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차이점은 이렇다. 오웰이 소속된 통일노동자당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전쟁만큼 혁명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대신 이들이 전쟁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통일노동자당에게 있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대결은 서로 다른 두 형태의 자본주의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부르주아화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야 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한편 노동자들의 사회를 이루는 혁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노동자당의 주장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의 영구혁명론, 즉 전쟁과 혁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과 통일사회당의 전쟁 승리가 우선이며 혁명은 차후 과제라는 주장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통일사회당²⁴⁾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한편 혁명적 혼란을 일소

24) 오웰은 통일사회당의 중앙집권화 양상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스페인 내전에서 통일사회당이 실질적으로 거둔 성과에 대해 인정한다. 그는 자신이 가담한 통일노동자당의 일상적 정책이나 선전 등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웰이 보기에 당시 통일사회당을 이루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정책이 있었다고 말한다. 오웰이 보기에 당시 통일사회당을 이룬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얻고 수가 증가한 것은 그들이 혁명가들에게 반대하여 중간 계급에게 호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를 받던 부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갖고 마

해야 한다고 여긴다. 또 통일사회당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파시스트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주장한다. 후에 통일사회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자신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혁명 세력을 반혁명 분자 혹은 파시스트로 규정했다.

통일사회당이 혁명보다 전쟁 승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수호를 우선시한 것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을 넘어, 당시 소련의 외교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스탈린은 독일 파시즘의 팽창을 막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인민전선 구축이 절실했다. 만약 스페인에서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경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화국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한 코민테른은 의도적으로 혁명의 동력을 억제하고자 했다. 따라서 오웰이 목격한 내부의 분열은 국지적인 갈등이 아니라, 국제적 세력 균형이라는 거대 담론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억압하는 현상이었다. 오웰은 여기서 거대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혁명적 열망을 체제 유지의 도구로 소모시키는지를 목격하며 전체주의의 맹아를 발견하게 된다. 앤터니 비버(Antony Beevor)는 당시 코민테른 지도자들이 중단계급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인민전선의 전략은 단순히 집권에 이르는 수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84).

한편 무정부주의자들의 관점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면서 순수한 의미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주의 방향으로 움직여 갔다(HC 211). 그럼에도 통일노동자당과 마찬가지로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통제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HC 211). 전국노동자연맹-무정부주의 연합은 운송, 방직 공장 등 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산업 통제와 모든 형태의 중앙 집권화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부르주아지와 교회에 대한 비타협적 적대를 기조로 갖고 있었다(HC 211). 주로 무정부주의자들로 구성된 전국노동자연맹은 “모든 형태의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HC 211)에 반대하는 집단으로서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통일사

드리드를 훌륭하게 방어했으며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이 스페인의 영웅이 되기도 한다. 반면 통일노동자당의 혁명적 순수주의는 그 논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소 무익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한다. (HC 212-13)

공산주의는
여의 지능적.

회당과 이념적으로 매우 달랐다. 오웰은 이에 대해 철학적으로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는 양극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공산주의는 늘 중앙 집권과 효율을 강조하나 무정부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HC 211)이다. 상대적으로 전국노동자연맹-무정부주의 연합과 통일노동자당은 적절한 수준의 연대를 이루었다. 이는 후에 통일노동자당이 탄압을 당했을 때 대담하게도 그들을 옹호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무정부주의자들 뿐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HC 212).

상술한 세 정당 즉 통일사회당, 통일노동자당, 전국노동자연맹은 파시즘에 대항한다는 목표 아래 모인 공화파 측이었으나 통합될 수 없는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 오웰은 1937년 카탈로니아에서 파시즘 세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최초의 목적 외에 중요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한다(HC 222). 함께 파시즘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여겼던 좌익 세력들 내부가 분열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시가전에서 전국노동자연맹, 무정부주의자연합, 통일노동자 세력이 노동 계급이 사는 교외를 차지한 채 대치한다. 이들을 장악하려 한 무장 경찰력과 통일사회당은 도시의 중심부와 공공 건물을 차지한 채 대치한다. 시가전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발렌시아(Valencia) 정부가 카탈로니아를 직접 통제하고 의용군의 해체를 앞당기며 통일노동자당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낸다(HC 224). 오웰은 이에 대해 노동 계급이 전체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그 자리를 중앙 집권적 통제가 대신하게 된 시점이라고 쓴다(HC 224).

통일사회당
부유자!

당시 통일사회당은 통일노동자당을 비롯한 다른 공산주의 분파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작한다. 여기서 사용된 말이 유명한 “제 5열(The Fifth Column)²⁵⁾”이다. 엔터니 비버의 스페인 내전 23장은 공화파 전선의 분열을 다루면서 “제 5열”의 존재로 인해 증폭되어가는 좌파 정당 간의 불신과 적대를 다루고 있다. 이 장은 당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 5열로 간주되면서 겪었던 고초에 대해 설명한다.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호세 디아스(José Díaz)는 통일노동자당을 끝장내고 말겠다는 자신들의 전략을 더욱 밀어붙였다(비버 479). 그는 “제 5열의 정체가

25) 국가나 조직 내부에서 적을 위해 암약하며 파괴 활동이나 첩보 활동을 벌이는 내부의 적 또는 스파이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 이 표현은 1936년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 장군 휘하의 국민군 측 장군이었던 에밀리오 몰라(Emilio Mola)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러났다. 우리는 그들을 타도해야만 한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트로츠키 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혁명적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위장 파시스트들이 쓰는 수법이다”(비버 479)라고 주장한다. 즉 공산당의 관점에 따르면 자신을 트로츠키주의자로 규정하는 이들은 사실 제 5열이라 불리는 첩자들이며 위장 파시스트란 것이다. 이는 당시 공산당이 통일노동자당과 같은 다른 공산주의 분파에게 찍은 낙인이지만 이로 인해 통일노동자당의 인물들은 수감되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 오웰 역시 투옥될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탈출한다.

그럼에도 오웰은 당시 공화파 세력 내부의 갈등을 두고 “정당간 불화는 짜증나고 역겹기까지 했지만 내 눈에는 사소한 집안 싸움”(HC 216)으로 보였다고 한다.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 모인 공화파 세력이라는 점에서 공산당이나 다른 공산주의 분파들 모두가 최소한 반파시즘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오웰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에게 “실질적 정책”(HC 212)이 있었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처럼 보였다”(HC 212)고 말하기도 한다. 스페인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내부의 잔혹한 권력 역학에 대한 그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 프랑코 군대의 숨겨진 첩자로 둔갑하는 현실을 목격한 국제여단 병사들은 당혹감과 충격을 느꼈다. 앤터니 비버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여러 사건에 대한 당의 설명은 사실과 너무나 달라서 오직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믿을 수 있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국제여단 병사들은 공산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지성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그들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군수사국의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 고국에 도착해서도 대체로 공화군의 명분을 훼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지 오웰처럼 그것을 입 밖에 내려고 한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출판해줄 좌파 쪽 출판사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비버 545)

공화국 차이!
공산군

비버의 말은 당시 오웰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도 공화군의 명분을 훼손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파시즘에 맞서는 공화군 세력의 내부가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 사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상황을 우려하여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고국으로 돌아간 국제여단 병사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들은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면 프랑코를 위시한 파시스트 세력에게 유리한 자료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했다. 당시 공화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스크바의 노선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비버 545). 이는 파시즘 저지라는 대의를 위해 공산당의 숙청이라는 내부의 치부는 덮어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든다. 당시 좌파 출판업자 빅터 골란츠(Victor Gollancz)가 공화국 정부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라는 이유로 『카탈로니아 찬가』의 출판을 거절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웰에게 진정한 환멸과 분노를 느끼게 한 지점은 당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모두가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오보를 쏟아냈다는 사실이다. 제 5열이라는 낙인에 대한 설명에서 등장했다시피 당시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말은 위장 파시스트들이 쓰는 말이라는 공산당 측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오웰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을 트로츠키주의자로 부른 적은 없다며 통일노동자당의 일원들을 트로츠키주의자로 부르고 실상 파시스트로 규정한 것은 안전한 집 혹은 기껏해야 발렌시아의 신문사 사무실에 있던 후방의 기자들이었다고 말한다(HC 214-15). 당시 영국 내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오웰은 깊이 실망한다. 오웰은 이 전쟁의 우울한 결과 중 하나가 “좌익 언론도 우익 언론만큼이나 똑같이 거짓되고 부정직하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주었다는 점”(HC 215)이라고 말한다. 무책임한 보도들을 목격하고 진실의 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오웰의 경험 역시 진실이 희생된 스페인 내전의 한 부분이었다.

공산당
비버!

언론 보도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오웰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을 트로츠키주의자로 부른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통일노동자당의 일원들을 트로츠키주의자로 규정하고 실상 파시스트로 몰아간 것은 안전한 집 혹은 기껏해야 발렌시아의 신문사 사무실에 있던 후방의 기자들이었다고 말한다(HC 214-15).

공산주의 비판주의!

영국의 공산주의 계열 신문들이 우선 무정부주의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다음 통일노동자당을 비난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략이었다. 오웰은 이 전략의 계산된 논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영국의 공산주의 계열 신문들이 우선 무정부주의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다음에 통일노동자당을 비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해 들어본 영국인은 많지 않다. 반면 영어를 하는 모든 사람은 '무정부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몹서리를 친다. 일단 '무정부주의자들'이 관련되었다고 하면 적당한 편견이 조성된다. 그런 후에는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안전하다.

It is noticeable that in the English Communist papers the blame is put first upon the Anarchists and only later upon the POUM. There is a fairly obvious reason for this. Not everyone in England has heard of 'Trotskyism', whereas every English-speaking person shudders at the name of 'Anarchist'. Let it once be known that 'Anarchists' are implicated, and the right atmosphere of prejudice is established; after that the blame can safely be transferred to the 'Trotskyists'. (HC 234)

공산주의 매체들은 사실에 무지한 대중을 의식적으로 겨냥하고 있었으며 편견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HC 238). 오웰은 런던에서는 열정적인 지식인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사건 위에 감정적 상부구조를 만들고 팔았다고 지적한다(Ingle 1992, 72). 언론이 사실의 부재 위에 감정을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득인

외국의 반파시스트 매체에서는 사건의 한쪽 측면만 부각하여 바르셀로나 시가전을 “등 뒤에서 스페인 정부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무정부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일으킨 봉기”(HC 229)로 보도했다. 외국의 자본주의 신문들은 일반적으로 시가전을 무정부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렸다(HC 239).

공산주의 계열 매체에서는 통일노동자당을 스페인에서 트로츠키주의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이런 주장을 편다(HC 241). 오웰은 여기서 당시 발렌시아의 공산주의 신문이었던 『프렌테로호』(Frente Rojo)의 기사 논조를 가져온다. 득인

이 신문에 따르면 트로츠키주의는 정치적 원칙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본주의적 조직이며, 인민에 대항하여 범죄와 파업을 자행하는 파시스트 테러리스트 집단이다(HC 241). 더불어 통일노동자당을 “파시스트들과 동맹한 트로츠키주의 조직이며, 프랑코의 제 5열의 일부”(HC 241)라고 부른다. 오웰은 여기서 이 신문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증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인신공격과 전쟁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완벽한 무책임성”(HC 242)을 드러낸다고 비판한다. 공산주의 신문의 이러한 악의적 오보에 대해 앤터니 비버 역시 “조지 오웰이 속임수라고 부른 것의 두드러진 사례”(460)라는 판단을 내린다. 오웰은 통일노동자당에 대한 비방이 사실이라면 이 당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외국에서 그들에게 공감하여 도우러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천명의 의용군이 모두 파시스트에게 매수된 엄청난 규모의 첩자 집단이라는 말이라며 이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HC 242-243).

그러나 바르셀로나 시가전의 실제 정황은 달랐다. 정부가 무정부주의자들에게 무기를 내놓으라고 명령한 것이 발단이었는데, 무정부주의자들과 통일사회당의 공산주의자들 양쪽 모두 무기를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정부주의자들만 무기를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다(HC 229). 공산주의자들이 카탈로니아의 정치적 중심 세력으로서 무기를 반납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무정부주의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 공산주의자들 중 다수가 프랑코와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무정부주의자들을 숙청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기에, 무정부주의자들이 무기를 내놓는 것은 곧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했다(HC 229-30). 이러한 정황에 대해 영국 언론은 “아라곤 전선에서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비애국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이 무기를 내놓지 않는 바람에 보낼 수가 없었다”(HC 229)라고만 보도했다. 오웰은 이 보도가 독자들의 무지와 편견에 기대는 발언이기에 진실되지 않다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웰의 선택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오웰은 오보로 가득한 언론 대신 스페인에서 있었던 정황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카탈로니아 찬가』 부록에 담는다. 이 장은 오웰 자신의 판단으로도 “1~2년 뒤 독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말하자면 책을 망칠 게 뻔한”(Essays 6) 장이었다. 이 장은 신문 인용문 따위가 가득한 긴 장으로 “프랑코와 내통한다는 혐의를 받는 트로츠키주의자들

성명이 좋아지고 있어.

을 변호하는”(Essays 6) 내용이 길게 담겨있다. 한 ^{이해}평론가가 오웰에게 좋은 책이 될 뻔한 책을 보도물로 만들어버린 그런 장은 빠지는 게 나왔을 것이라고 조언했다(Essays 6). 그럼에도 오웰은 진실을 전달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언론에 의해 보도되지 않았던 진실을 담고 있기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골란츠의 거절과 평론가의 조언, 출판의 어려움을 모두 감수하면서도 오웰이 이 장을 지켜낸 것은, 침묵을 선택한 많은 이들과 그를 구별하는 지점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자유는 그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로서의 본질적 의무였던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웰이 자신이 말하는 진실을 진리나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웰은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를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인다. 오웰은 전쟁의 진실을 기록하는 부록을 시작하며 “바르셀로나 전투에 대하여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고 편견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HC 222)”라고 말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완벽하게 진실하지 않고 또 진실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힘들며, 모두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당파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게 된다. 혹시 앞에서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지금 말해 두겠다. 나의 당파적 태도, 사실에 대한 오류, 사건들의 한 귀퉁이만 보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왜곡을 조심하라. 또한 스페인 전쟁의 이 시기를 다룬 다른 책을 읽을 때에도 똑같이 조심하라.

I believe that on such an issue as this no one is or can be completely truthful. It is difficult to be certain about anything except what you have seen with your own eyes, an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everyone writes as a partisan. In case I have not said this somewhere earlier in the book I will say it now: beware of my partisanship, my mistakes of fact and the distortion inevitably caused by my having seen only one corner of events. And beware of exactly the same things when you read any other book on this period of the Spanish war. (HC 195)

오웰의 솔직한 고백은 서술상의 윤리의식을 드러내는데 자신이 경험한 일조차 당파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누구도 이러한 당파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보도와 관점의 필연적 한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오웰의 이런 경고는 그의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더불어 오웰이 자신의 당파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진실을 말하려 애썼다는 점은 학술적으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기록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이
의
이
분
명
확!

오웰에게 진실이란 외부의 완벽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강요된 거짓에 오염되지 않은 경험의 정직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대의 사건들을 사실대로 보도할 권리, 엄밀히 말하면 모든 관찰자가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무지, 편견, 자기기만, 일관성 등을 가지고 사실대로 보도할 권리다(326). 그는 기록자가 지닌 무지와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독자에게 판단의 자유를 위임하는 민주적 서술 방식을 취한다. 이는 권위주의적 주체들이 절대적 진리를 참칭하며 타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에 대한 문학적 저항이다. 결국 오웰의 진실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권력이 지우려 했던 개인의 목격담을 역사의 영역으로 되살려놓는 행위이다.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결국 자유의 문제를 수반한다. 오웰은 "언론의 자유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는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사실"(Essays 329)이라고 말한다. 오웰은 후에 이 논의를 『동물농장』의 서문으로 쓴 에세이 「스페인 전쟁을 돌아보며」("The Freedom of the Press", 1943)에서 지속한다.

로사 룩셈부르크가 말했듯이 자유란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이다. 같은 원리는 볼테르의 유명한 말에도 담겨 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혐오한다. 나는 네가 그 말을 할 권리를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서구 문명의 특징 중 하나였던 지적 자유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고 인쇄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며, 단지 그것이 공동체의 나머지 부분에 명백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말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서구의 사회주의 모두 최근까지 이 원칙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이런 말이 처음 등장!

But freedom, as Rosa Luxembourg [sic] said, is 'freedom for the other fellow'. The same principle is contained in the famous words of Voltaire: 'I detest what you say;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If the intellectual liberty which without a doubt has been one of the distinguishing marks of western civilisation means anything at all, it means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say and to print what he believes to be the truth, provided only that it does not harm the rest of the community in some quite unmistakable way. (Orwell, "Freedom")

오웰은 로사 룩셈부르크의 '자유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라는 말을 인용한다. 이는 동의하는 사람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쉽지만 틀렸다고 믿는 사람의 입을 막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험대라는 뜻이다. 볼테르의 자유에 대한 구절,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²⁶⁾라는 말 역시 지적 관용이 서구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임을 보여준다. 물론 오웰은 타인이나 공동체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이 진실이라 믿는 바를 인쇄하고 말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밀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오웰 역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오웰은 자유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말할 권리"(Orwell, "Freedom")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스페인에서의 경험은 오웰에게 환멸로 분노를 안겨주지만 오웰이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손을 떼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이 혁명이 실패할 것임을 예측하면서도 비판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참전 경험에 대한 최종적 후기는 깊은 인류애의 간직으로 표현된다.

26) 오웰이 언급한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표현은 볼테르의 직접 저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기 작가 에블린 홀(Evelyn Beatrice Hall)이 볼테르의 관용 정신을 요약한 것으로 흔히 볼테르의 말로 잘못 인용된다. 오웰이 이를 인용한 것은 표현의 출처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지적 관용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내 역할에 무력함을 느꼈던 이 전쟁은 나에게 대체로 나쁜 기억만을 남겼다. 그러나 전쟁이 없었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참사 - 어떻게 끝이 나건 스페인 전쟁은 살육과 신체적 고통은 별도로 하고라도 경악할 만한 참사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 를 잠깐 보았다고 해서 꼭 환멸과 냉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경험 전체를 통해 인간의 품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졌다.

This war, in which I played so ineffectual a part, has left me with memories that are mostly evil, and yet I do not wish that I had missed it. When you have had a glimpse of such a disaster as this and however it ends the Spanish war will turn out to have been an appalling disaster, quite apart from the slaughter and physical suffering - the result is not necessarily disillusionment and cynicism. Curiously enough the whole experience has left me with not less but more belief in the decency of human beings. (HC 195)

스페인 내전은 조지 오웰에게 정치적 환멸과 분노를 안겨준 참혹한 경험이었으나, 그것이 현실 도피나 비관주의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오웰은 혁명의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참전 후기에 나타나는 깊은 인류애를 통해 증명된다. 오웰은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이 전쟁이 자신에게 대체로 나쁜 기억만을 남겼음을 고백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인간의 품위(human decency)'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졌다고 역설한다.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목도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실존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험은 오웰의 자유를 향한 투쟁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오웰은 거리에 나온 전국노동자연맹 노동자들이 전투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득을 보았는지 손해를 보았는지를 질문한다. 앞서 상술한대로 오웰 역시 노동 계급이 서서히 전체 운동에 대한 권한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오웰은 이것이 국가 자본주의 혹은 사적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결국 노동계급의 혁명이라는 이상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그

? 폭등기동!
공화국개념!

문장!

이러한
인류애

래서 전쟁 발발 1년 뒤 카탈로니아 노동자들은 힘을 많이 잃은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오웰은 “싸워서 지는 것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는 법(HC 225)”이라고 말한다. 만약 노동자들이 어떤 도발에도 묵묵히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들은 애초부터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전황의 유불리를 떠나 투쟁 행위 자체가 지닌 가치에 주목한다. 싸워서 지는 것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다는 오웰의 통찰은 투쟁의 가치를 승패라는 결과론적 이분법으로 재단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이 지적하듯 오웰의 스페인 경험은 소련식 현실정치에 대한 혐오의 시작점인 동시에 인간 정신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 발현된 원점이라 할 수 있다(Eagleton, "Reach").

“싸워서 지는 것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는 법(HC 225)”이라는 말은 오웰 자신의 행위의 근거도 될 수 있다. 오웰은 스페인에서 자신의 역할에 무력함을 느꼈다고 말하지만 진실을 전하는 저술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진실이 오도되는 현실에 환멸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저술활동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애쓴다. 오웰은 당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진실을 알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에 장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한다. 그가 글쓰기의 예술성을 의식하면서도 진실을 전달하는 것에 우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을 어떻게 전도시키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복무했는지를 분석한다. 독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위험을 무릎쓰고 목격한 진실에 대한 기록적 가치를 우선시한 결과이다. 결국 오웰에게 있어 진실을 말할 자유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실재를 증언하려는 실천적 의무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천은 결과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오웰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에 맞서 싸우고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전달한 경험으로부터 인간의 도덕적 결단과 연대라는 가치를 확인했다.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보루가 진실을 말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비롯한 모든 억압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유를 추구한 오웰의 투쟁은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로 보자면 패배일 수 있으나 오웰 자신의 분투로서 가치를 가진다. 오웰은 이 경험으

관견

로부터 전체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며 이는 오웰이 『카탈로니아 찬가』를 출판한 1938년으로부터 11년이 지나 발표된 『1984』 안에 픽션의 형태로 담긴다. 오웰은 『1984』 집필 당시 “스페인과 그 이후 내가 목격한 사건들이 이 책의 토대”라고 밝힌 바 있다(Crick 1980, 312). 에세이 「스페인 전쟁을 돌아보며」("Looking Back on the Spanish War", 1943)에서 드러나는 역사 기록 조작에 대한 문제의식은 『1984』의 진리부(Ministry of Truth)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윈스턴 스미스(Winston Smith)가 진리부에서 역사를 조작하며 고통받는 모습은 『카탈로니아 찬가』 부록에서 언론의 왜곡에 분노하며 신문 스크랩을 제시하던 오웰 자신의 투영이다. 권력이 언어를 장악하고 기억을 말살하려 할 때 비록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2 더하기 2는 4”(NEF 93)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의 의지를 확인한 것 자체가 이미 전체주의에 대한 실존적 저항이다. 자유의 추구가 시도되는 것은 바로 그 실천 행위 자체에 내재한 가치를 오웰이 끝까지 놓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1984』: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설적 가치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는 192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새로운 파시즘(Fascism)²⁷⁾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토탈리타리오(Totalitario)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이후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조반니 아멘돌라(Giovanni Amendola)가 무솔리니와 그의 추종자들의 정치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토탈리타리스모’(Totalitarismo)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무솔리니는 ‘모든 것은 국가 안에, 국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하는 것도 없다’는 연설을 했는데 이는 국가 밖의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부정하며, 국가에 반

27)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 파시즘(Fascism)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체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생활을 통제하는 정치 체제를 가리키고 파시즘은 192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쳐 유럽에서 등장한 구체적인 역사적, 이념적 운동이다. 극단적 민족주의, 반공주의, 카리스마적 지도자, 폭력의 미학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이 파시즘 체제를 가졌다. 전체주의가 파시즘보다 상위 개념이며 파시즘은 전체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파시즘은 전체주의 체계의 핵심 소기로 각 (리버니)
- 40 -
↓

대하는 존재와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양성과 반대할 권리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의 원칙을 말해준다. 1920년대 이후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파시즘 및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상 즉, 나치즘(Nazism), 일본 군국주의(Japanese Militarism)가 전체주의라는 것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 오웰의 1949년작 『1984』 속 빅브라더(Big Brother) 체제는 국가 밖의 개인은 없고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특징으로 인해 가상의 전체주의 체제로 불린다. 빅브라더 체제는 오웰이 20세기의 실존했던 독재 정권의 편린들을 모아 조립하고 그 위에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오웰만의 관찰과 예언을 덧입혀 탄생한 전체주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현실을 참고하였고 어떤 부분에서 오웰의 관찰과 예언을 보여주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빅브라더 체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빅브라더 체제는 당시 나치(Nazi) 독일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단 한 명의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군림하는 지도자가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감시를 실천하며 이웃이나 가족 간 밀고를 장려하여 사회 전체를 거대한 감옥처럼 만든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입장이기에 이를 위해 역사와 언어를 왜곡하고 선전(propaganda)이 일상화되어 있다. 집단적 광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의 적을 만드는데 나치의 경우 유대인, 빅브라더의 경우 반역자인 엠마누엘 골드스타인(Emmanuel Goldstein)이 적이다. 나치 독일이라는 당대의 전체주의 체제 외에 소련의 스탈린(Stalin) 체제 역시 오웰이 참조한 현실이다. 로버트 콘퀘스트(Robert Conquest)는 작품 전반에서 “스탈린 정권을 매우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130)고 지적한다. 마이클 앤더슨(Michael C. Anderson)은 오웰이 소련을 부패한 권위주의적 과두정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국가 혹은 지배세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의 총체적 권력 체제에 나치와 스탈린 정권 모두가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오웰은 그 성공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의 장악에 완전히 성공한 과두정으로 빅브라더를 묘사하고 있다고 쓴 바 있다(Anderson, "Orwell"). 이 비평들은 빅브라더 정권의 과두정적 성격을 조명하면서 소수에 의한 권력 장악이 특징인 정치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웰은 당대의 국제 정치에 대한 진단을 참조하여 『1984』를 창조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오웰의 동시대인이었던 정치철학자 제임스 번햄(James Bu

파시즘? 나치즘

△트위스트

rnham)이 쓴 정치 에세이들에 한 국가 이상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될 경우 발
발하게 될 위험한 국제 정세에 대해 거론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Williams 200
7, 14). 오웰이 제임스 번햄에 대한 에세이를 쓴 만큼 오웰이 창조한 세계가 현
실 정치의 나치즘이나 스탈린 체제를 참조하는 동시에 당대 국제 정치에 대한
진단들을 반영했다는 사실도 알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1984』는 20세기의 현실
적 독재 체제였던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통합하고, 당대 최선 정치 이론이었던
번햄의 예측을 바탕으로 핵무기 기반의 국제 정세를 결합하여 창조된 세계다. 이
는 오웰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권력을 영구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전체주의
의 본질적 속성에 더불어 복수의 핵 강대국이 상호 공포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
는 위험한 국제 질서와 맞물린 구조로 형상화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빅브라
더 정권은 현실 정치의 폭력성과 국제적 긴장의 극단적 상황을 보여주는 체제이
다.

전체주의 국가로서 빅브라더 체제는 내부의 통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항구적
전쟁이라는 외부 활동을 이어간다. 윈스턴이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²⁸⁾는 이스트
아시아(Eastasia), 유라시아(Eurasia) 세 개의 초강대국(superstate) 중 하나이
다. 세 개로 분할된 초강대국들은 끊임없이 동맹과 적대 관계를 바꾸며 소모적인
전쟁을 지속한다. 윈스턴이 살고 있는 영국 런던은 오세아니아에 속하며 1950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혁명이 일어나 자본가 집단이 몰락하고 영국 사회주의(Engli
sh Socialism), 줄여서 잉속(Ingsoс)이라 불리는 지배 이데올로기 아래 살게 되
었다. 윈스턴은 후에 자신을 고문하게 될 오브라이언을 반체제 비밀결사 조직의
일원으로 오해하고 그와의 접촉을 통해 금서인 “과두정치적 집산주의의 이론과
실체(The Theory and Practice of Oligarchical Collectivism)”를 입수하게 된
다. 이 책은 몰락한 혁명 지도자 엠마누엘 골드스타인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50년대 혁명 이후 세계가 삼분된 과정과 각 국가의 통치 원리를 상세
히 다루고 있다. 당원들에게 엄격히 금지된 고도의 정치적 정보가 담겨 있어 발
견 즉시 압수되는 이 불온서적에는 특히 세 국가 간의 전쟁이 왜 멈추지 않고

28) 『1984』에서 전 세계는 세 개의 초강대국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로 분할되어 있으며 오세아니아라는 이름은 동명의 '태평양의 육지와 섬 지역을 아우르는 대륙'을 가리키는 실제하
는 지리학적 용어가 아닌 가상의 초강대국 이름이다.

지속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숨겨진 이유가 기술되어 있다.

세 개의 초대형 국가들은 상대국과 끊임없이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며 25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쟁은 20세기 초엽과 같은 전면적 파괴력을 지닌 형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된 한정된 목표를 가진 국지전의 양상을 띠지만 그 폭력성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NEF 215). 강간, 약탈, 유아 살육, 전인구의 노예화, 끓는 물에 삶아 죽이거나 산 채로 매장하는 등의 포로에 대한 보복 행위가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여지고 이런 짓이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에서 하게 되면 공을 세운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전쟁의 참상은 똑같다(NEF 215).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보통 전쟁은 실질적인 영토 확장의 야욕이나 자원 쟁탈, 혹은 이념적 대립이나 종교, 문화적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골드스타인의 저서에 의하면 초대형 국가들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동기에 의해 수행된다. “현대전의 근본 목적은 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계 제품을 소모하는 데 있다”(NEF 218)는 것이다. 세계의 부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물자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소모해야 하며, 그 유일한 수단이 전쟁이다(NEF 220). 결론적으로 빅브라더 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 물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를 끝없이 소모하고 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인위적으로 지속한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지적했듯, 이 체제에서 전쟁은 지속적인 무기 생산이라는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Fromm 262).

골드스타인의 책에 담긴 전쟁의 동기에 대한 설명은 날카롭고 예언적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1933-2023)는 근대의 전쟁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과 달리 오늘날의 전쟁 상태는 영구적이고 전 지구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39-53). 『1984』 속 항구적 전쟁 상태는 물질적 생산을 촉진하는 장으로 활용되므로 사실상 전쟁의 상대가 누구 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전쟁을 하는지 이스트아시아와 전쟁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불분명한 적의 문제 역시 “악(evil)이라는 것의 설정은 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이며 실제 적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한 네그리의 설명과

Negri

맞닿는다. 『1984』 속 세 개의 거대 국가가 지속하는 전쟁의 양상은 오웰이 자기 시대에 경험했던 세계 1, 2차 세계 대전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그 항구적 양상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전쟁에 대한 예언적 통찰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항구적 전쟁은 물자의 생산과 소모라는 경제적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생산만이 목적인 것도 아니다. 골드스타인의 책을 보면 전쟁이 가진 심리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전쟁은 당원들의 정서를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집시키는 기능을 한다.

차차 설명하겠지만 전쟁은 필요한 파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 최하급 당원이라 해도 유능하고 부지런하며 어느 한도 내에서 지성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그에 반해서 공포와 증오심, 찬탄과 승리의 도취감에 휘말려 들 수 있는 무지한 열광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결정적인 승리란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은 전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War, it will be seen, not only accomplishes the necessary destruction, but accomplishes it in a psychologically acceptable way. . . . Even the humblest Party member is expected to be competent, industrious and even intelligent within narrow limits, but it is also necessary that he should be a credulous and ignorant fanatic whose prevailing moods are fear, hatred, adulation and orgiastic triumph.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have the mentality appropriate to a state of war.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war is actually happening, and, since no decisive victory is possible,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war is going well or badly. All that is needed is that a state of war should exist. (N EF 221)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 상태의 유지를 위해 당은 당원들에게 많은 것을 강제한

다. 적에 대한 적개심을 유지해야 하고 반역자들을 규탄해야 하며 배급되는 물품들에 불평을 갖지 않아야 한다. 윈스턴이 기록 조작으로 전쟁 상황을 합리화하는 보도들을 생산하듯 다른 당원들 역시 자신의 직무에 맞춰 당의 전쟁 상황을 합리화하는 활동들을 담당한다. 당은 당원들에게 어느 한도 내에서 지성을 갖추고 있으나 동시에 공포와 증오심, 찬탄과 승리의 도취감에 휘말려 들 수 있는 무지한 열광의 태도를 요구한다. 여기서 지성이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

윈스턴의 동료 사임(Syme)은 초과된 지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윈스턴의 동료 사임은 신어(Newspeak) 작업에 투입된 언어학자이다. 신어 작업은 사고의 폭을 좁히기 위해 어휘의 개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good(좋은)'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부정의 접두사를 붙여 'ungood(안좋은)'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한다. 'bad(나쁜)'이라는 반대어를 없애고 'good(좋은)'의 모든 유사어도 없애버림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사고를 제한하기 위해 언어를 제한하는 기획을 말한다. 사임은 이 작업을 권위와 흥미로 수행하는 열성 당원이다(NEF 57-58). 그는 빅브라더의 강령을 신봉했고 빅 브라더를 열광적으로 존경했으며 승리를 기뻐하고 이단자를 증오한다는 면에서 정통이다(NEF 63).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이지적이고 분명히 관찰하고 명확히 이야기하는"(NEF 62) 지성을 지닌 지식인이다. 윈스턴은 사임이 증발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는다. 이런 예감을 윈스턴을 슬프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사임이 "자기를 경멸하고 약간은 싫어하며, 어떤 의심스런 짓을 하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가차없이 사상범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사실"(NEF 63)을 알면서도 그렇다. 사임은 "분별력, 초연함, 신중한 우둔함"(NEF 63)을 결여한 채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했고, 책을 너무 많이 읽었으며, 화가와 음악가들이 잘 드나드는 호두나무 카페(Chestnut Tree Café)²⁹⁾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래서 사임에게는 몇몇하지 못한 평판이 붙어

29) 호두나무 카페는 한때 당의 고위층이었으나 숙청 대상이 된 부적절한 인물들이 처형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기괴한 장소이자 비극적인 종착역이다. 윈스턴은 여기에서 과거 당의 원로였으나 반역자로 낙인찍히고 숙청의 과정을 거쳐 꺾이기만 남은 존스, 애런슨, 러더퍼트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 텔레스크린이 도처에서 이들을 감시하며 주문하지 않은 술을 계속 가져다준다. 빅브라더 정권이 반역자들을 살려두고 호두나무 카페에 앉아있게 허용하는 것은 반역자들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굴복했는지를 감시하는 최종 시험대로서 남겨두는 것이다. 더불어 반역자들의 초점없이 꺾이기같이 남겨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체제의 가공할 폭력을 전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 공산당이러도 기록이 기록으로 찍혔
모두의 역사를 가져옴! (예, 속해!)

다닌다(NEF 64). 결국 윈스턴의 예상대로 사임은 증발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양 모든 흔적이 말소된다.

사임이 증발하는 원인과 윈스턴이 고문과 개조의 공간인 101호실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은 결국 같다. 이들은 모두 당에서 요구하는 당원의 모습과 어긋난 존재였다. 심지어 상당히 열성적인 당원이었던 사임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며', '지나치게 똑똑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이 말하는 규격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한다. 당원은 옳은 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거나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졌거나 예술을 추구하거나 비판적이거나 탐구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임의 모습은 당원이 유지해야 하는 지성의 수준을 반증하는데 당의 기조에 찬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원의 지성이나 호기심은 당의 정해놓은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984』가 그리는 전체주의 사회는 규범적 행동의 통제 뿐 아니라 지성이나 호기심 등 개인의 내적 사유 전반에 있어 당이 원하는 척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³⁰⁾와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는 사회를 보여준다.

빅브라더가 활용하는 정신적 억압의 기제는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빅브라더는 신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언어 체계를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이는 인간의 사유를 축소하기 위해 정신적 도구인 언어를 개정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로 당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당을 위해 재편성하고 사용한다. 모두의 감정은 증오나 숭배로 통일되어야 하며 그 감정을 국유화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윈스턴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으로 이중사고(Doublethink)를 강제한다. 이중사고는 서로 모순되는 사실들을 포착하면서도 당이 옳다고 말하는 하나의 정보만을 수용하고 다른 생각을 차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빅브라더가 말하는 적이 어제까지 이스트아시아였다가 오늘 갑자기 유라시아가 되어 그간의 모든 기록들이 수정되더라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철저한 감시를 통해 당원들의 사고 자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목

자율성
(어제 기록까지
장악함!)

30) 윈스턴이 추구하는 자유는 'freedom'과 'liberty' 양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빅브라더로 불리는 전체주의 사회가 두 가지 의미의 자유를 모두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브라더 체제는 포괄적, 추상적, 본능적 자유를 의미하는 'freedom'을 허용하지 않는 한편, 사회적, 법적, 정치적 자유의 의미를 지닌 'liberty' 역시 억압한다.

표이며 그래서 당에 반하는 어떤 생각을 품는 김새를 보이면 사고범죄(Thought crime)라는 죄목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주인공 윈스턴은 이 이중사고를 습득하지 못하기에 비극이 예고된다. 윈스턴은 진리부(Ministry of Truth)에서 근무하는 외부당원으로 당의 변화된 기조에 맞춰 기존의 기록을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쟁의 상황이나 배급량에 관련하여 당이 말을 바꾸면 기록을 폐기하거나 수치를 교정하는 식으로 날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다. 이렇게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윈스턴은 직업적 날조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진실은 없앨 수 없다는 위험한 생각을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행위조차 엄청난 반역죄가 될 수 있음에도 윈스턴은 이를 떨쳐버리지 못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윈스턴의 의식은 이런 기억을 없애는 것으로 조작하려는 빅 브라더의 의지에 거부감을 갖는다. 그는 어제의 사실과 배치되는 오늘의 사실을 믿지 못하며 어디엔가 진실이 존재한다는 위험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

그 믿음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된다. 윈스턴은 우연히 혁명의 마지막 거물들이었던 존스(Jones), 애런슨(Aaronson), 러더퍼드(Rutherford) 세 명의 자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진 자료를 발견한다. “1970년대에 이르자 최초의 혁명 지도자들 중 남은 것은 빅브라더뿐”이었다는 내용에서 존스, 애런슨, 러더퍼드같은 숙청된 인물들과 빅브라더가 혁명의 동지였다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머지 동료들을 숙청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람들이 대숙청으로 제거되던 시점에도 윈스턴은 그들이 정말로 빅브라더가 주장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진 자료를 보자 윈스턴은 이것이 “파괴된 과거의 한 조각, 엉뚱한 단층에서 나타나 기존 지질학 이론을 무효화시키는 화석”(NEF 90)이라고 생각한다. 즉, 알려지기만 한다면 기존에 정설로 여겨지던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파급력이 있는 자료인 것이다. 하지만 빅브라더의 주장에 반대되는 이 자료를 보관하고 퍼트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기에 윈스턴은 침착한 얼굴을 유지한 채 자료를 파기한다. 이 사건 이후 윈스턴은 상념에 빠진다.

전에도 수없이 그랬듯, 윈스턴은 자기가 정신이상자는 아닐까 생각했다. 어

쩌면 정신이상자란 외톨이 이단자일 뿐인지도 모른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믿으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런 취급을 받았다. 그 혼자서만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고, 만일 그렇다면 그는 정신이상자였다. 하지만 자신이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해도 별로 염려가 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공포스러웠다.

어제?

He wondered, as he had many times wondered before, whether he himself was a lunatic. Perhaps a lunatic was simply a minority of one. At one time it had been a sign of madness to believe that the earth goes round the sun: today, to believe that the past is unalterable. He might be alone in holding that belief, and if alone, then a lunatic. But the thought of being a lunatic did not greatly trouble him: the horror was that he might also be wrong. (NEF 91)

윈스턴의 고독한 내적 갈등은 철학적 질문들을 던진다. 그는 정신병이 사실 의학적 질환이 아닌 통계적 소수성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다. 다수가 거짓을 믿는다면 진실을 말하는 한 명의 개인이 정신이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윈스턴은 자신이 미치광이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진실이 틀린 것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더 공포스러워한다. 이는 윈스턴이 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진실은 윈스턴에게 있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이다.

『1984』의 세계관에서 가장 섬뜩한 지점은 진실의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된다는 면이다. 이는 오웰이 전체주의 정부가 하는 거짓말보다는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더 신경 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the lies told by totalitarian governments as that the very idea of objective truth was threatened)(Seaton 162). 이 가상의 체제는 오웰의 스페인에서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오웰은 스페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아 나머지 창작 인생을 진실이라는 개념을 사회 담론의 구조에서 찢어낸 국가를 그리는 데 바쳤다. (So shaken had Orwell been by his experiences in Spain that he devoted the rest of his creative life to painting pictures of a state that had torn the conce

pt of truth from the fabric of social discourse (Ingle 2007, 733), 즉 진실이라는 기준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작품인 것이다. 윌리엄스는 오웰이 더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했다고 본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오웰은 “어떤 국가와 동맹에 속한 누구라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진실을 발견하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살아남지 못할 것”(Williams 2007, 13)으로 보았다.

잉글은 오웰이 『1984』의 제목을 『유럽의 마지막 인간』으로 할까 고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오웰이 윈스턴 스미스에게 부여한 역할과 지위가 바로 유럽의 마지막 인간이었기 때문이다(2007, 733). 『1984』에는 “‘자율적 사고의 파괴’에 특별한 강조”(Eckstein 18)가 있는데 이런 자율성의 파괴 후 남은 마지막 인간으로 윈스턴을 내세운 것이다. 이 사고의 파괴는 빅브라더라는 국가 체제에 의해 수행된다. 국가 자신은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을 억압하고, 따라서 그들이 현실의 본질과 국가의 행동, 혹은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Ingle 733). 오웰이 생각했던 다른 제목에 의하면 국가의 이 폭력에 대항하는 마지막 인간이 윈스턴이다.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유일한 가능한 제약은 외부 현실의 본질—오웰이 ‘객관적 진리’라고 부른 것—과 나아가 국가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도덕 행위자로서 행동하는 개인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처럼 보인다”(733) 즉 윈스턴은 국가가 정해준 도덕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리려 시도하는 유일한 혹은 마지막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인류가 쌓아온 독립적 판단력과 객관적 진리라는 유산을 혼자서 잃어온 최후의 보루이기에 마지막 인간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닐까봐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윈스턴의 의식 속에는 뚜렷한 연관성도 없이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여기서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자신을 고문할 오브라이언을 동지로 착각하는 장면에서 윈스턴의 비극이 예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윈스턴은 자신이 동지라고 인지한 오브라이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신념을 되새긴다.

당에서는 눈과 귀로 들어오는 증거를 거부하라고 했다. 이것은 그들이 내리

자율성
의 상실!
(현대
자기개념)

자율성
인간

는 최종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윈스턴은 자기 앞에 버티고 정렬한 거대한 세력을 상상하며 낙담했다. 당의 지식인 누구라도 토론에서 그를 쉽게 무너뜨릴 것이며, 그는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그들의 미묘한 주장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가 옳았다! 그들이 틀리고 그가 옳았다. 명백함도, 어리석음도, 진실도, 옹호받아 마땅했다. 자명한 이치는 진실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자! 견고한 세상은 존재하며, 그 세상의 법칙들은 변하지 않는다. 돌은 단단하고, 물은 축축하며, 받쳐지지 않는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

The Party told you to reject the evidence of your eyes and ears. It was their final, most essential command. His heart sank as he thought of the enormous power arrayed against him, the ease with which any Party intellectual would overthrow him in debate, the subtle arguments which he would not be able to understand, much less answer. And yet he was in the right! They were wrong and he was right. The obvious, the silly and the true had got to be defended. Truisms are true, hold on to that! The solid world exists, its laws do not change. Stones are hard, water is wet, objects unsupported fall towards the earth's centre. (NEF 92-93)

이 장면은 오웰이 생각하는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진실의 공존과 공평한 중요성을 설명한다. 윈스턴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관찰, 측정이 가능하며 맥락과 무관하게 성립하고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fact)을 의미한다. 윈스턴은 이 자명한 이치들을 진실이라고 부르는데 객관적 진실을 함의한다. 오웰의 비판을 고려할 때 객관적 실재를 부정하는 태도는 과학적 연구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데 사회, 정치, 역사, 과학에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판단이나 윤리적 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ose 2002).

그러나 오웰은 객관적 진실의 중요성만큼이나 주관적 진실을 옹호한다. 윈스턴에게는 자신의 주관적 진실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 오웰은 "객관적 진실의 개념을 지키는 과정에서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진실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

?
- 문장!

진실
실재
사실?

다”(Seaton 162). 이에 대해 케인(William Cain)은 진실이 저 밖에 있고 개인이 내부에서 느끼는 진실이 있으며 오웰에게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고 그들은 서로 긴장되고 완전한 정신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외부의 객관적 진실과 내면에서 느끼는 주관적 진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탱하며 공존하는 관계다.

이러한 두 진실의 공존은 윈스턴이 일기를 마무리하는 문장에서 집약된다. 그는 “자유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자유”(NEF 93)라고 쓴다. 이 문장은 자유가 단순히 신체적, 물리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동시에 객관적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말할 권리이자 자신이 내면에서 느끼고 사유한 바를 표현할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웰에게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진실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는 위계 관계가 아니라 모두 자유로운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치다. 이처럼 윈스턴의 저항이 “돌은 단단하다, 물은 젖는다”(NEF 93)같은 자명한 사실(truisms)을 붙잡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자유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를 지키려는 행위다. 이에 대해 클룬(Michael Clune)은 “바위의 단단함은 지금도 스탈린 시대와 마찬가지로 열정적 방어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명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오직 오웰의 소설 속에서만 윈스턴에게 최고의 가치와 권력을 가진다”(Clune 31)고 지적한다. 이 역설이 오웰의 통찰을 드러낸다. “바위의 단단함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명백한 것을 금지하는 세계에서만 끝없이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활동이 된다”(Clune 31)는 말처럼, 자명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계에서는 그 발화 행위 자체가 자유의 실천이자 척도가 된다. 자명한 것을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웰에게 자유로운 인간 존재가 가능해지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두 진실 모두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인 것이다.

『1984』 속 빅브라더(Big Brother) 체제는 항구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사유 전반을 통제하며 객관적 사실을 포함한 진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는 사유 전반에 대한 억압이라는 면에서 극단적 폭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폭력은 개인의 신체에도 적용되는데 윈스턴을 비롯한 외부당원에게만 해당된다. 거시적 통제가 전쟁을 통해 수행된다면, 미시적 통제는 개인의 신체와 성을

영구적

? (생각할 만함)

통해 완성된다. 주인공 윈스턴이 살고 있는 런던은 오세아니아³¹⁾의 수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오세아니아의 계급은 크게 당원과 프롤(the Proles)로 구성된다. 당원은 국가의 통치 기구인 빅브라더 당(the Party)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위에 따라 위로부터 내부 당원(the Inner Party members)과 외부 당원(the Outer Party members)으로 나뉜다. 전체 인구 중 당원은 내부당원과 외부당원 전체를 합해 15% 가량이며 나머지는 프롤레타리아를 연상시키는 이름인 프롤(무산자)로 불리는데 당원과 프롤들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하는 통치의 규범은 매우 다르다. 이를테면 무산자에게는 술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서 술 한잔의 희소가치가 높고 싸구려 술 한 잔을 위해서도 매춘하는 경우까지 있다. 당원에게는 일정량의 술이 허용되어 있으나 삶 전반에 있어 훨씬 더 엄격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 당원들은 국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일상적 검열을 받지만 프롤들은 국가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고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도 없다. 당원들은 소수면서 다수인 프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들을 누리지만 동시에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원들이다.

당원들을 향한 신체적 억압은 우선 집안에서도 끝 수 없는 텔레스크린(telescreen)이라는 화면장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화면을 통해 빅브라더로 불리는 당은 언제나 당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 강제로 참여하는 아침 체조 시간은 좋은 예를 보여준다.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강제화된 운동에 참여하는 윈스턴은 체조시간을 혐오하지만 그런 내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쓴다(NEF 36). 빅 브라더는 당원들의 신체가 규범을 내재화하고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이 되도록 매일의 체조를 통해 길들여간다.

텔레스크린을 통해 행사되는 권력은 미셸 푸코가 말한 규율권력(discipline)에 가깝다. 푸코는 주체의 신체 활동을 면밀히 통제하고 지속적인 복종을 강제하는 이 권력을 규율권력(discipline)이라 부르는데, 이는 주체를 개별화시키는 기술로서 특정한 주체를 만들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안현수 305). 규율체계는 규범에서 시작되었고, 그 규범에 따른 훈육의 결과로 주체의 정상성이 형성된다(안현수 303).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규율권력이 분할 기술, 활동 통제, 생성과 형성 과정, 역량 조합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31) 현재의 오세아니아와 동명이지만 가상의 초국가이다.

CCTV 생방송

이런게 아니겠어? 이거야 생방송...
반복적으로 관습을 뜻.

이런게 아니겠어? 생방송보다 좋아. 이 부분은 이후에 자세히 강쳐 보면.

신체를 특정 형태로 훈육시켜 유순한 신체를 만든다고 분석한다. 이는 계산된 강제성으로 기능하는 권력으로, 길들여진 몸을 창출하는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칭한다.

생명권력
신체
이론
여기서
다시
인간
생각
가능
가
있다

규율권력과 함께 행사되는 또 다른 권력 양상은 생명권력이다. 생명권력은 종으로서의 인간 관념을 기초로 하여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인 규제와 조절을 추구하는 방식이다(푸코 2015, 288). 개별 육체의 규율과 전체 인구의 조절이라는 두 축으로 작동하는 생명권력은 역설적으로 생명의 증진을 내세우면서도 극단적으로는 생명 파괴를 낳기도 한다. 보건 및 치안의 명목으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제거하고 인간을 과학적 지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그 예다. 『1984』에서 생명권력의 실천은 무엇보다 이상적인 몸의 기준을 통해 드러난다. 윈스턴은 당의 홍보 포스터들이 활력 넘치고 근육이 발달한 금발 남녀들로 가득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실상은 신체적으로 초라한 외양의 인간들만 당 아래서 번성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NEF 69). 추구되어야 하는 몸의 상태가 권력에 의해 제시되고 권장된다는 사실은, 어떤 신체는 바람직하고 다른 신체는 그렇지 않다는 구분에 입각한 생명권력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준다.

『1984』속 생명권력의 행사는 신체규범에만 있지 않다. 빅브라더 체제는 외부당원들의 성적 접촉을 통제한다. 당은 프롤들을 동물로 여겨 그들의 연애와 출산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당원들의 성적 문란은 절대적 금기 사항이다. 양성 모두의 완전한 금욕을 주창하는 ‘안티섹스청년연맹’(the Junior Anti-Sex League)이 있었고 후손은 모두 인공수정으로 낳아 공공기관에서 길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자유로운 성적 접촉에 대해 금기하며 성적 접촉은 부부간의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바람직한 신체를 제시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생명권력의 행사는 신체에 대한 정교한 억압을 보여주는데 섹슈얼리티가 “일종의 육체적 행위로서, 이는 규범적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감시 및 훈육 조치의 대상”(랩케 70)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섹슈얼리티는 육체에 대해 가해지는 규율, 즉 훈련, 훈육, 강화, 에너지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 결혼, 연령, 임신, 피임 등의 활동을 통해 인구조절의 모든 총괄적 결과를 지배한다. 섹슈얼리티는 생명권력의 두 가지 핵심축인 규율과 인구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요컨대 섹슈얼리티는 특권적 지위를 접하는데, 이는 그것이 신체라는 미시적 인 수준과 인구라는 거시적인 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섹슈얼리티는 “개인성의 흔적”으로 간주된다. 드러나는 행위 “이면”에 존재하고 말해진 단어 “아래” 존재하며, 사람들이 숨겨진 욕망과 성적인 동기를 탐색하는 꿈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섹슈얼리티는 “도덕과 책임의 기준을 고양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 경제적 개입. . . .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의 테마”가 된다. (램케 71)

섹슈얼리티가 적극적인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램케의 말처럼 섹슈얼리티가 특권적 지위¹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길들여져하는 개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숨겨진 욕망과 성적인 동기를 탐색하는 꿈 속에 존재하는 섹슈얼리티까지 통제되어야 하는 것은 통치성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알려준다. 즉 섹슈얼리티의 통제는 신체에 대한 통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를 유기체로 보는 전체주의 국가관이다.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국가를 유기체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억압을 정당화했으며 『1984』 속 빅브라더 체제 역시 같은 억압을 행사한다. 유기체주의 국가관을 처음 제창한 것은 스웨덴의 정치학자 요한 루돌프 쉘렌(Rudolf Kjellén)으로 그의 사상은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시기 동안 유기체주의 국가개념의 토대가 된다. 민족사회주의 국가관의 “반민주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은 인종주의적 토대를 장착”(램케 31)한다. “민족의 신체라는 은유는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이면서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차별의 근거를 이룬다. 민족사회주의의 생명권력 개념에는 구성적 긴장이 있는데 한편에는 생명이 숙명적 힘이자 신화적 기원의 장소라는 관념² 다른 한편에는 생물학적 현상을 적극적으로 변형,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램케 32). 『1984』 속 빅브라더 역시 외부당원의 신체와 프롤의 신체를 차별적으로 바라보며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통해 생물학적 현상을 국가가 관리하고자 한다.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를 보면 빅브라더가 극단적 억압을 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외부당원의 자유로운 연애가 발각되면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윈스턴과 줄리아는 위험한 방식으로 서로의 욕망에 충실해보기로 한다. 그들이 연애를 시작하기 전 윈스턴이 마주한 줄리아의 모습은 빅브라더가 요구하는 “깨끗한 정신”(NEF 12)을 지닌 열성당원의 모습이다. 당의 주적인 골드스타인을 향해 공동의 증오를 표현하는 시간인 2분 증오시간이 되었을 때 윈스턴은 노골적인 선동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반면 줄리아는 소리치며 텔레스크린에 나타난 골드스타인의 얼굴에 사진을 던지며 분노한다. 게다가 줄리아는 ‘안티섹스청년연맹’의 상징인 좁은 진홍색 띠까지 두르고 있다. 윈스턴은 줄리아가 “사상경찰의 앞잡이”(NEF 13)일지도 모른다고 경계한다. 동시에 윈스턴은 자유로운 연애가 금지된 체제 하에서 자연스러운 연애를 욕망한다. 윈스턴은 체제의 앞잡이처럼 보이는 줄리아를 “고무 끈봉으로 때려죽이고 싶다는 멋진 환상”(NEF 18)을 품었다가 자신이 왜 그녀를 미워하는지 확실히 깨닫는다. 윈스턴은 “그녀가 젊고 예쁘고 성에 냉담해서 미웠고, 그녀와 자고 싶은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미웠고, 팔로 휘감아 안아달라고 청하는 듯한 저 나긋나긋하고 매력적인 허리에 순결의 공격적인 상징인 혐오스러운 진홍색 허리띠가 감겨 있을 뿐이라서”(NEF 18) 줄리아를 미워한다.

이후 줄리아는 복도에서 일부러 넘어지는 방법으로 윈스턴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한다. 도와주려고 다가간 윈스턴을 향해 줄리아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작고 납작한 쪽지를 전달한다. 윈스턴은 쪽지 안에 “사랑해요”(NEF 124)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고 매우 놀란다. ‘안티섹스청년연맹’의 당원이자 거의 사상경찰의 앞잡이처럼 보였던 줄리아로부터 비밀스러운 사랑 고백을 받은 것이다.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본 그의 마음에는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솟구쳤고, 그러자 사소한 일에 위협을 무릎쓴다는 게 갑자기 어리석게 느껴진다. 둘의 밀회장면에서 줄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사실 난 그런 여자예요. 걸보기와는 다른 여자. 속임수에 능하죠. 스파이단엔 분대장이었고, 지금은 주에 사흘씩 저녁때 안티섹스청년연맹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들의 빌어먹을 헛소리를 온 런던에 붙이고 다니는 데 수많은 시간을 쓰죠. 행진할 때는 언제나 현수막 한쪽을 잡고 가고요. 언제나 즐거

워 보이는 척하고, 무슨 일이든 절대로 사양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료들과 함께 외치자는 게 내 생각이예요. 안전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죠.”

'Actually I am that sort of girl, to look at. I'm good at games. I was a troop-leader in the Spies. I do voluntary work three evenings a week for the Junior Anti-Sex League. Hours and hours I've spent pasting their bloody rot all over London. I always carry one end of a banner in the processions. I always look cheerful and I never shirk anything. Always yell with the crowd, that's what I say. It's the only way to be safe.' (NEF 140)

겉보기에 줄리아는 훨씬 더 열렬한 당원이다. 모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안티섹스청년연맹' 활동에도 열심이다. 2분 증오시간에도 그럴듯한 분노를 표현하며 열성당원이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한다. 그러나 당에서 금지한 연애들을 몰래 감행하며 내부당원을 “개돼지”라 부르는 등 그녀의 이면은 반역적인 행위들로 가득하다. 당에 대한 오랜 의구심을 품지만 당을 절대권력으로 간주하는 윈스턴과 달리 줄리아는 훨씬 더 가벼운 태도로 당을 대한다.

줄리아는 오웰이 창조한 여성 인물 중 성공적인 캐릭터일 뿐 아니라 오웰이 종종 받았던 비판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오웰은 여성혐오자³²⁾라는 비판 혹은 오해를 받았었다. 여성인물들을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고 부수적인 존재로만 다룬다는 비평들도 있다. 그러나 『1984』에서 줄리아는 윈스턴같은 지식인으로 그려지지 않지만 더 영리하고 대담하며 무엇보다 빅브라더라는 당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줄리아는 어떤 면에서 윈스턴보다 더욱 예리한 눈을 가졌으며 당의 선전에도 덜 영향을 받았다(NEF 176). “당의 엄숙주의에 담긴 속뜻”(NEF 152-53) 역시 정확하게 간파한다.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당원들의 성취 결핍이 히스테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며, 이

32) 오웰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크게 젠더, 성소수자, 인종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파타이(Daphne Patai, 1984)는 『1984』의 권력 승배가 남성적 성 역할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차사르(I. Császár, 2010)는 오웰의 근본적으로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시각을, 리(Sirui Li, 2024)는 줄리아 캐릭터를 통해 작품 내 여성 대상화와 성규범의 문제를 논한다. 한편 로즈(Jonathan Rose, 2004)는 『1984』를 게이 해방의 관점에서 재독해한다. 유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뉴싱어(John Newsinger, 2007)가 오웰이 반유대주의를 체계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홀로코스트를 독자적 사건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것이 당대 지식인들이 공유한 한계였음을 함께 제시한다.

라이히의 생각에 함!

히스테리가 전쟁에 대한 열정과 지도자 숭배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이 성적 금욕을 강제한다.

“섹스를 하면 기운이 소모되잖아. 그런 다음에는 기쁨에 취해 만사 될대로 되는 식이 되고. 당은 사람들이 그런 기분이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다들 늘 기운이 넘쳐나야 되는데 말이지. 이리저리 행진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들고 하는 그 모든 활동은 그냥 성적인 욕구불만의 결과라고. 사람들의 내면에 기쁨이 있다면 빅 브라더와 3개년 계획, 2분중오같은 그들의 온갖 망할 헛소리에 열광할 까닭이 어디 있겠어?”

“When you make love you're using up energy; and afterwards you feel happy and don't give a damn for anything. They can't bear you to feel like that. They want you to be bursting with energy all the time. All this marching up and down and cheering and waving flags is simply sex gone sour. If you're happy inside yourself, why should you get excited about Big Brother and the Three-Year Plans and the Two Minutes Hate and all the rest of their bloody rot?” (NEF 153)

줄리아가 간파하는 것은 빅브라더가 성을 통제하는 이유에 담긴 심리학적, 정치적 메커니즘이다. 빅브라더가 성을 억압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줄리아의 말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욕구불만과 긴장감을 국가를 향한 광적인 충성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독일의 정신분석가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는 현실 사회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감지하고 대중에게 관심을 돌려 성 욕망에 관한 사회적 연구를 지속한다. 그는 “권위주의적 가족과 성 억압이 대중의 성격 구조를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파시즘에 복종하게 만든다고 주장”(윤수중 112 재인용)하였다. 성적 억압이 빅브라더 혹은 파시즘같은 이데올로기에 헌신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줄리아의 관점은 라이히(Wilhelm Reich)와 닮았다. 이 원리에 따르면 당의 권력은 대중의 억압된 내면을 필요로 한다.

줄리아는 체제의 현실을 현실중심적 태도로 받아들인다. 줄리아가 보기에 ‘그들’, 즉 당은 쾌락을 금지하고 싫어하는데 그러므로 의심받지 않으면서 규칙을

왕정, 레각

최대한 잘 어기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줄리아는 '그들'이 사람들의 쾌락을 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들키지 않고 쾌락을 누리려 하는 것이나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NEF 203). 양쪽을 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적 질서처럼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된다. 줄리아는 당을 증오했고 그 감정을 가장 상스러운 말로 표현했지만 당에 대한 조직적 반란은 어떤 종류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그런 시도를 바보같은 것으로 간주한다(NEF 151). 줄리아의 현실적인 대책은 규정을 위반하되 동시에 살아남는 것이다(NEF 151). 윈스턴은 이런 줄리아의 태도에 대해 둘 사이의 상당한 나이차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혁명 이전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기억하는 윈스턴과 달리 혁명 이후에 태어난 줄리아와 같은 세대는 "당을 하늘처럼 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국에 반항하지 않되 토끼가 개를 피하듯 그들의 눈을 피하기만 하는"(NEF 151)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보다 공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윈스턴과 줄리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당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줄리아는 지식인적 성찰을 통해 저항에 이르는 윈스턴과 달리, 체제의 논리를 몸으로 체득한 채 일상적 실천의 차원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윈스턴과 줄리아의 연애 행각은 이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당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윈스턴과 줄리아는 위협을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따르는 위험한 길을 택한다. 그래서 이 행위는 단순한 성취 접착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당에 대한 일격이자 선전 포고가 된다. 윈스턴은 줄리아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생각한다.

옛날엔 남자가 여자의 몸을 보고 탐스럽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순수한 사랑이나 순수한 욕정을 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에 두려움과 증오가 섞여 있어서 어떤 감정도 순수하지 않았다. 그들의 포옹은 전투였고 절정은 승리였다. 그것은 당에 가한 일격이었다. 그것은 정치행위였다.

In the old days, he thought, a man looked at a girl's body and saw that it was desirable, and that was the end of the story. But you could

성정치
정치

not have pure love or pure lust nowadays. No emotion was pure, because everything was mixed up with fear and hatred. Their embrace had been a battle, the climax a victory. It was a blow struck against the Party. It was a political act. (NEF 145)

오웰이 묘사하듯 윈스턴과 줄리아의 포옹이 전투가 되고 절정이 승리가 되는 지점은 당이 규정한 자유의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에서 기인한다. 당에게 자유란 개인의 의지를 말살하고 전체의 부속품이 됨으로써 얻는 수동적 평온을 의미하지만 주인공들에게 자유란 오히려 당이 금기시하는 개인적 감정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투쟁이다. 윈스턴과 줄리아의 성관계가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당의 독점적 권력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사회에서 그들의 성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행위가 된다.

그러나 윈스턴과 줄리아의 신체와 성이 저항의 장이 된 것은 이내 발각으로 귀결된다. 윈스턴을 고문하는 오브라이언은 빅브라더 체제의 목표를 설명한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철저한 개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이 반역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빅브라더 권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우리는 권력의 사제야. 우리의 하느님은 권력이야. 하지만 지금 너에게 권력이란 그저 하나의 단어에 지나지 않아. 이제 너도 권력이 무엇인지 감을 좀 잡을 때가 됐어. 네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권력은 집합적이라는 거야. 개인은 개인이기를 그치는 한에서만 권력을 갖지. ‘자유는 예속’이라는 당의 슬로건이 있지. 그걸 전도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예속은 자유. 혼자인-자유로운-인간은 반드시 패배하기 마련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예외없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건 모든 실패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니까. 하지만 개인이 전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신분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 스스로 당과 하나가 되어 본인이 당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전능해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서 권력은 인간에 대한, 육신에 대한 - 무엇보다 정신에 대한 지배력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객관적 실재라고 부를 물질에 대한 지배력은 중요하지 않아.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은 이미 절

대적이거든.”³³⁾

'We are the priests of power,' he said. 'God is power. But at present power is only a word so far as you are concerned. It is time for you to gather some idea of what power means. The first thing you must realise is that power is collective. The individual only has power in so far as he ceases to be an individual. You know the Party slogan: "Freedom is Slavery." Has it ever occurred to you that it is reversible? Slavery is freedom. Alone free - the human being is always defeated. It must be so, because every human being is doomed to die, which is the greatest of all failures. But if he can make complete, utter submission, if he can escape from his identity, if he can merge himself in the Party so that he is the Party, then he is all-powerful and immortal. The second thing for you to realise is that power is power over human beings. Over the body but, above all, over the mind. Power over matter - external reality, as you would call it - is not important. Already our control over matter is absolute.' (NEF 303)

당이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이 규정하는 자유는 근대적 의미의 자기결정권이나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오히려 당은 개별적 자아를 지닌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소멸과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필연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로 재정의한다. 오브라이언의 논리에 따르면, 단독자로서의 개인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개별적 자유는 곧 죽음이라는 궁극적 실패에 예속되는 무력한 상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은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폐기하고 전체라는 유기체적 구조에 완전히 동화될 때, 즉 예속을 선택할 때 비로소 죽음을 초월한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이 전도된 자유의 개념은 권력이 인간의 외부가 아닌 정신적 내면을 지배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오브라이언의 말은 빅브라더라는 당이 추구하는 권력의 성격을 말해준다. 우선

33) 이 장면은 빅브라더의 권력론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오웰이 철학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라는 무지한 해석에 의문을 던지는 연구, 이를테면 오웰을 철학적 아웃사이더로 읽는 배리(Barry, Peter Brian)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 권력은 다른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를테면 당시 공산주의가 말하던 방식으로 부르주아의 수탈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를 위해 당이 권력을 위임받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권력의 양도는 루소의 사회계약설로부터 시작해 오래 이어져 온 권력 개념에 대한 설명이며 계약에 의한 권력의 위임을 의미한다. 그것이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개인의 권력을 양도받아 더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특정한 사회상의 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빅브라더가 말하는 권력은 수단으로 활용되는 권력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지배에 종속된다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패를 벗어날 수 있다. '혼자인-자유로운-인간'이며 필연적으로 지닌 유한하고 반드시 죽게 된다. 오브라이언은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 죽음이라는 실패 대신 영원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인간은 당과 하나가 됨으로써 '집합적'이 되고 '전능해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오웰이 묘사하는 당의 권력은 피지배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물리적 억압을 넘어 인간이 지닌 실존적 공포를 매개로 자발적인 자기 부정과 완전한 예속을 진정한 자유로 오인하도록 유도한다.

원스톤은 이에 어떻게 물질을 지배하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기후나 중력이나 질병, 고통, 죽음 등의 모든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인데 어떻게 물질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오브라이언은 단호하게 "우리는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물질을 지배하는 거야. 현실은 머릿속에 있거든. . . .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없어. . . . 너도 19세기의 자연법칙에 대한 생각은 지워버리는 게 좋아. 자연법칙은 우리가 만드니까."(NEF 303-04) 라고 말한다. 더불어 오브라이언이 강조하는 것은 관념에 대한 온전한 지배이다. 앞서 원스톤은 "견고한 세상은 존재하며, 그 세상의 법칙들은 변하지 않는다. 돌은 단단하고, 물은 축축하며, 받쳐지지 않는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라고 되뇌이며 이러한 물리적 사실들까지 당이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이 말하는 당의 지배는 더 진실보한 것으로서 물리적 사실을 포함한 물질에 대한 지배는 이미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인식을 거치지 않는 사실과 법칙은 없으므로 정신을 지배하면 물질은 당연히 지배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빅브라더가 말하는 정신과 관념에 대한 지배가 그토록 중요

자유주의?

하며 그 실현을 위해 당원들의 이중사고가 철저히 작동해야하는 것이다. 빅브라더가 말하는 잘못된 사실들은 과거를 지배하기 위한 서류 조작부터 '2 더하기 2는 5'라는 주장에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당원들이 이중사고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수용될 것이다.

원스톤은 이어서 우주 속에서 그들이 사는 세계는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하며 인간은 아주 작고 무력한 존재일 뿐인데, 어떻게 물리적 세계 전체가 인간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냐고 묻는다. 이에 오브라이언은 지구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고 일갈한다. 인간의 의식을 통하지 않는 지구의 역사란 없으므로 이 둘의 역사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브라이언의 일관된 주장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한다.

이어서 오브라이언은 빅브라더가 추구하는 세계의 상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전개한다. 우선 그는 원스톤에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력"(NEF 305)을 입증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원스톤이 "고통을 받게 하겠죠"(NEF 305)라고 답하자 오브라이언은 권력은 바로 고통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인 빅브라더의 사회는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상상한 어리석은 향락적 유포피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세상"(NEF 306)이며 구시대의 문명사회들이 내세웠던 사랑이나 정의에 기반한 사회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빅브라더의 세계는 고통, 냉혹함, 증오에 기반을 둔 사회를 추구한다. 그래서 공포와 분노, 승리감, 자기비하 외에 다른 감정은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NEF 306). 이를 위해 빅브라더는 "혁명 이전 시대로부터 살아남은 사고 습관"(NEF 306) 즉 부모와 자식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남녀 사이의 연결을 깨부수는데 전력을 다한다. 관념을 지배하기 위해 관습적 관념을 교정하는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원스톤이 경험하는 고문 장면은 단순한 서사적 클라이맥스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육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전유하고 처분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³⁴의 생명정치

34) 아감벤은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론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푸코는 근대 권력이 개인을 대상화하는 동시에 외부 통제권력에 묶어두는 주체화 과정(processes of

내세우

분쟁!

모장!

* 아감벤

총신주 반역?

한 이집트
세 생명
필요

주권권력 - 공동권력 (자유) 생체권력 → 20세기

이론과 긴밀히 조응한다. 아감벤은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 추방하는 주권 권력(sovereign power)의 폭력에 천착한다(Agamben 1998, 6). 아감벤에게 법과 폭력이 삶과 맺는 관계야말로 생명정치의 핵심 쟁점이 된다(Agamben 1998, 11).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틀은 빅브라더 체제의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빅브라더의 권력은 단순한 규율과 조절을 넘어 개인을 법적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 그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아감벤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고대 그리스의 두 가지 생명 개념, 즉 조에(zoe)와 비오스(bios)를 재소환하여 현대 생명정치의 구조를 분석한다. 조에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로서의 삶, 즉 살아 있음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지칭한다. 반면 비오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고유한 삶의 형식, 즉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자격 있는 삶을 의미한다(Agamben 1998, 1). 근대 주권권력은 이 두 생명을 구분함으로써, 특정 생명을 정치적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그로부터 배제하는 역설적 작동 방식을 취한다. 아감벤이 제시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형상은 이 역설을 가장 잘 보여준다. 호모 사케르는 법적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배제를 통해 주권권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그는 신성한 영역에 바쳐질 수도 없고 법적으로 살해할 수도 없지만, 사실상 누구에게나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살해될 수 있는 존재다. 법의 안과 밖을 동시에 점유하는 역설적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Agamben 1998, 8). 이러한 형상은 배제를 통해 포함하는 주권의 구조, 즉 예외를 통한 포함을 구현한다.

아감벤의 분석은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론과 긴밀히 연결된다.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Sovereign is he who decides on the exception)”라고 선언하며, 주권의 본질을 정상적인 법질서의 작동이 아

subjectivation)을 분석함으로써,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이 어떻게 신체를 훈육하고 조율하는지를 해명하였다. 나아가 푸코는 권력이 무수한 인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방식보다는 규정, 측정,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점차 사법제도가 의료, 행정 기관과 같은 조절 기능을 지닌 기관들의 연속체에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Foucault, 1976). 그러나 아감벤은 푸코의 분석이 20세기 대규모 전체주의 국가들이 펼친 정치학, 즉 근대 생명정치의 전형적 장소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한다. 푸코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규율권력의 기술이 생명권력과 결합하여 인구를 교정하고 조절하는 방식에 주목한다면, 아감벤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층위, 즉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 추방하는 주권 권력(sovereign power)을 논의한다.

생명정치
이론이
생체권력!

법적
포함!

항구적/영구적

나라 그 법질서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결단 능력에서 찾는다(Schmitt 5). 슈미트의 통찰에 따르면 정상 상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지만 예외는 모든 것을 증명한다. 주권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예외상태에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슈미트의 이 통찰을 수용하면서 예외상태가 오늘날 하나의 지속적 통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Agamben 2005, 2). 즉, 본래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조치로서 기능해야 할 예외상태가 영구적이고 일상적인 통치 기술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예외상태의 일상화가 일어나는 공간에서 법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지되며 그 결과 주권자의 별거벗은 폭력만이 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오웰의 오세아니아는 바로 이 항구적 예외상태의 공간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오세아니아의 빅브라더 체제는 형식적 법규범이 정지된 사회이며 오로지 주권자인 당(Party)의 자의적 폭력만이 실재한다. 오세아니아가 유지하는 항구적 전쟁 상태 역시 예외상태의 일상화를 구현하는 서사 장치로 기능한다. 전쟁이 언제나 계속된다는 사실은 오세아니아 내부의 예외상태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고착시키며 그 결과 국가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개인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호모 사케르의 공간을 창출한다.

윈스턴의 고문에 이르는 서사는 비오스에서 조에로의 전략이라는 생명정치적 과정을 정밀하게 재현한다. 외부당원으로서의 윈스턴은 당의 통치 공동체 안에 형식적으로 포함된 존재, 즉 비오스로서의 정치적 자격을 부여받은 주체였다. 그는 진리부(Ministry of Truth)에서 역사 기록을 조작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비록 억압적이지만 체제 안에 포섭된 정치적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사랑부(Ministry of Love)의 101호실로 끌려가 오브라이언의 고문을 받는 순간 윈스턴은 정치적 자격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순수한 생물학적 생존의 차원으로 환원된다. 이 순간 그의 육체는 아감벤이 말하는 조에, 즉 별거벗은 생명(bare life)이 된다. 고문 장면에서 윈스턴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은 살아남는 것, 즉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이다. 그의 정치적 신념, 줄리아에 대한 사랑, 당에 대한 저항 의식은 모두 육체적 생존 본능 앞에서 와해된다. 이는 체제가 개인에게서 비오스를 박탈함으로써 그를 처분 가능한 호모 사케르로 만드는 생명정치적 메커니즘의 극단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아니아에서 주권권력은 법의 내부에서 법을 통해

앞 페이지에서도
살아남는 것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정지시킴으로써 개인의 조예를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장악한다. 윈스턴의 고문당하는 육체는 그 장악의 물질적 증거이다.

이 고문이 어떤 경험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장 아메리(Jean Améry)의 증언은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나치에 의해 가혹한 고문을 겪은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아메리는 고문이 단순한 신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파괴한다고 지적한다(28). 타인이 자신의 신체에 가하는 극단적 폭력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세계가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곳이라는 근본적 전체 자체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아메리의 이 통찰은 윈스턴의 최종적 굴복, 즉 101호실에서 개심이 단순한 의지의 패배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극단적 폭력이 인간의 내면적 세계 자체를 해체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해준다. 윈스턴의 개심은 고문으로 망가진 인간 육체의 유한함과 나약함을 보여주는 슬픈 풍경이다.

윈스턴의 개심으로 마무리되기에 이 작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저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체제가 개인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결말은 전체주의의 압도적 승리처럼 읽히며, 저항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인상을 준다. 더욱이 윈스턴이 101호실에서 쥐에 대한 공포 앞에 줄리아를 배신하는 장면은 인간의 의지가 극한의 폭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결말을 단순한 패배로 읽는 것은 오웰이 그 패배를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 즉 체제가 동원해야 했던 수단의 성격과 규모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제시하는 역설적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브라이언은 빅브라더라는 당이 내세우는 권력 개념의 화신으로서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이론적 주장으로 무장한 채 윈스턴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 이에 맞서기에 윈스턴은 비교할 수 없이 취약하다. 그는 애초에 자기 자신이 혼자만의 신념을 유지하는 정신병자가 아닌가 생각해 왔을 정도로 자신의 반항적 사고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지녀왔다. 더구나 사랑부에 잡혀간 이후 지속된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폐함에 빠진 상태다. 그럼에도 윈스턴은 고문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도 오브라이언의 말이 옳지 않다는 신념을 버리지 못한 채 논쟁을 이어간다. 오브라이언이 빅브라더가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윈스턴은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 “공포와 증오와 잔인성 위에 문명을 세우는 건 불가능”(NEF 308)하다고 대답한다.

윈스턴은 자신의 몸에 연결된 고문 기계가 작동될까봐 두려웠음에도 오브라이언의 말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낀다.

“몰라요-뭐라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당신들은 실패할 거야. 무언가가 당신들을 무너뜨릴 거야. 삶이 당신들을 무너뜨릴 거야.”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삶을 지배하는걸, 윈스턴, 넌 우리 일에 격분하고 우리에게 반항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만들어. 인간은 무한히 변형될 수 있지.”

'I don't know - I don't care. Somehow you will fail. Something will defeat you. Life will defeat you.'

'We control life, Winston, at all its levels. You are imagining that there is something called human nature which will be outraged by what we do and will turn against us. But we create human nature. Men are infinitely malleable. (NEF 308-09)

윈스턴의 대답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수준의 저항이다. 또 윈스턴은 또 한번 진실을 내뱉는다. '삶이 당신들을 무너뜨릴 거야'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무한히 변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당의 전능함을 무력하게 만드는 진술이다. 즉 당보다 전능한 것이 있고 이것은 삶의 유한성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예정의 범칙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은 빅 브라더에 대한 노예라기보다는 무자비한 운명에 속박되어 있다”(Bounds "Orwell")고 할 수 있다. 즉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범칙으로 가진 인간은 유한성의 운명에 속박된 것이다. 오브라이언은 앞서 당과 하나가 됨으로써 죽음이라는 실패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이다. 윈스턴은 고문 현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지 못함으로써 당의 논리에 맞선다.

에리히 프롬은 『1984』의 가치가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독창적 기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 질문은 말하자면 인간이 자유, 존엄성, 성실, 사랑에의 갈망을 잊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는가? 다

자율성
- 당의
개성
강제

) 문제!

자유로운 인간 즉 자율적인 인간
자율성!

* 감비관 → 감비관. 당-주사. 앙세르.) 작자의 개인(개인)의 관에 문제. 앙세르의 앙세르가 아니다. 문장!

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인간임을 잊을 수 있는가? 혹은 인간의 본성을 이러한 근원적 인간 욕구들의 강탈에 대해 비인간적 사회를 인간적 사회로 변화시키는 시도를 통해 대항할 역동성을 갖고 있는가?(260)를 묻고 있다고 말한다. 오브라이언과 빅브라더는 당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무엇이든 진리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에 의거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고 당이 주장하는 진실만이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프롬은 오웰이 “인간이 타고난 본성 따위는 없다는 심리적 상대주의 같은 입장은 취하지 않는다”(261)³⁵⁾고 말한다. 결국 『1984』에서 오웰은 인간은 사랑과 정의와 진실과 연대성을 향한 치열한 열정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들이 제시하는 수단들 그 자체의 묘사를 통해 이러한 인간 정열의 힘과 치열성을 확인한다”(261). 프롬이 주목하는 것은 굴복 그 자체가 아니라 굴복을 달성하기 위해 체제가 동원해야 했던 수단의 성격과 규모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한히 변형 가능하고 자유나 진실에 대한 열망이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당은 윈스턴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토록 정교하고 가혹한 고문과 이념적 조작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01호실에서 쥐를 이용한 극한의 공포 조작에 이르기까지 체제가 윈스턴 한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 투입한 폭력의 극단성은 역설적으로 그 폭력이 맞아야 했던 저항의 강고함을 증명한다. 윈스턴은 마침내 굴복했지만, 그 굴복이 요구한 조건의 잔혹함 자체가 인간 내면에 깃든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지를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저항

이 역설은 윈스턴 자신의 의구심과도 연결된다. 윈스턴은 “당은 결국 2 더하기 2는 5라고 공표할 것이고, 누구나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당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한다.

결국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다.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지? 과거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알까? 과거와 객관적 세계라는 것이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면,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통제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35) 에리히 프롬의 글에서는 오웰, 헉슬리, 자미아틴 세 작가의 공통점으로 제시한다.

영혼에게 있어 개념은 등장
: 정해진 양이었다는 증거 ...

For, after all, how do we know that two and two make four? Or that the force of gravity works? Or that the past is unchangeable? If both the past and the external world exist only in the mind, and if the mind itself is controllable what then? (NEF 92)

그러나 윈스턴 자신의 이 의구심과는 달리, 그의 행위는 그 생각 자체가 통제될 수 없음을 반증했다. 빅브라더는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려 하지만, 당의 기획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영역이 존재한다. 필립 바운즈는 윈스턴이 반복적으로 꾸는 예지적 꿈을 분석하면서 이런 사건이야말로 당의 전능함에 균열을 내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주장한다(Bounds "Orwell"). 이 꿈은 윈스턴이 꿈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어둠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듣는 내용인데 반복되어 나타난다(29). 이 꿈은 정치적 어둠이 없는 공간이 다가오리라는 해석일 수도 있고 윈스턴이 101호실로 끌려가 밝은 빛 아래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다. 바운즈는 윈스턴의 꿈이 당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꿈을 꾸는 것은, 삶의 어떤 측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미리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윈스턴의 예지적 재능이 당의 교리에 그토록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ounds "Orwell"). 즉 미래에 대한 윈스턴의 꿈은 당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Orwell and the Paranormal). 오웰은 결국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정신 내부의 요새를 보여주며 개별적 사고가 사회적 사고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확신을 드러낸다(Craig L. Carr 98).

꿈과 같이 불가해한 영역에 대한 언급은 윈스턴과 줄리아의 밀회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만약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궁극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걸까?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다. 너 자신이 원한다 해도 너조차도 감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들은 살살이 발가벗겨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 너 자신에게도 그 작용이 신비할 따름인 너의 마음 깊은 곳은 난공불락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꿈이 상상 영역

해설

해설

꿈

예지

문장!

개인?

심리
마음
감정

But if the object was not to stay alive but to stay human, what difference did it ultimately make? They could not alter your feelings: for that matter you could not alter them yourself, even if you wanted to. They could lay bare in the utmost detail everything that you had done or said or thought; but the inner heart, whose workings were mysterious even to yourself, remained impregnable. (NEF 193)

“마음의 깊은 곳, 너 자신에게도 그 작용이 신비할 따름인 너의 마음 깊은 곳은 난공불락으로 남아있을 것이다”(NEF 193)라는 서술은 인간의 마음이 자신에게도 불가해한 것이며 그 깊은 곳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연인으로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은 육체적 고통의 극한에서 소멸되고 빅브라더를 향한 사랑으로 대체된다. 배신을 고백하는 이들은 종국에 자신들이 버리게 될 어떤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적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 인식적 한계는 역설적으로 반대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의 행위를 배신으로 규정하는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에게도 난공불락의 불가해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을 내어주었다고 결론지은 상황 역시 주체가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암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육체적 나약함으로 굴복하게 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배신이라는 오명을 붙이지만, 굴복을 배신으로 인식하는 그 의식 자체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가 여전히 내면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배신이라는 판단은 배신하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그 전제 안에 저항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윈스턴의 자유를 향한 투쟁은 비록 결과적으로 실패로 귀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인간이 자신의 정신과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시도의 흔적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윈스턴의 배신은 인간의 육체적 나약함을 드러내는 절망적인 결말인 동시에 그가 인식하지 못한 채 수행한 것, 즉 끝내 완전히 소거될 수 없는 저항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배신=연인
그것!

이 생각의 근간
* 저항은 더욱 강렬해진
내면 투쟁대상(저항대상)과
가호지능 역설

“강연장 (영애네)
십이십음! : 이것은
더 강연장이
왜 양자?

『1984』의 마지막 장면은 오브라이언의 철저한 고문 끝에 개심한 윈스턴이 자신의 오랜 저항을 참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끝난다. 아메리카 지적했듯 고문이 세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파괴한다면, 윈스턴의 개심은 바로 그 파괴의 최종적 귀결이다. 고문은 인간의 의지를 꺾기 위해 먼저 그 의지가 뿌리내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암울한 결말 덕분에 이 작품의 디스토피아적 색채가 더 뚜렷해지며 이단적 저항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암울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윈스턴의 저항에 관한 작품의 서술은 주인공의 패배를 단정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긴다. 정신과 감정의 상태를 지키려는 노력을 인간적인 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이유로 일어난 변화를 배신이라 칭하는 고백 역시 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행위를 배신으로 규정하는 윈스턴의 모습은 고문에 굴복한 나약한 육체 외에 인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한다.

윈스턴의 개심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 때문에 치른 대가이지만, 이러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를 향한 투쟁은 그 성패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로 남는다. 『1984』에서는 개인의 내적 사고와 감정조차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에 자유로운 주관성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오웰은 일기장을 사고, 금지된 사랑을 나누며, 진실을 말하려 하는 모든 순간이라는 작은 틈새 공간을 통해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결국 개인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기며 독자에게 권력과 주체성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촉구한다. 설령 실패로 귀결되더라도, 자유를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이미 인간 주체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즉, 윈스턴의 저항은 체제에 의해 완전히 소거되지 않는 인간적 의지의 흔적으로서 의미를 획득하며, 전체주의적 권력 속에서도 인간의 내적 자유와 저항을 향한 의지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끝내 굴복했지만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시도와 내면의 저항은 인간이 단순한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카탈로니아 찬가』와 『1984』는 하나의 논지로 수렴된다.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서 “싸워서 지는 것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다”(HC 197)는 실존적 확신을 얻었고 윈스턴은 그 확신의 픽션적 구

?
정신적 저항

?
본질!

(정신 내부 사고) 차이?

저항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강하게!

내 저항은 바로 여기서 강하게 있음!

아무리 더 변덕의 동인자가?

현이다. 카탈로니아의 노동자들이 패배를 예감하면서도 거리로 나온 것처럼, 윈스턴은 결과를 알면서도 일기를 쓰고 사랑을 나누고 진실을 말했다. 오웰이 언론의 왜곡에 분노하면서도 독자의 외면을 무릅쓰고 11장을 삭제하지 않은 것처럼 윈스턴은 고문의 공포를 알면서도 오브라이언 앞에서 “삶이 당신들을 무너뜨릴 것”(NEF 308-09)이라고 말했다. 『카탈로니아 찬가』와 『1984』 두 작품에서 자유란 결과로 획득되는 상태가 아니라 억압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행위 안에서 순간순간 수행되는 것이다. 이때 그 행위의 가치는 외부로부터 부여되거나 결과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내재한다. 진실을 말하고자 한 실천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지니며 전체주의가 그 행위를 끝내 꺾는다 해도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다. 오웰이 두 작품을 통해 말하는 자유의 가치는 바로 그 지울 수 없음, 즉 억압이 결코 박탈할 수 없는 실천 행위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있다.

또 이상으로!

실천의 힘

강조함.

실천의 힘 이상으로.

3. 도그마 너머의 자유:

조지 오웰의 자유주의적 정치 윤리

정치적 정체성.

(1) 토리 무정부주의자,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

오웰은 스페인 내전 이전 스스로를 '토리 무정부주의자(Tory Anarchist)'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표방하였다. 오웰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기 규정에 주목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제시해 왔는데 주목할 점은 이 비평들이 하나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정치 관념들의 결합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이다. 오웰은 "자유 사상의 보수당 급진주의자"(Rodden), "독특한 좌파 보수주의의 혼합"(Colls), "영국 급진주의의 진정한 목소리였지만, 성격상 보수주의자"(Jönsson "George"), "도덕적, 문화적 보수주의(Wilkin 207)"를 지닌 채 "급진적 자유주의"(Wilkin 197)를 동시에 품은 복합적 인물로 불린다. 로든(John Rodden)은 오웰에 대해 "지성에 있어서는 급진적이고 기질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며 "급진적 시크³⁶)에 대한 통렬한 경멸을 지닌 도덕적 급진주의자로서 사회주의 정치와 보수적 에토스를 동시에 받아들인"(2007, 271) 인물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웰이 일관된 정치 이념의 체계보다는 권위와 집단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영국적 문화 전통 안에서의 반체제적 면모를 본질적 특성으로 지녔다는 평가가 제기된다(Wilkin 212). "오웰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동시대인은 거의 없었다"(Rossi 90)는 지적 역시 그의 정치적 자기 규정이 내포하는 모순과 긴장의 독특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종합하면 오웰에게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지향이 혼재하며 그를 정치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예외 없이 대립적인 정치 규정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오웰을 규정하는 비평적 언어들 이 보수와 급진, 전통과 저항이라는 대립항의 결합이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취한다

36) 급진주의를 세련된 유행처럼 소비하는 태도를 비꼬는 표현.

1) 토리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 - 자유적 주제!

좌파 운동의 대안 라디칼리즘 강조!

는 점이다. 로즈(Jonathan Rose)가 오웰을 “영국 사회의 역설적인 관찰자이자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모순적인 인물”(29)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같은 반복은 오웰의 사유 내부에 이질적 요소들을 하나로 매개하는 어떤 통일적 축의 존재를 상정하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평의 언어로부터 오웰 자신의 자기 규정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오웰이 스스로를 토리 무정부주의자 및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명명하였을 때 이는 이념적 일관성의 부재를 의미한다기보다 특정 이념의 교조화를 거부하는 비판적 자기 위치 설정의 수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비평가들이 포착한 오웰의 모순과 그 자신의 자기 규정에 내포된 역설이 궁극적으로 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수렴은 선언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오웰이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이에서 실제로 갈등했을 때 어떤 원칙에 따라 판단했는가를 살펴볼 때 비로소 논증이 될 것이다. 오웰의 정치 사상은 좌와 우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기보다 개인의 자유를 기준으로 각 이념을 재판정하는 비대칭적 비판의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은 이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결정적 순간마다 오웰이 일관되게 자유주의적 원칙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하에서는 토리 무정부주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따라가면서 자유주의자 오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오웰이 스스로를 토리 무정부주의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선배 작가 스위프트에 대한 비평적 작업에서 비롯된다. 오웰은 「정치 대 문학: 『걸리버 여행기』에 대하여」("Politics vs. Literature: An Examination of Gulliver's Travels", 1946)에서 스위프트를 ‘토리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르며, 그가 “귀족주의적 사회관을 견지하는 동시에 귀족주의가 타락한 경멸스러운 것임을 분명히 인정”(Essays 380)했다고 서술한다. 즉 기존 질서와 전통에 대한 보수적 애착을 지니면서도 그 타락에 맞서 “부자와 권력자에게 통렬한 비난”을 퍼붓는 급진적 충동이 스위프트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웰이 그 비전과 천재성을 숭배하면서도 “정상적인 의미의 지혜를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Essays 386)고 평한 스위프트에 대한 이 묘사는 스위프트에 대한 비평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후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 1946)에서 오웰이 동일한 용어로 자신을 지

자유주의로 수렴 X
 위쪽에서 논의 재평가 필요

한단 X
 이 구조 문제 있음

구정복가
 이념간의
 자유주의자
 를 향한
 함!
 고집병 -

칭하며 스위프트에 대한 묘사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접적 고백이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 용어가 지닌 표면적 모순은 그것을 구성하는 두 항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토리(Tory)'가 왕실, 교회, 국가 제도 등 기존 권위를 수호하는 전통주의적 가치를 표상하는 반면 '무정부주의(Anarchism)'는 국가 자체를 억압의 도구로 간주하고 일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정치적 태도를 의미한다. 오웰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정부주의는 늘 자유와 평등을 강조"(HC 211)하는 데 반해 토리는 권위와 전통을 중시한다. 바로 이 대립 때문에 토리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역설적이며 "조지 오웰이 일종의 역설이었다는 말은 흔한 관찰"(87)이라고 주장한 존 로시(Rossi)나 『오웰의 역설』(The Paradox of George Orwell, 1986)을 쓴 리처드 부히스(Richard Joseph Voorhees) 같은 비평가들에게 중요한 분석적 증거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용어를 이념적 혼란의 표지로 읽기보다 오웰이 중시한 가치들에 대한 주장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토리 무정부주의는 특정 이데올로기 체계의 표방이 아니라 오웰 자신이 중시한 가치들을 압축한 윤리적 자기 위치 설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용어 안에는 두 가지 핵심적 가치 지향이 내재해 있다. 하나는 영국적 전통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 및 관료제에 대한 강한 불신이다. 전자가 '토리'의 계기를 이룬다면 후자는 '무정부주의'의 계기를 구성한다. 오웰에게 이 두 계기는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품위(common decency)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권력 집중에 저항한다는 단일한 윤리적 명제 아래 수렴된다. 오웰이 "전통적 도덕 기준에 대한 헌신"(Seaton 161)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르주아적 도덕을 거부하는 좌파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달리 전통적 도덕 기준에 대한 오웰의 헌신은 착취를 종식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대량 학살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Seaton 161).

이러한 관점에서 토리 무정부주의는 오웰의 자유주의적 정치 윤리와 내밀한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수호하는 것을 핵심 명제로 삼는다면 오웰의 토리 무정부주의 역시 전

무정부주의!

모순

참조점 (앞에서)
준거점

오웰이
이 시대에
있다면,
자유주의자?
* 자본주의자

(자유
주의자)

현대 자본주의

(연적) - 74 -
국가 폭력
인간 (→ 자의적)

당시의 자유주의 논쟁이
다르지 않었는가?

권력, 양심, 중립 / 사회권도.

권력, 권위.

동과 공동체라는 구체적인 삶의 토대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권위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을 공유한다. 오웰에게 토리적 감수성은 반동적 회고주의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조건에 대한 관심이었으며 무정부주의적 충동은 그 조건을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본능적 거부였다. 이 두 계기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토리 무정부주의라는 오웰의 첫 번째 정치적 자기규정은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중심축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정치 윤리의 초기 형태로 독해될 수 있다.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에서 “1936년 이후 내가 쓴 모든 진지한 작품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내가 이해한 방식의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위한 것들”(Essays 5)이라고 밝힌다. 이 선언은 오웰의 정치적 정체성을 단순히 사회주의자로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는 특정한 사회주의 이해와의 연결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가 이해한 방식의'라는 단서는 오웰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통상적인 사회주의의 정의와 온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스스로 암시하는 표현으로 그의 사회주의 이해가 처음부터 교조적 이념 수용이 아닌 자기 고유의 가치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웰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명확히 선언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36년 스페인 내전 참전이었다. 그가 스페인으로 향한 것은 처음에는 신문 기사를 써볼까 하는 동기에서였으나, 카탈로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의용군에 입대한다. 그 결단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그가 목격한 카탈로니아의 광경이 있었다. 오웰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은 도시에 들어가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회고하며 이 광경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고 서술한다(HC 3). 부유한 계급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듯 보였고, 부르주아의 옷차림 대신 모두가 노동자처럼 소박하게 입고 있었다. 그가 카탈로니아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기계의 톱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동하려고 노력”(HC 4)하는 모습이였다. 오웰에게 카탈로니아의 평등주의는 단순한 경제 체제의 대안이 아니라, 계급적 위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개인이 비로소 인간다운 품위를 회복하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이었다. 바로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의용군 입대를 결

이) 인위적 사회주의

(오웰의) 추상적! 이 본능적!

특히 이!

(오웰의) 민주주의 / 자본주의 / 사회주의 / 인간주의
 (오웰의) 자본주의 / 사회주의 / 인간주의 * / 오웰의 민주주의

심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훼손한 인간의 품위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웰의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토리 무정부주의와의 단절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는 스페인 내전을 계기로 민주적 사회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선언하였지만, 오히려 후일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토리 무정부주의 안에 이미 내재해 있던 세 가지 문제의식, 즉 전통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 자유와 평등에 대한 민주적 상상, 그리고 권력과 체도에 대한 불신을 새로운 정치 언어로 확장, 재구성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오웰에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탐욕으로부터 영국의 전통적 미덕인 '공동의 품위'(common decency)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이는 보수적 기질과 혁명적 열망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였다.

(민주주의) ;
 (개념 등)
 (민주주의) ;
 (개념 등)
 (민주주의) ;
 (개념 등)

이 점에서 오웰의 민주적 사회주의에는 처음부터 자유주의적 성격이 내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로든(Rodden)에 따르면 오웰은 자본주의와 시장 자유주의가 장기적으로 실패할 운명이며 어떤 형태의 경제적 집단주의가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지향한 사회주의는 국가 주도의 집단주의나 당 이념의 전일적 지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오웰에게 사회주의의 가치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에만 있지 않았으며 그 실현의 방법과 형식, 즉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는지의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이는 오웰의 사회주의 이해가 계급 해방의 이념적 언어보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오웰의 정치 사상은 통념적인 좌, 우의 대립 구도로는 포착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근본 준거로 삼아 보수적 어휘와 급진적 어휘를 동시에 재배열한 자유주의적 정치 윤리로 이해될 때 비로소 그 일관성이 드러난다.

민주 개념이
 자유 평등
 ; 자유주의
 부족해?

오웰의 글들은 사회주의의 원칙들³⁷⁾에 대한 동의를 드러낸다. 오웰은 자신의

37)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는 마르크스(Karl Marx)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무너진 뒤 사회주의라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산주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한 이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이행 단계로 이해되었다. 사회주의를 관통하는 세 가지 중심 원칙에는 첫째, 공장, 토지, 자본처럼 부를 창출하는 도구를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사회나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산 수단의 공적 소유 개념이 있다. 두 번째로 사회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는 계급 차이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문제로 본만큼 무한 경쟁하는 시장 경제 대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주의 인식 ✓

에세이 「사자와 유니콘」 ("The Lion and the Unicorn: Socialism and the English Genius", 1941)를 통해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유화"라고 설명(Essays 160)하고 "토지, 광산, 철도, 은행 및 주요 산업의 국유화"(Essays 175)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당의 국유화 목표를 공개적으로 지지"(Percy "Orwell")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오웰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자유, 평등, 박애와 연대"로 규정(White 73)한 만큼 사회주의의 두 번째 원칙에 동의한다.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드러내는 작품이었다. 오웰은 사회주의적 이상이 권력 집단에 의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며 민주적, 참여적 사회주의가 아닌 독재적 사회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정말로 지향해야 할 민주적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주의의 세 번째 원칙은 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념인데 오웰은 이것을 사회가 도달해야 할 당연한 목표로 상정한다. 오웰은 "사회주의가 하나의 세계 체제로 제대로 적용되기만 한다면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우리 모두 누구나 공평한 몫의 일을 하고 공평한 몫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힘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RWP 159)이라고 말했다. 즉, 서로가 협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대안적 체제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웰의 글들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하여 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부인

평등사회의 비유!
(민주, 참여, 독재)

그러나 오웰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체계적 단계를 따른 이론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해 파괴된 공동의 인간적 품위를 회복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빈부 격차와 착취를 생생하게 기술하면서, 사회주의가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공평한 몫을 나누어 일하며, 공평한 몫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그가 바라는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전통적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적 제도와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틀 안에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강령

계획적인 경제를 선호한다. 이를 협력과 계획 개념이라 부른다.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은 오웰이 자신의 저술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옹호한 가치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자본주의 사상과
 자본주의의 방식
 이 아니냐) ← *
 → 부평등 제거하려
 권력 양분
 권력 집중! 착취를 장려
 주장!

그러진다. 즉, 오웰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포기하는 대가로 평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통제원칙을 사회주의적 평등과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사회주의는 공유화, 국유화, 분배의 권한 등에 있어 국가의 더 큰 권력을 요구한다. 여기서 사회철학 및 정치학이 다루는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인 국가와 개인의 변증법적 관계가 등장한다. 국가와 개인의 원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유, 인권, 사익 추구, 자율성 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하는 존재인데 이는 국가의 원리인 질서 유지, 공공선, 안전, 사회적 통합 등의 원리와 부딪힌다.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공유화, 국가의 경제 계획,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는 만큼, 그 내부에는 국가 권력의 확대라는 문제의식이 동반된다. 이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 그리고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오웰의 사상은 깊은 내적 긴장에 직면한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유주의적 기질을 지닌 오웰에게, 국가 권력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 권력이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사회주의 = 국가 권력 확대
 (이런 상이한
 가치관끼리!
 (전대만은
 권력 확대!)

개인 - 국가 사이
 긴장 관계

* 국가 사면과
 반대 방향
 이 같!

여기서 오웰이 역설적인 정치적 자기 규정의 원인과 효과에 대해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비평을 통해 탐색해 볼 수 있다. 윌리엄스는 “오웰 작품의 총체적 효과는 역설의 효과”(Williams 1960, 305)라고 말하며 이 역설의 근원은 오웰이 “망명자”였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308). 망명자란 윌리엄스에 말에 따르면 “안정된 생활 방식이나 신앙을 빼앗기거나, 혹은 물려받은 것을 거부하고, 즉흥적인 생활의 땅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데서 가치를 찾는 사람”(308)이다. 이 위치는 날카로운 비판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결함을 낳는다. 망명자는 어떤 결사도 의심하며, 타협을 두려워하는 만큼 자신의 개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부정하게 된다. 결사에 대한 의심은 타협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310). 망명자는 어떤 집단적 연대에 합류하는 순간 자신이 그 집단의 논리에 포획될 것을 직감하며 그 포획이 곧 배반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다(310). 그러나 이 예민함은 동시에 역설적인 무능력을 낳는다.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지만 개성이란 고립 속에서 스스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

망명자
 → 개성

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사회적 실재를 얻기 때문이다. 결국 망명자는 자신을 엮어낼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줄 유일한 통로마저 스스로 봉쇄하게 된다. 따라서 윌리엄스는 “망명자가 자유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기묘하게 모호한 위치”(310)에 서게 된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되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라 불릴 수 있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조건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이기 때문”(310)이다.

이 조건은 오웰의 사회주의 이해 방식을 설명해준다. 윌리엄스는 오웰의 사회주의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망명자의 원칙이 되었다고 본다(310). 오웰은 사회주의 자체보다 자신을 엮어낼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더 맹렬히 공격했고, 자유의 부정에 맞선 그의 비판은 강력했지만 자유의 긍정적 근거를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자유의 조건이 필연적으로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망명자의 위치에서는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윌리엄스가 “망명의 파산”이라 부른 상태, 즉 헌신과 비헌신 사이에서 자신을 분열시키는 교착이 발생한다(310-311). 윌리엄스는 동시에 오웰의 역설이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조건 아래 성실한 인간이 도달하는 구조적 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는 오웰을 비판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가 인간적으로 용감하고, 관대하며, 솔직하고, 선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의 작품 전체의 효과인 패러독스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의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13)라고 말한다. 윌리엄스의 비판은 오웰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역사적 조건의 구조적 한계를 정직하게 기술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망명자적 조건이야말로, 오웰이 어떤 이념적 공동체에도 포획되지 않은 채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에 더 순수하게 의존할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하다. 오웰이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진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진동에는 일관된 방향이 있었다. 이념적 갈등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웰은 어느 쪽 이념에도 포획되지 않은 채 개인의 자유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 망명자의 조건이 그를 어떤 공동체적 원칙과도 결합하지 못하게 했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오웰로 하여금 이념의 교조화를 거부하고 자유주의적 원칙에 더 순수하게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오웰의 역설은 따라서 해소되지 않은 모순이 아니라, 자유

망명자적 조건
(개인의 자유적 조건)

보수주의(은자영주의)
사회주의

등화!

주의



주의라는 축을 중심으로 보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비판적으로 재판정하는 비대칭적 구조의 표현으로 읽혀야 한다. 그렇다면 망명자의 위치에 놓인 오웰은 어떤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려 했는가. 윌리엄스가 지적했듯 자유의 조건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이며, 개인의 권리는 그것을 보장하는 공동체적 기반 없이는 공허해진다. 오웰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급적 연대나 이념적 공동체 대신, 보다 구체적이고 정서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매개를 찾았다. 오웰이 주목한 것은 바로 애국심이었다.

오웰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매개로 애국심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웰은 애국심을 개인과 사회를 잇는 연결 조직의 일부로 해석하며 이는 개인에게 정체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충성심, 감정, 느낌, 가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로 구성된다(Lutman 154). 또한 이는 “애국심이 중산층과 노동계급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Rossi, Rodden 7)라고 이야기되듯 “집단적 행동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Clarke 88).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드러난다. 오웰이 애국심을 중요시했던 것은 애국심에 의해 개인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정체성의 특징은 단지 국가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동일시뿐 아니라 또한 이 아이디어에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동시적 동일시를 포함하고 그로 인해 가능해지는 협력의 유형을 결정한다(Clarke 88). 즉 애국심은 개인을 사회와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애국심에 대한 오웰의 자세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에세이 「민족주의 비망록」("Notes on Nationalism", 1945)이다. 오웰은 여기서 민족주의(nationalism)와 애국주의(patriotism)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분한다. 그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자신을 단일한 나라 또는 다른 집단과 동일시하되, 그것을 선악을 초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습성”(Essays 180)으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애국주의는 “특정 지역과 특정 생활양식에 대한 애착이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되 남들에게 강요한 마음은 없는 것”(Essays 180)을 말한다. 오웰은 애국심을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이들이 가진 소속감이자 자기 삶에 대한 애착같은 긍정적 태도로 설명한다. 오웰이 말하는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 오

광범위한
의의

국가 정체성
국인

애국주의/애국심

애 개념이
계속 나르게 되지?

애국주의

이국적인/애국심

웰이 자의적 구분에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유사해 보이며 둘 간의 차이는 자유주의적 관용의 유무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오웰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이라는 구분을 통해 좋은 공동체 의식과 나쁜 공동체 의식을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구분을 에티엔 발리바르 역시 시도한다. 발리바르는 그의 저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에서 “항상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는 다시 말하면 “국가 혹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경향을 가진 민족주의와 굴복시키고 파괴하는 경향을 가진 민족주의”의 구분이라고 말한다(발리바르 111). 발리바르는 또 “다른 민족주의를 용인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똑같은 역사적 전망 속에 포함시키는 민족주의와 다른 민족주의를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민족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민족주의의 내적 분할은 ‘조국을 위해 죽는 것’에서 ‘조국을 위해 죽이는 것’으로의 이행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며 또한 분할하기가 어렵다”(발리바르 111).

내 생각에 민족주의 개념 자체에 이러한 딜레마를 형식적으로 재기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없다. (이 재기입은 이론의 편에서는 철거되었다고 해도 실천에 의해 재입장된다.) 그러나 이 딜레마의 재기입은 특히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잘 보인다. (발리바르 111)

발리바르는 이러한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의 구분 자체가 자유주의적 전통이라고 말한다. 발리바르는 자유주의 역사가에게 민족주의에 관한 주요한 문제38)가 결국 언제부터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로 이행했는가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 같은 공동체 의식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중요함을 설명한다. 이는 오웰의 민족주의와 애국심 구분 역시 자유주의적 사고에 일부

이국적인?

38) 이에 대해 발리바르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한스 콘(Hans Kohn)을 참조하는데 18세기의 ‘보편주의적’ 혁명과 19세기의 ‘로마주의’ 사이의 ‘협간에서’ 이러한 이행이 일어나며 먼저 독일에서, 이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20세기에는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발리바르 111)

애국주의;

비판하에 권고, 심약해이

애국주의
감히 버림.
... 취미 퇴행!

라는 점을 알려준다.

개념적 정교함에 한계가 있더라도 오웰이 애국심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단순한 향수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실 정치의 문제와 연결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오웰이 이 전통적 가치를 단순한 향수의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실 정치의 문제와 연결한 데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 오웰이 애국심을 강조한 것은 그가 우려했던 파시즘이라는 전 세계적 재앙에 대해 맞설 무기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오웰은 자신의 에세이 「사자와 유니콘」 ("The Lion and the Unicorn" 1941)에서 애국심이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파시즘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주의가 성공하려면 소련으로 대표되는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전통과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애국심은 국가 승배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연대가 만나는 매개로 기능한다. 이 지점에서 오웰의 애국심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평등을 연결하는 가교적 가치로 자리 잡는다.

파시즘
=나치즘
=인종차별주의
=초강력
'애국주의'

*
공민국가
↓
인위적
(국민국)

다른 다른
총의이
있는것은
연결?

1930년대와 40년대 “대다수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던 영국 급진주의자들” 사이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비웃을 거리”였고 애국심³⁹⁾에 대한 폄하가 일반적이었다(Rossi 87). 오웰의 에세이 「좌든 우든 내 조국」 ("My Country Right or Left", 1940)에도 애국심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데 오웰은 당시 좌파 지식인들이 애국심을 부르주아의 유물이라며 부정적으로 볼 때, 오웰은 오히려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건강한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대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폄하하고 애국심을 무시한 데 반해, 오웰은 다른 논리를 펼 것이다. 비들(Gordon Beadle)은 오웰의 보수적 가치인 애국심, 전통과 무정부주의적 성향인 권위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는 모순적 조합이 그를 당대 좌파 지식인들과 차별화시켰다고 말한다.

왜 애국심?
이론
1930년대
적화시대?

애국심에 대한 오웰의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기질과 연결된다. 하나는 오웰이 토리 무정부주의자로서 전통적 가치를 존중했기에 이 가치를 조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오웰이 애국심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한글로 쓰는
분노!!

!!
국가?

39) 이안 윌리엄스(Ian Williams)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역사는 오웰의 편을 들어준 듯하다”(102)는 평은 오웰의 애국심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애국심은 자랑스러운

비/34?

연결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데 있다. 오웰은 사상이나 이념 혹은 사회와 국가적 목적의 중요성과 현실 가능성에 개인의 역할을 중시했다. 개인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이념적 주장들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파시즘에 맞서자는 이념적 주장이 있다 해도 개인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주장의 타당성은 구현되지 않는다. 애국심^{이든} 다른 것이든 개인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매개가 필요하다. 개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은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웰에게 항상 중요한 가치로서 개인의 자유와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이란 구체성이 사라진 위에서 나타나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구호는 오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김명환 150). 그래서 오웰의 사상적 뿌리에 사상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Eckstein "1984")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질은 오웰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이후에도 그의 사유 구조 안에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오웰의 정치적 자기 규정은 토리 무정부주의자를 거쳐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전환되지만 그 자신을 자유주의자로 규정한 적은 없다. 그러나 평자들은 오웰의 사상 중심에 자유주의적 가치가 일관되게 자리함을 지적한다. 메이어스(Jeffrey Meyers)에 따르면 조지 우드콕과 버트런드 러셀이 모두 오웰을 "19세기 자유주의자"(246, 300)라고 부르는 사례를 언급한다. 이는 오웰이 중시한 가치들이 19세기 자유주의⁴⁰⁾의 핵심가치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워너(Warner J.)는 오웰이 중시한 사생활에 대한 존중 즉 한자람이 공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의 영역을 가진다는 생각이나 오웰이 중시한 개인의 표현 및 판단의 자유 등이 오웰과 자유주의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말한다(53).

흥미로운 것은 이 자유주의적 지향이 사실 오웰이 초기에 자신을 규정했던 토리 무정부주의와도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윌킨은 토리 무정부주의를 정리하면서 토리 무정부주의가 특정한 정치 이념이라기보다는 영국 문화 전통 속에서 나타난 보수적이면서 도덕적, 문화적 비판의 태도이자 실천을 가리킨다고

40) 한편 오웰이 말한 자유주의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현대 자유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워너(Julian Warner)는 오웰이 자유주의의 유형을 구분하며 현대 자유주의보다 19세기 자유주의와 급진주의를 강하게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병역? ;

개명사체 개인 X

대중에서 개인!

특이한 것 지닌 개인

광안, 자라 공/사

공적은 내내주 구분가능한 사유!

↓ 자유주의의 연관이 아닌

광안, 사체 지향성

문장!

이게 맞음! 사기꾼들!

지향/기질 개념 변경 도입! - 83 -

윌킨의 개성, 애정 부가 부록의 가 보니까? 개성 맞음 맞!

자본이 아니라 무관한 상상력, 이 장

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입증하고 나더라도 그 '부르주아적' 자유없는 창작 능력이 말라 죽는다는 심리적 사실이 여전히 남는다. Any Marxist can demonstrate with the greatest of ease that 'bourgeois' liberty of thought is an illusion. But when he has finished his demonstration there remains the psychological fact that without this 'bourgeois' liberty the creative powers wither away. (Essays 124)

심리적 사실이라는 용어는 오웰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즉, 이것은 합리적이고 견고한 사실이 아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사실처럼 작용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사실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작가라는 개인에게는 창작 능력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자유주의적 자유가 필연적 진리라기보다는 창의성과 진정성의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심리적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오웰이 자유주의를 단순한 이론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술가, 지성인의 현실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소설은 아주 프로테스탄트적 문학 형태이며,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며, 자율적인 개인의 생산물"(Essays 125)이라고 말하며, 예술적 자유가 개인의 자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이러한 지적 태도는 오웰의 작가 정체성과 자유주의적 가치를 강하게 결합한다. 그는 평생 정치적 글쓰기에 헌신했지만 그 글쓰기의 핵심을 선전(propaganda)이 아니라 도그마에 매몰되지 않는 예술가의 정체성에서 찾는다(Cain 79). 이는 토리 무정부주의자가 가진 권력과 이념의 교조에 대한 불신이 예술과 사유의 자유로 구체화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오웰의 사상은 무정부주의와 윤리적 사회주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면서 하나의 독특한 구성물을 형성한다. 여기에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오웰의 보수성이 있는데) 보수주의적 요소까지 더해져 그의 사상은 보수주의, 무정부주의, 윤리적 사회주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의 사각형 안의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각각의 요소들은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서로 배타적인 사상일 수 있지만 오웰이 지닌 각각의 요소는 모두 오웰에 의해 약간씩 굴절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조화를 찾으려는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부분 중 선

오웰이
분명히 한
이(의)로
서도 볼 수 있
는
것이다!
참이심. 정말로
예외. 자성인
현실적, 개인
이것 자유
무정부주의
알려지지
않고
기쁨, 가치
등에 대해
활.

개인적 사회(국가)

긴장(조화)

(개인사상, 가치사상)
기/사상, 국가의 지배
특이성에 근거한
개인적(대중, 대중)
의 구성

500만 여명의 보일러 파는 다른 직업일!

오웰은 후자의 개인성을 평생 추구해 나갔음. 개인

자유주의 개인성
① 보편적 전인적 해방
② 다양한 정형적 해방
등이 다 개인성

행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주의임을 지적해야 한다. (김명환 150).

오

오웰이 보수주의는 과거의 전통과 풍습 등의 오래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며 급격한 혁명이 파괴하는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무정부주의는 권력의 집중과 관료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말하며 국가나 조직이 개인의 사유와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윤리적 사회주의는 공정함과 정의라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말하며 거창한 구호보다 개인이 실천하는 예의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집단주의적 사회주의는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경제적 평등과 최소한의 사회적 연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굶주림이나 착취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토대를 말한다. 오웰의 사상적 사각형이라는 독특한 구성물은 이념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현실의 실천을 연결한다. 그런데 이 사각형을 구성하는 네 요소가 서로 긴장하면서도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중심점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각각의 요소들을 관통하며 오웰의 사상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지향.

개인주의? 없애줘야.

자유주의 개인성?

윤리적 사회주의
자유주의적

민주적 사회주의

비밀
자유주의
구체?
생존(전)을 위하여!

현대. 인격/민주주의

버나드 크릭(Bernard Crick)은 오웰을 가리켜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지닌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두 이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 긴장 속에 자신의 사상적 위치를 구축했다고 평가하였다(Crick 1980). 즉 오웰은 사회주의의 경제적 목표를 수용하면서도 그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들, 곧 개인의 자유, 권력에 대한 불신, 언어와 진실의 정직성이 훼손되는 순간 사회주의 자체를 적으로 규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웰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를 현실 속에서 보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논쟁!

민주주의적 가치 아님이?

당시에는 자유주의 통배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질 즉 표현의 자유, 사생활,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도 반드시 개인의 구체적 삶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은 오웰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이후로도 그의 사유를 일관되게 지배했다. 오웰이 당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집단의 구호와 실천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모두 전체주의라는 하나의 틀로 꿰뚫어 보았는데, 이는 당대 좌파 지식인들이 소련의 침략을 묵

? 가질 수 있겠어?

이념적인 이념에서 가치관을 - 86 - 안한 개념들을 포함시키면 자유주의라고 함!

개인의 자유 주장?
개인주의?

윌?
개성 있는 흐름
대중의 흐름

나치즘의
개성?
개성 있는
아닌가?
나치즘의
개성 있는
한 것인가!

개인주의?

인하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대중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두 체제의 본질적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토리적 보수성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결합에서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오웰의 사상은 "안정된 기성의 좌-우 대립적 정치 구조를 벗어나" (배윤기 425) 있었다. 오웰 사상의 핵심은 보수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의 절충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기준으로 이들 이념을 재배열한 자유주의적 정치 윤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웰의 비일관성은 결합이 아니라 이념의 도그마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한 사유의 결과이며, 그의 정치적 자기 규정 역시 이념적 일관성의 부재가 아니라 특정 이념의 교조화를 거부한 비판적 자기 위치 설정으로 읽혀야 한다. 은슨(Gustav Jönsson)은 "완전한 이념적 일관성은 누군가가 모든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는 증거가 아니며 대부분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Jönsson "George")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오웰이 완전한 이념적 일관성을 갖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념들에 대한 오웰의 숙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웰은 보수주의자로서 전통을 사랑했고, 자유주의자로서 개인을 옹호했으며, 사회주의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은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 담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며, 거대 담론보다 개인의 구체적 삶을 우위에 둬으로써 이념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지 인간이 이념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자유주의자 오웰이 당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만들어낸 갈등과 통찰을 살펴볼 것이다. 오웰은 자유주의자였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이념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그 이념적 거리가 당대의 교조적 흐름을 꿰뚫는 독자적 통찰을 가능하게 했다.

보, 자, 사
↓복합
자유주의자
말이 뭐든
논리인가?

(2) 엘리트주의와 검열에 맞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한 자

유주의적 통찰

이 장에서는 조지 오웰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의 자유주의적 기질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오웰의 비판에 담긴 통찰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오

고집남

자유주의자? X

한다. 오웰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한만큼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비판을 주로 남겼으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다수 등장한다. 주요 저술로 나누어 보자면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는 주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며 카탈로니아 찬가에는 공산주의자들과 공산당에 대한 오웰의 관점이 드러난다.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오웰이 공산주의자들을 언급할 때 의미는 당시 소련의 공산당 정책에 동의하며 친소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을 말한다. 그 외의 경우 오웰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개념적 구분없이 언급하는데 이들을 크게 진보적 좌파 지식인으로 인식한다. 이 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오웰의 통찰이 담긴 비판과 더불어 그 비판이 가능했던 인식론적 조건이다. 오웰은 사회주의 이념에 동의하면서도 자유주의적 기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 머물면서도 그 운동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적 기질은 오웰로 하여금 이념의 교조화가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침식하는지를, 그리고 대중의 삶과 괴리된 엘리트주의가 어떻게 운동을 무력화하는지를 남다르게 포착하게 했다. 나아가 오웰은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해방의 이상이 스탈린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자발적 검열로 귀결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이념의 교조화를 간파했다.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자였기에 오웰은 공식적 억압이 부재한 영국에서도 지식인 사회에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자발적 검열의 메커니즘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오웰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지만 로시와 로든이 지적하듯 그의 사회주의는 "독특하고 괴짜같고"(Rossi, Rodden 1) "그 사람 자신처럼 별난"(Rossi, Rodden 4) 것이었다. 자유주의에 초점을 두고 보면 오웰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즉, 개인의 자유와 사회주의적 가치 즉, 평등을 결합하려 한 것이다. 오웰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여전히 당대 사회주의 운동 내의 권위주의적 경향과의 투쟁을 전제로 했다. 앨런 긴들러(Allen Gindler)가 지적하듯, 오웰의 딜레마는 사회주의가 경제적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 믿으면서도, 그 내부에 잠재된 관료주의와 전체주의적 위협을 동시에 경계해야 했다는 점에 있다("Complex"). 오웰이 강조한 사회주의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확대가 아니라 평등주의라는 도덕적 원칙(Rossi, Rodden 7)이었으며 이는 사회주의를 유일한 윤리적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자유주의적 개인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오웰은 사회주의자

크게 도전
2개념.

모든 것의
원천이
기원.

가장
위대한

인간
심상
관료!

좌파 공산주의
극좌파(이론)
→ 스탈린 체제에
비판.

신자유주의적 개인적 가치(신자유주의 동치성이 예속된 개인)

였지만 당시 좌파 진영의 주류였던 소련식 현실 공산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권위주의에는 반대했다. 권위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또 오웰은 부의 재분배와 산업의 국유화를 믿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웰의 자유주의적 배경은 그를 사회주의 내부에 머물면서도 그 이념의 타락과 권력 남용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비판할 수 있게 해준 비판적 거리를 제공하였다.

권위주의
권력
주사

민주주의 동맹
가치이론에
강조
배경

그래서 오웰이 언제나 자신의 신념과 기준을 중시하였기에 일반적인 이념적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사회주의자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오웰은 기질상 자유주의자이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인 인물이었기에 일견 복잡하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자신의 독특한 통찰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당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좌파 지식인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 집단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비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이념상의 정교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하지만 현대 정치의 담론들이 되는 문제의식을 예고하고 통찰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웰은 자유주의자의 사회주의 통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글쓰기를 독특하게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영혼을 불어넣기 위한 비판적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장!

사회주의는 상부구조?
고?

그런데 이 독자성은 단순히 오웰 개인의 기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영국이라는 특수한 지적 환경이 그 구조적 토대를 이룬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달리 영국은 오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속성 덕분에 지식인들이 급진적 이념보다는 기존 체제의 언어와 제도 안으로 쉽게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다(Rodden 1990, 254). 영국 내 급진적 좌파 지식인들은 1930년대 처음 등장했는데 오웰은 이들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 위치를 유지한다. 로든은 이에 대해 오웰이 중산층 출신이지만 빈곤을 경험했고, 제국주의 경찰 경험으로 삶의 궤적이 달랐으며, 스탈린주의와 소비에트 신화에 일찍부터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등 다른 입장을 가졌다고 말한다(Rodden 1990, 258-60).

(배경)
환경이
영향!
영향!

조지 오웰의 정치적 자기 규정은 스페인 내전을 기점으로 하여 토리 무정부주의자로부터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전환된다. 오웰은 자신이 1936년 스페인 내전 참전 이후 쓴 모든 글은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고' 내가 아는 민주적

✓

*

무정부주의 + 사회주의 89 - ⇒ 민주적 사회주의

이 그림은 설명해야. 자유주의 버리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Essays 5)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오웰이 민주적 사회주의의 지지와 구현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지 오웰의 저작들은 사회주의가 인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뒷받침한다. ‘민주적 사회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 2부에는 당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오웰의 날카로운 비판과 통찰이 담겨 있다. 여기서 그는 사회주의가 대중에게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개탄한다. 그의 비판과 호소는 역설적으로 그가 사회주의 이념의 온전한 실현을 얼마나 간절히 추구했는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오웰은 사회주의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당대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는 뚜렷한 거리를 두었다. 오웰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거나 실현할 수 있을 경우 사회주의에 헌신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사회주의는 여전히 가능성에 불과(Warner)하기에 오웰은 당대의 사회주의 이념과 거리를 둘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사회주의의 이념에는 동의했으나 그 지지자들과 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웰 시대, 즉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이르는 시기⁴¹⁾에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자⁴²⁾를 자처했다. 시드

41) 오웰 시대 즉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세계적으로는 대공황, 파시즘의 대두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 운동이 약진과 쇠퇴를 반복했으며 특히 파시즘의 확장, 공산주의 내부 분열과 현실노선 조정 등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1920년대 영국 사회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성장했던 노동운동과 노동당의 부상, 그리고 영국 공산당의 창당 등 다양한 흐름이 공존한 시기였다. 1920년대 영국의 노동당은 자유당을 제치고 보수당과 함께 양당 체제를 이루는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당시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노동자의 정치 참여 확대와 사회 개혁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후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하게 된다. 더불어 세계적 흐름의 공산주의 안에서 영국 공산당 특징을 짚어보자면 1920년에 설립된 영국 공산당은 국제적인 사회주의 기류와 함께 탄생했으나 정통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점진적, 의회주의적 노선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당시 공산당은 노동당 내부에서 우파 지도부가 사라지면, 노동당 역시 의회를 통한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주의 실현을 혁명보다는 개혁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노동운동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1920년대 중반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약500만 명의 노동자를 포괄하며 영국 노동운동의 핵심 조직으로 기능했다.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복지 증진, 임금 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의 사회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20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길드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는데 이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한 민주적 사회구조 구축을 목표로 했으며,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었다. 요약하면, 1920년대 영국 사회주의는 노동당의 대중화, 공산당의 창당과 개혁노선, 강력한 노동조합, 그리고 길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발전이 주된 흐름이었다. 정치적 실천은 주로 의회·제도 개혁을 중시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2)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와 좌파 북 클럽(Left Book Club) 등의 단체들이 사회주의자 지식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불

니와 베아트리스 웨브, 조지 버나드 쇼⁴³⁾, 오든⁴⁴⁾ 그룹, 과학적 사회주의자들⁴⁵⁾ 등이 주요 흐름을 이루었으며, 노동당의 대중화와 공산당 창당이 맞물리며 사회주의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오웰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사회주의에 동의하면서도 그 지지자들 및 방법론에 대해서는 뚜렷한 거리를 두었다. 오웰의

리는 복지 모델의 설계자인 시드니 웨브와 베아트리스 웨브,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있었으며, W.H. 오든, 스티븐 스펀더, 세실 데이 루이스로 구성된 오든 그룹, 그리고 H.J. 래스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G.D.H. 콜의 길드 사회주의 등이 주요 흐름을 이루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영국 내 1920년부터 40년대에 이르는 기간 당대 지식인들의 많은 수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다.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와 좌파 북 클럽(Left Book Club) 등의 구심점같은 단체들이 있었다는 데서도 사회주의자 지식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추정해볼 수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불리는 복지 모델의 설계자로 유명한 시드니 웨브 & 베아트리스 웨브 (Sidney & Beatrice Webb)가 있었고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도 있었다. 오든 그룹 (Auden Group)으로 불리는 작가들 그룹에는 W.H. 오든, 스티븐 스펀더, 세실 데이 루이스가 있었다. 또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H.J. 래스키 (Harold Laski) 나 G.D.H. 콜 (G.D.H. Cole)의 길드 사회주의(Guild Socialism) 등이 주요한 흐름이었다.

- 43) 오웰은 이들과 다수의 지점에서 충돌하였다. 고든 비들은 “사회주의의 대의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웰은 특히 조지 버나드 쇼와 시드니 및 비트리스 웹스를 불쾌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Beadle 294)”고 말한다. 오웰은 쇼와 웹스, 그들의 추종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발달한 질서감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체스판과 비슷한 무언가로 축소하는 것”(Beadle 294)으로 간주했다. “웹 부부가 스탈린 정권을 맹목적으로 존경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Beadle 1978, 198)이었고 그래서 오웰이 거리를 두었을 수도 있다. 오웰이 비판한 조지 버나드 쇼는 명목상 페비안 개혁 사회주의자였지만, “볼셰비키 마르크스주의와 타협하게 되었으며, 특히 1920년대 중반 신경제정책의 수립과 공산주의 국제주의와 영원 혁명의 포기, 단일 국가에서의 공산주의 지지, 스탈린 하에서의 5개년 계획 수립 이후에 그러했다. 스탈린이나 무솔리니같은 인물들을 효율적인 통치자로 간주했고 특히 스탈린 정책의 지지자였다”(Sobolev 9) 심지어 쇼는 세계 2차 세계 대전 중 이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스탈린이라고 응답한 적도 있다(Yde, Matthew) 쇼의 “정치적, 우생학적 유토피아주의”를 분석하는 이드(Matthew Yde)의 저서는 쇼의 전체주의적 열망을 논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오웰의 버나드 쇼 비판은 그 당시에도 타당한 예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웰은 쇼의 스탈린 지지가 “권위주의에 대한 찬양”이라고 비판했다.
- 44) 오든에 대한 비판은 오웰의 에세이 「고래 뱃속에서」에 담겨 있다. 오든은 「스페인」(“Spain”, 1937)이라는 시를 통해 혁명가의 하루를 묘사한다. 여기서 훌륭한 좌파 혁명 당원인 주인공은 “몇 차례의 정치적 살인을 벌인 아침에 ‘부르주아적’ 후회를 억누르는 10분간의 막간, 급하게 먹는 점심시간, 바쁜 오후시간, 벽에 글을 쓰고 전단지 뿌리는 저녁시간, 모두가 의식을 고양시키는 내용”(194-95)을 담고 있다. 여기서 오웰은 필요한 살인이라는 표현은 “살인이 고작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시라고 말한다. 오웰은 히틀러나 스탈린은 살인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냉혹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청산’이나 ‘제거’ 등의 부드러운 말로 대체한다고 말한다(195). 오웰의 비판은 오든의 ‘비도덕 관념’이 ‘방아쇠를 당길 때 언제나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막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195). 그래서 “좌파적 사고의 상당 부분은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을 가지고 노는 것”(195)과 같으며 좌파 지식인들의 관념적이고 비실천적인 태도에 대해 거리를 둔다.
- 45) 또 오웰은 “버널같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의 위험한 허세에 대한 분노”(Werskey 461)를 갖고 있었다. 오웰은 과학노동자들이 전체주의 체제의 과학적 유물론과 연관된 전망과 발전된 기술 지향 등에 매료된다고 보았다. 이는 당대 독일과 영국 과학자들이 각각 수년간 히틀러와 스탈린을 옹호하고 체제에 봉사하는 과정을 지켜본 오웰이 과학자들이 작가들보다 훨씬 쉽게 전체주의에 적응한다는 관찰을 형성한 결과다. 지적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한 좌파 과학자들을 향한 그의 반감은 한편 “과학자들이 작가들보다도 훨씬 쉽게 전체주의적 습관에 젖는다는 과학자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편견의 결과”(Werskey 461)였다. 사회주의의 더 넓은 공산주의를 포함한 좌파 진영의 작가와 사회운동가, 과학자들을 향한 오웰의 비판은 타당한 일면과 편견 양쪽을 드러내고 있기에 오웰의 사회주의자 비판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 비판이 언제나 타당하거나 예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웰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단순히 과장된 질서감”이라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오해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갖고 있었다(Conquest 126).

오웰의 사회주의 비판의 또 다른 한계는, 그가 이론적 정교함을 갖추고 사회주의를 이해하기보다 자신만의 상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오웰이 이론과 추상을 불신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이론의 통찰력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White 90). 콘퀘스트(Conquest R.)는 오웰이 “동시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현상과 현실을 더 잘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이나 추상이 강점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126). 오웰이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지만 진정한 사회주의 질서가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자본주의 상품형태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White 90)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오웰이 사회주의의 이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실제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물론 여기서 좌파 독재에 대한 오웰의 경멸이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의 정치적 저술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내부 비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웰 연구자 잉글(Ingle)은 오웰이 사상가라기보다 도덕과 관습을 다룬다는 의미로서의 ‘모럴리스트(Moralistes)’라는 호칭이 오웰에게 더 어울린다고 평한다(Ingle 2006, 170). 잉글은 래스키(Harold Laski)를 인용하면서 오웰의 “기본적인 오류는 자유와 정의라는 말을 통해 모두가 같은 걸 말하고 있다고 믿은 것”이라고 지적한다(Ingle 169 재인용). 즉 오웰은 자유나 정의 혹은 평등 등의 추상적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래스키의 말처럼 오웰은 이러한 가치들이 보편적으로 같은 의미로 통용될 것이라는 낙관적이거나 아마추어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용어를 정교하게 탐색하고 정의하고 자신의 논의를 전개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웰은 사상가나 이론가로 불리기 어렵다. 그러나 모럴리스트⁴⁶⁾라는 정의는 그럼에도 사상에 대한 탐색을 의미한다. 본래 이 용어는 프랑스의 문학과 사상가들 중 형이상학과 거리를 두면서 인간의 본성, 풍습, 지혜

46) 몽테뉴 (Montaigne), 라 로슈푸코 (La Rochefoucauld), 파스칼 (Pascal), 라 브뤼에르 (La Bruyère), 샹포르 (Chamfort) 등의 작가들이 프랑스 모럴리스트로 불린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함께, 같은 반쪽을 생각
이런?

구분해서
오웰의
비판 대상?

등을 탐구한 이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웰은 형이상학적 의미에
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상식이나 품위와 관련된
문제로 논의했다고 볼 수 있다. 테리 이글턴은 오웰의 아마추어리즘이 그의 자유
주의적 도덕주의와 마찬가지로 오웰 자신의 한계라고 지적한다(이글턴 2015, 18
3). 그러나 동시에 오웰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가 사회 비평이라는 넓은
분야를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며 오웰의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문화연구라고 부르는 것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이글턴 2015, 183).
오웰은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었지만 사회주의를 포함한 정치
이념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와 인간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기록한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 서양사상에
변형 / 공산
주의
비판 대상

오웰은 사회주의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진단(RWP 159)을 내린다. 그
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가려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분열과 접근법의 결함에
있었다. 오웰은 사회주의가 정작 입지를 다져야 할 곳에서 “근본적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지닌 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할 사람들을 쫓아버
리고 있다”고 보았다(RWP 159). 오웰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분열이 사회주
의 이데올로기가 성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믿었다. 그는 사회주의 이론을
공통의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산층에게 국한된 이론”으로
보았다(RWP 161). 그래서 오웰은 사회주의자들을 자처하는 이들의 엘리트적이고
자족적이면서 다소 괴상한 모습, 그래서 대중의 호감을 얻기 힘든 사회주의자
집단의 이미지가 사회주의의 전달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본다. 오웰이
보기에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의 모습은 이념을 중시하느라 현실 감각을 잃고 그
래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좌파 지식인들의 모습이었다.

당대 영국의 사회주의가 사람들의 거부감을 사고 지지를 얻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 오웰은 당시 좌파 지식인들의 “사상의 세계에 살며 물리적인 현실과는 접
촉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정서적 피상성”을 지적한다(Essays 155). 오웰은 부르
주아 출신 사회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의 실제 삶과 감정, 언어, 습관을 깊이 이해
하지 못한 채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한다고 보았다. 또 오웰은 공산주의자들에 대
한 비판도 덧붙인다. 오웰에 따르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저 신비로운 세

?
원인
지?

오웰
(작가)
주상적 도덕,
이념에
비판
↓
이
진

존재 정, 반, 함"이라는 트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로 "딱딱한 문어체 말투와 긴 문장과 삽입구들"(RWP 164)을 사용하며 노동 계급 청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직업적 연사들이다. 당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은 도덕 원칙이 사회의 상부 구조의 일부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나 노동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계몽적이라고 생각"(Seaton 162)했다. 오웰은 이들이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태도와 이론 위주의 독선, 마르크스주의 교조에 빠져 있으며 노동계급과의 정서적·문화적 연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남긴다. 또 오웰은 배운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프롤레타리아의 연대, 동지 등의 말을 씌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의 문화가 피착취 계층이자 잠재적 사회주의자들인 중산층의 마음을 떠나가게 했다며 사회주의자들이 종종 사회주의의 적이 되곤 한다고 비판한다. 오웰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혁명이란 그들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똑똑한 '우리'가 하층 계급인 '그들'에게 부여할 일련의 개혁인 것"(RWP 167)이라고 말한다.

공산?

오웰은 1946년 에세이 「제임스 번햄에 대한 재고」("Second Thoughts on James Burnham", 1946)에서 "모든 정치 프로그램은 아무리 교화적이고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 뒤에서 움직이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Orwell "Second")라고 쓴 바 있다. 이러한 발언 역시 특정 정치 활동의 권력 추구를 경계하는 발언으로서 하원의원 또는 노조 간부가 되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맞닿는다. 맑시스트 문학평론가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이러한 관점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지적하면서도 "사회주의자 또는 명목상의 사회주의자이면서 실질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사람에 대한 그의 개인적이면서도 종종 합리적인 의구심과 의심이 결합된 것"(Williams 2007, 21)라고 덧붙인다. 오웰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 혹은 정치 집단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면서도 일정 부분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는 양가적 평이다. 티렐(Martin Tyrrell) 역시 오웰의 사회주의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웰이 경계한 것은 "사회주의가 수반하는 국가의 큰 권한 부여가 전체주의를 통솔하는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점을 말한다(Tyrrell "Two"). 즉 오웰은 집단의 정치적 색채를 막론하고 정치 집단이 장악할 수 있는 지나치게 큰 권한과 권력을 경계했다고 볼 수 있다.

경계

공산주의자들
공산당의
권력화
비판
9
가해자의
이유.

또한 오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은 일부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 추구하고 그 권력의 중점이 되어간 정당이라는 조직의 내재적 문제와 관련된다. 다시 말하자면, 오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은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 추구하고 정당이라는 조직의 내재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도 연결된다. 오웰은 우선 고립된 엘리트라 불리는 좌파 지식인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기회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모습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는 “노동 계급 출신이면서 이론적이고 딱딱한 문어체를 구사하는 유형”(RWP 164)들이 있는데 이들은 “문단의 인텔리가 되어 중산층으로 비집고 들어가 노동당 하원의원 또는 고위 노조 간부가 되는 유형”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자기 동료들을 위해 싸우라고 선출되었으나 그 자리는 오로지 편안한 일자리와 신분향상의 기회가 된다고 비판한다(RWP 164).

정치 집단의 대표적인 조직은 단연코 정당이다. 정당이 권력의 구심점이 되어가면서 이념적 이상이 이용될 뿐인 현실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볼셰비키들은 서로 다르지만 상응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대의의 전통적 형식들에 대한 대안으로 당이라는 것을 제안”(302)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정당 이전에 제도적 대의의 전통적 형식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대의정치의 한계를 의미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은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⁴⁷⁾을 통해 정치권력이 신성한 왕권이 아닌 인민의 동의와 계약에서 비롯된다는 대의정치론을 제시했다. 대의정

47) 왕의 정치 권력이 하늘로부터 권위로부터 승계된 것이라는 정치 사상가 로버트 필머(Sir Robert Filmer, 1588-1653)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며 시작한다. 그의 대표 저서인 패트리아카(Patriarcha) 부권론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왕의 권력을 아버지의 권위에 빗대어 설명하며 당시 사회 계약설을 주장하던 사상가들에 맞서 절대왕정을 옹호한 이론이다. 로크는 정치권력이 왕의 신성한 권위가 아닌 인민의 동의와 계약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는 정치권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론이었기에 후에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로크의 『통치론』은 로크는 “제한적이고 대의적인 정부’를 유일하게 정치적인 정부로 파악”(정윤석 125)한다. 로크의 정치란 “상이한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책임있는 정당에 기반해서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 기능을 행사하게 한다는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의 관점”(정윤석 126)을 말한다. 『통치론』 이래 로크는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질서를 대변하는 자유 민주주의 전통의 확립자”(정윤석 125)가 되었다.

간접민주주의

치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간접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주권행사 방식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식을 말한다. 정치 권력의 혁신을 전환을 의미했던 로크의 대의정치 이론은 후에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48). 로크와 이를 계승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내재된 역설, 즉 '정치성의 승화'와 '사회성에 의한 정치성'의 흡수 문제가 있다(정운석 128). 정치성의 승화란 정치적 적대나 갈등이 투쟁이 아닌, 윤리나 법치 혹은 법치주의의 틀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 아래 정치적 결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규범과 절차에 기반한 관리의 영역으로 변모하게 된다. 사회성에 의한 정치성의 흡수 문제는 공적 영역이 사적 욕망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적 영역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1958)에서 지적했듯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 소비, 노동과 같은 사적인 문제들이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된다.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49)는 의회적 대의가 실질적인 민의 반영이 아닌 조직화된 사회세력들의 사적 이해 충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가 공동체의 가치를 정립하는 행위 대신 각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사회적 기술로 축소된다.

이러한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볼셰비키 등은 '당(黨)'이라는 새로운 정치 조직을 제안했다. 다원적 사회세력들이 드러내는 사적 이해들의 충돌일 뿐인 의회적 대의 대신에 그들은 더 완전한 대의형식들, 심지어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들(50)을 제안한다(네그

48) 로크와 이를 계승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내재된 역설, 즉 '정치성의 승화'와 '사회성에 의한 정치성'의 흡수 문제가 있다(정운석 128). 정치성의 승화란 정치적 적대나 갈등이 투쟁이 아닌, 윤리나 법치 혹은 법치주의의 틀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 아래 정치적 결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규범과 절차에 기반한 관리의 영역으로 변모하게 된다. 사회성에 의한 정치성의 흡수 문제는 공적 영역이 사적 욕망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적 영역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49) 칼 슈미트의 대의정치 비판은 위험한 논의로 마무리된다. 그는 의회를 비롯한 민주주의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이 다수결의 결과 속에서 동일성을 보전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슈미트의 이론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힘은 다원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사적 이익의 추구 대신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것을 배제함으로써 동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논리로 귀결된다. 슈미트의 논의는 이 제도의 허점이 전체주의적 의사결정이라는 위험에 도달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전이 필요할까에 대한 추가적 질문을 낳는다.

50) 네그리는 1871년 파리코뮌이 민주주의적 통치 실험의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코뮌은 여전히 대의정부 형태이긴 했으나 맑스는 대의자들과 피대의자들 사이의 분리를 줄이기 위한 실험들에 고무되었다. 예컨대 코뮌이 시도한 보통 선거권 선언, 코뮌의 대의자들이 언제라도 선거인들에 의해 소환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노동자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볼셰비키
이것은
공산주의자
인것.

리 302). 이들은 노동계급을 외부의 지식인, 활동가와 결합하여 소외된 이들을 대의하는 전위당을 구상했고 파리코뮌의 실험이나 소비에트, 평의회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통해 더 완전한 대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의회 정치의 보완이 아니라, 주권권력과 인민 사이의 분리 자체를 해소하려는 급진적 시도였다.

그러나 네그리가 지적하듯 이 시도 역시 실패로 귀결되었다. 전위당 구상은 결국 지식 있는 엘리트가 민중을 지도한다는 자코뱅주의(Jacobinism)⁵¹⁾ 전통을 반복하는 데 그쳤고, 소련으로 대표되는 현실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주권 개념의 핵심 구조를 답습하며 일당 독재로 굳어졌다. 막스 베버 역시 사회주의적 조직화가 결국 자본주의와 동일한 관리 논리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결국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의 극복 시도는 권력의 새로운 집중이라는 문제를 낳았고, 이는 이후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자율정치(Autonomia)⁵²⁾ 같은 급진적 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지 오웰이 당대 영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지식인들을 향해 던진 비판의 핵심은 이념의 도그마와 권력 지향성이 초래한 정서적 단절과 정치적 기만에 있다. 오웰은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부르주아 출신 엘리트들이 노동계급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난해한 이론적 언어와 선민의식 속에 고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들에게 혁명이란 하층 계급의 실질적인 해방이

롭고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코뮌의 계획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대의자들과 피대의자들 사이의 분리를 좁히는 모든 조치는 국가의 폐지, 즉 주권권력의 사회로부터의 분리의 파괴를 향한 조치로 생각되었다. 정치적 대의의 새로운 방식들을 찾기 위한 또 다른 길은 프롤레타리아에게 경제운영과 사회관리의 직접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전통에서 이러한 종류의 민주적 대의의 가장 중요한 실험들은 소비에트 형식들과 소위 라트(Rat)형식들을 포함하는, 관리와 통치의 다양한 '평의회' 형식들이었다. 평의회들과 소비에트들은 다중이 통치에 연결되고 참여하는 것을 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메커니즘들로 간주되었다. 산업노동자들, 군인들 그리고 농민들은 그들의 소비에트들에 의해 완전히 대의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이라는 기구를 통해 "노동계급을 노동계급 외부의 지식인들 및 활동가들과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대의의 결핍을 보충하고 그들의 비참한 조건을 풀어나갈 정치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다중 302)을 구성하려 했다. 그들이 주창한 "평의회와 소비에트들은 다중이 통치에 연결되고 참여하는 것을 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메커니즘"이었다.

51) 급진적 정치 클럽인 자코뱅 클럽(Jacobin Club)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소수의 계몽된 혁명 엘리트가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위적 지도론을 핵심으로 한다.

52)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급진 좌파 사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이라는 기존 대의 조직을 통하지 않고 다중(multitude)이 스스로 직접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운동이 대의
비판
자본의 비판
이런가?

진해3대
르

화 집중화

정동

라고 확신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다(55). 이는 물론 정통 사회주의자들의 우월한 합리성을 통하여 구성된다. 즉, 무페가 비판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구상이 ‘과학적 근거’에 두고 있으며, 자신들의 적수들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능가한다는 진리에 접근하는 특권을 갖고 있고, 역사 과정이 결정하는 사회주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따르는 길을 설명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56).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대중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대중의 실제 열망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56) 정통 사회주의자들이 “승리 조건은 분명하게 공언된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56)이라고 확신하는 한 대중과의 이해의 접점은 사라진다. 이러한 진단은 오웰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제기한 비판, 즉 사회주의자들이 이론적 언어와 선민의식 속에 고립된 채 노동계급의 실제 삶과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내용상 정확히 접친다.

무페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정동(affect) 개념을 정치 이론의 중심에 놓는다. 그녀가 보기에 정통 사회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정동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정동이 정치와 윤리의 핵심”(베넷 16)임에도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 토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역사 범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동과 그것이 새겨지는 동일화 과정이다. 핵심은 정치적 동일화 과정이 “관념과 정동,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화 실천”(70)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관념이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은 관념과 정동이 결합할 때”(70)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페의 결론은 대중의 정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좌파 세력의 합리주의적 접근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좌파 정치는 신자유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웰은 ‘정동’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무페보다 수십 년 앞서, 이론이 아닌 직접적 관찰과 도덕적 감수성을 통해 동일한 문제의 핵심을 감지하고 있었다. 오웰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대체로 적의 마음을 읽는데는 별로 유능하지 못하다”(RWP 173)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정동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논리적인 좌파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오웰은 정동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치가 합리성의 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 오웰은 1946년 발표한 「코 앞에서」("In Front of Your Nose")라는 에세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실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을 전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정치의 비합리적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발언을 한다.

개인사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꽤 현실적이다. 우리가 주간 예산을 짤 때, 2 더하기 2는 당연히 4가 된다. 반면 정치는 일종의 소립자 혹은 비(非)유클리드의 세계이다. 그 곳은 부분이 전체보다 더 크거나 두 물체가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세계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글 전체에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주간 예산과는 달리 정치적 의견은 현실에 따라 확고하게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비밀스러운 신념에서부터 비롯된다.

In private life most people are fairly realistic. When one is making out one's weekly budget, two and two invariably make four. Politics, on the other hand, is a sort of sub-atomic or non-Euclidean world where it is quite easy for the part to be greater than the whole or for two objects to be in the same place simultaneously. Hence the contradictions and absurdities I have chronicled above, all finally traceable to a secret belief that one's political opinions, unlike the weekly budget, will not have to be tested against solid reality. (CEJL 125)

이 구절은 정치가 합리적 선택을 우선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와 비논리적 신념이 중첩되는 심리적 공간임을 시사한다. 오웰의 관점에서 정치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물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신념이 투사되는 무대인 것이다. 정치는 합리성의 판이 아니기에 정치적 구호는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이 호소력을 갖게 되는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오웰이 간파한 공산주의 및 좌파 지식인들의 한계는 정동의 역동성을 간파한 채, 인간을 오로지 지적 합리성의 범주 안에서만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오웰과 무페는 서로 다른 시대와 상이한 이론적 언어로 출발하면서도 동일한 지점에 도달한다. 즉, 좌파 지식인들이 합리적 이념과 정교한 프로그램에 매몰되어 대중의 감각과 정서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진단이 그것이다. 두

정치의 이미지. 기술 정치는 매우 낯.

이게 사회주의의 기질?

사람의 접근법은 다르다. 무페는 이 문제를 헤게모니 이론의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동을 정치적 전략의 차원에서 재구성하려 하는 반면, 오웰은 동일한 문제를 현장의 언어와 내부고발적 비판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바로 이 접근법의 차이가 두 사람의 수렴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이론적 기반, 시대적 맥락, 방법론도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진단했다는 사실은 오웰이 감지한 것이 특정 시대의 편견이나 개인적 반감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에 내재된 반복적 구조적 결함이었음을 보여준다. 마이클 앤더슨(Michael C. Anderson)이 오웰이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보이는 차이가 "감정 없는 이론가가 아니라는 점"("Orwell")에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오웰의 사회주의 비판은 현실 감각을 잃은 이념적, 교조적 태도와 위선을 향한 것이었으며, 바로 그 감각으로 무페가 수십 년 뒤 이론적으로 정교화한 문제의식을 먼저 가리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웰의 사회주의 비판은 단순히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반응이거나 특정 이념 집단에 대한 반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비판의 심층에는 오웰 자신의 자유주의적 기질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오웰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규정했지만 그의 사회주의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권력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였다. 그는 집산주의적 이념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 이념이 사회주의이든 파시즘이든 구별 없이 비판의 날을 세웠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의 자유주의적 감수성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오웰의 사회주의 비판이 특유의 예리함과 실천적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 비판이 사회주의 바깥에서 가해지는 외재적 비판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사회주의자 내부로부터의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오웰이 부르주아 출신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엘리트주의와 교조성, 권력 지향성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회주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상이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어떻게 배반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감지하는 이중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질은 앞서 논한 정당 조직의 내재적 문제와 지식인 사회주의자들의 대중 정동에 대한 몰이해에 대한 비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권력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감수성이 있었기에, 오웰은 사

오웰.
* (오웰의) 감성, 직관
감성

감성. 직관과 감성?
감성

반공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비판이론
비판
개인의 자유와 존엄
집산주의
집산주의
비판.

감성. 직관
포함하려
는 사람.

기질의
이념이든
그러면
오웰처럼
비판적
안정.

이것 보니까 인간의 감성. 직관을
포함하려 했던 측면이
있을 것임

포함하려!

회주의 운동이 내부로부터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경로를 다른 누구보다 직시하고 경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은 사회주의 내부의 엘리트주의와 정동의 몰이해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 비판은 사회주의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웰이 보기에 사회주의 운동의 타락을 가속화한 결정적 외부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현실 사회주의의 실현처럼 여겨졌던 소련과 그 이념적 산물인 공산주의였다. 오웰이 비판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계급과의 정서적 연대를 잃고 관념의 세계에 고립되어 갔다면, 당대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탈린 체제의 권위에 복종하며 지적 자유 자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웰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념적 오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태였다. 따라서 오웰의 공산주의 비판은 사회주의 비판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검열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자유주의적 가치의 침해로 나아간다.

오웰의 『1984』는 출판된 후 한 공산주의 잡지로부터 '이 달의 구더기' 상을 받는다(Ingle 2006, 141). 오웰과 당시 영국 내 공산주의 운동과의 갈등을 알려준다. 오웰은 당시 지식인들의 친소련 성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스탈린 체제를 옹호하며 친소 경향을 보였던 영국 내 공산주의와 오웰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오웰은 "소련에 대한 무비판적인 충성심은 현재의 정설이며, 소련의 이익으로 여겨지는 것과 관련될 때 그들은 검열뿐만 아니라 역사의 고의적 왜곡까지도 기꺼이 용인한다"(Orwell, "Freedom")고 비판한다.

이는 오웰이 스페인 내전을 통해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 개입했던 소련의 이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웰은 당시 소련이 사회주의 연대나 확산보다 자국의 경제,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였다.

스페인 내전당시 소련은 사회주의의 확산보다는 철저한 자국의 경제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 하였다. 당시 유일한 사회주의 정권이 창출된 소련은 만국의 노동자와 좌파지식인이 싸우는 전쟁에서 국민진영을 눈앞에 두고 패권을 잡는데 혈안이 되었고 현금결제 없이는 원조를 하지 않았다. 소련사회가 파시즘과 같은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를

이 자유주의적 지적 동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오웰의 자유주의적 입장은

자유주의적 입장은 오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소련의 위대한 혁명 / 스페인 내전 (오웰의 2) / 인종차별 (오웰의 2) / 인종차별 (오웰의 2) / 인종차별 (오웰의 2)

오웰: 인종차별주의 비판

↓
세계적 맥락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오웰은
* (북한의 인종차별)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민족/인종이 서로 경쟁
 공산주의(사회주의) - 나치즘은 인종사회주의의 기본

제공하였고 지식인에게는 소련식 사회주의가 또 다른 전체주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권현주 9)

무엇이 인종주의?

체제적 전체주의(라시즘) 비판.

소련은 공화정부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화파가 보유하고 있던 금 보유고를 갈취하다시피 했다. 공화파는 스페인의 금 보유고를 상속받았으나 군사 장비가 열세였고 소련은 오래되고 품질이 나쁜 보병 무기를 공급하면서 환율 사기를 동원했다(Buchanan 1371). 이에 스페인 공화정부의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내부 경제가 취약해졌다. 반면 파시즘 세력인 프랑코 세력은 같은 파시즘 세력인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훨씬 더 좋은 무기를 제공받았다(USHMM53). 소련과 스탈린은 정치적 패권 장악이 주요 목적이었기에 당시 스탈린에 의해 지지를 받았던 스페인 공산당은 모스크바의 정책들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좌익 그룹들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했다. "스탈린주의에 대해 오웰이 옳게 보았다는 점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토록 많은 서구인들이 극명하게 틀렸다는 점"(Conquest 129)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오웰이 당대 사회주의의 실현처럼 보였던 소련에 대해 또 다른 전체주의라는 판단을 내리고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은 당대 지식인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오웰은 『1984』에서도 빅브라더로 대표되는 당의 권력 구조를 통해 당대 현실의 전체주의 사회였던 나치 정권의 정치적 통제와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오웰이 스탈린 체제의 소련 역시 공산주의라기보다 전체주의적 억압 체제로 인식하였음을 지적한다(Crick 2007). 오웰이 당시 지식인들의 친소련 성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당대 영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노동운동보다 공산당에 매몰되는 친소 경향을 지닌 가운데, 오웰은 나치도 스탈린도 모두 전체주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나치즘의 포도화 된 공산주의 소련(스탈린) 전체주의(아나키) / 인종주의 및 인종 경쟁

트로츠키(Leon Trotsky, 1879-1940)⁵⁴의 스탈린 비판과 오웰의 공산당 비판은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스탈린은 맑스주의 이론이 구상했

53)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54) 러시아 혁명의 핵심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영구혁명론(Permanent Revolution)을 주창했으며 스탈린주의에 맞선 좌파 반대파의 상징이며 오늘날까지 트로츠키주의(Trotskyism)라는 정치 사조의 주창자로 간주된다.

* 소련은 귀신영국이라는 공산
당에 대한이 자발성

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아니라 관료적 독재를 수립했다. 그는 스탈린 정권이 노동계급의 지배가 아니라 소련 사회를 지배하는 특권 관료 엘리트, 즉 “노멘클라투라⁵⁵⁾(nomenklatura)”의 부상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Gindler "Complex"). 즉 트로츠키의 스탈린 비판 역시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의 권력 체제가 되어버린 공산당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었다. 긴들러는 “오웰의 개인적 정치 이데올로기나 전체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이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Gindler "Complex")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카탈로니아 찬가』 역시 파시즘 비판이라는 널리 알려진 체재 외에도 오웰의 정치적 통찰, 특히 공산당의 변질된 이념을 보여주는 다른 예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게 아니냐

오웰이 정당과 거리를 둔 근본적인 이유는 작가로서의 지적 자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워너(Warner J.)가 지적하듯 오웰이 치명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치적 당의 규율과 교리에 대한 순응이었으며 자발적인 정치적 행동과 논쟁은 허용되더라도 작가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그의 정치적 태도를 일관되게 규정했다(211). 비들은 오웰이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에 대한 에세이에서 쓴 “냄새나는 작은 정통주의들”(Essays 78)라는 말이 당대 좌파 정당들의 교리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고 말한다(Beadle 1975, 294). 현대 좌파 정당들이 요구하는 지적 획일성은 그의 지적 정직성과 항상 충돌했으며 앤서니 파월(Anthony Powell)의 말대로 그는 결코 정당 기체에 통합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Powell 27), 이러한 원칙은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오웰은 1938년 파시즘에 맞설 유일한 정당이 독립노동당(ILP)이라는 판단 하에 독립노동당에 속한 때가 있었지만 이듬해 탈당했고 이후 평생 동안 정치세력이나 정치운동을 멀리했다. 이는 작가적 자율성에 대한 오웰의 가치관에 기반한 결정이다. 또 오웰은 「작가와 리바이어던」("Writers and Leviathan", 1948)에서 “작가는 정치에 관여할 때 일반 시민으로, 한 인간으로 관여해야지 작가로서 그러서는 안 된다”(Essays 457)고 역설했다. 이는 그가 문학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상황을 경계했으며 작가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정치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공감은 지적 독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에서 자유주의의 지적 및 개인적 가치로 발전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오웰의

다른 자의성?

인간의 자의성? 작家的 자의성?

자의성? 작家的 자의성? 비판.

교리? 가령!

오웰의 작家的 자의성이 좌파 정당에 대한 비판.

어니스트 블랑크의 자의성 (지적)

작가가 생각할 수!

부정적 것은 아니. 정당한 것은 아니...

55) 구 소련에서 공산당 임명자들이 채울 정부 및 산업계의 영향력 있는 직책 명단을 말한다.

인간의 자의성은 정치적 양면? 사회적 양면?!

작가적 자의성 (정치적) 자의성

정당적 자의성이 정치적 자의성의 양면.

작업적/작가론 비판하는 비판가들
인용하는 근거/원천

작품에 특징적인 과정”(Warner 8)이다.

오웰의 공산주의자 비판은 당대 좌파 지식인들의 진정성 있는 사회 운동을 폄하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좌파 진영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와 함께 1950년대 영국 신좌파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에드워드 톰슨(Edward Thompson)은 맑시스트의 관점에서 오웰을 비판한다. 톰슨은 제목부터 오웰의 에세이 「고래 뱃속에서」("Inside the Whale", 1940)에 대한 응답을 예상하게 하는 「고래 바깥에서」("Outside the Whale", 1960)를 써서 오웰에게 반박한다. 톰슨에 따르면 1930년대와 40년대 영국 내 공산주의 운동 안에는 수많은 자발적 발의와 일반 당원들의 깊은 정치적 책임감 속에서 민주적 내용을 유지한 경우가 있음에도 오웰은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Thompson "Outside"). 톰슨은 나아가 오웰이 공산주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호소력있는 글들을 통해 공산주의의 대의를 사기라고 비난하고 그것을 지지한 이들의 동기를 조롱함으로써 행동의 원천을 완전히 흔들었다는 점에서 부당했다고 말한다(Thompson "Outside").

오웰과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갈등에 대해 바운즈(Philip Bounds)는 이런 평을 남긴다. 오웰은 “마르크스주의와 복잡한 관계를 맺었고, 그의 모든 작품은 영국 공산주의의 영향을 반영”(Bounds "Orwell")한다. 오웰의 저작이 사실상 “당시 영국의 주요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대화 형태를 띠었다”(Bounds "Orwell")는 것이다. 이는 오웰의 공산주의 비판이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당대 공산주의 지식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는 한편 공산주의에 내재된 문제에 대해 고발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오웰의 사고실험적 저술에 대해 볼로흐(Woloch) 오웰의 사유와 글쓰기의 과정이 근본적으로 변증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오웰이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분석 도구인 변증법⁵⁶⁾을 활용했다는 사실은

56) 변증법은 물론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사이의 담론을 말하며 모순을 통해 진리를 찾는 철학적 방법론을 의미한다. 변증법의 기본 개념은 모순과 대립, 그리고 그로부터의 변화, 정-반-합으로 불리는 틀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변증법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현대적 의미의 변증법은 독일 철학자 헤겔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더불어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또한 지속적인 대립과 투쟁을 통해 더 큰 종합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논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리하자면 대화와 논쟁을 통한 진리 탐구의 방법, 모순과 대립을 통해 사물과 개념이 발전하는 원리,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 체계화된 철학적 세계 등을 변증법의 주요 내용으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 연구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에서 마르크스 변증법과 헤겔 변증법의 차이를 지적하고 마르크스 변증법을 향한 낡은 오해를 해소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하비에 따르면 맑

아이러니한데 블로흐에 따르면 의식 자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제정하는 것이며 “귀납-몰입-구조로 이동”(Woloch 313)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다. 오웰의 변증법적 사고는 관념적 이론에서 시작하는 대신, 구체적인 현실을 귀납하고 직접 몸을 던져 몰입해 경험하며 그 이면의 정치적 메커니즘이라는 구조를 포착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내전 당시 단순히 이론적 전선에 머물지 않고 참호 속에서 직접 총을 들었던 경험은 그가 반파시즘이라는 거대 구호 뒤에 숨은 스탈린주의의 숙청 현실을 꿰뚫어 보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오웰이 당시 공산주의 운동과 거리를 유지했던 이유는 물론 스탈린 체제를 옹호하면서 스탈린 체제의 전체주의적 경향을 읽지 못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지만 동시에 오웰의 작가 정신이 공산주의자와 화해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다. 오웰은 공산주의를 불신했는데 공산주의가 제도적으로 테러를 동 반하며 인간 자유에 대한 사상을 공격한다는 이유에서 그러했다(Rossi 89). 즉 오웰은 작가로서 자유주의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지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오웰이 보기에 당대 공산주의는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오웰의 자유주의는 그의 작가 정신과 필연적 관계를 맺는다. 작가가 취해야 할 태도와 문학의 역할에 대한 오웰의 대표적인 문학 관련 에세이 「고래 뱃속에서」("Inside the Whale", 1940)를 가져와 오웰이 작가로서 검열과 자유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래 뱃속에서」는 오웰이 동시대 작가인 헨리 밀러에 대해 쓴 글이다. 동시에 이 글은 동시대 문학 전반에 대한 오웰의 사색과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오웰 자신만의 통찰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헨리 밀러는 1936년 발표한 『북회귀선』⁵⁷⁾이라는 작품으로 유

스의 변증법적 방법은 헤겔에서 도출된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30)의 것이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을 개혁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그냥 거꾸로 뒤집은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1830-40년대 독일에서 유행하던 헤겔 변증법의 신비적인 형태에 반대했고 그것을 개혁하여 “역사적으로 생성된 모든 형태를 유동적인 운동의 흐름으로”(하비 2011, 31)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컨대 변증법은 운동, 변화, 그리고 전환의 과정을 파악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런 변증법적 방법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감화를 받지 않고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며 혁명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현실적이든 잠재적이든 사회 변화의 핵심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비 2011, 31).

57) 밀러의 소설 『북회귀선』이 출간될 당시인 1935년은 세계 역사가 불안과 전쟁으로 동요하던 시점이다. 그 해에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를 공개 선언했으며 나치의 강제 수용소는 이미 가득차 있었다. 또 제 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이 발발해 이탈리아군이 지금의 에티오피아인 아비시니아로 진군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공적 사건들 때문에 세계 지식인의 관심은 로마와 모스크바와 베를린으로 향한 상태였다. 그런데 밀러의 소설 북회귀선은 마치 이런

명해졌는데 이 작품을 비롯한 그의 자전적 소설들은 성을 과격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출판이 금지된 적이 있다. 조지 오웰의 주요 활동시기인 1920-4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밀러도 자신의 주요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었고 역사적 격변으로 불릴만한 시기를 공유하며 작품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나 두 작가의 작품 세계는 주제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오웰이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적, 정치적 주제에 천착했다면, 밀러는 “비정치적, 비교육적, 비진보적, 비협력적, 비윤리적, 비문학적, 비일관적, 비현대적”(Essays 108) 주제들에 집중했다.

오웰이 포착하는 헨리 밀러의 작품세계가 가진 가치는 이렇다. 밀러의 작품에서는 정치와 무관하고 중요한 일들도 아닌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만이 내내 이어진다. 오웰은 밀러가 북회귀선을 통해서 이룩한 것은 ‘깊은 마음 속의 현실 정치를 밖으로 끌어내기로 한’ 행위라고 말한다. 마음의 구조를 탐색하기보다 일상적 사실과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음으로써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그대로 작품에 옮긴 것은 그 자체로 마음 속의 현실 정치라고 불릴만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헨리 밀러가 사회참여적이지 않으며 동시대의 역사, 정치적 사건들에 관심을 갖지 않은 비정치적인 작가라는 사실 때문에 오웰이 밀러를 비난하기는커녕 평론 전체를 통해 헨리 밀러라는 작가의 독특한 정치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러 가는 길에 밀러와 마주쳤을 때도 밀러는 오웰에게 이기적인 동기가 령 호기심 등으로 스페인에 가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의무감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갈한다(Essays 125-26). 오웰은 밀러가 현실참여와 거리가 먼 작가라는 것을 서술하면서도 밀러의 이런 태도를 비겁하다고 비판하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웰은 밀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Essays 125)이었기에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소설을 쓸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오웰은 공산주의 좌파라는 이념을 따르기 시작한 1930년대의 지적인 작가들 그룹이 “꼬리표를 붙이는 시기, 슬로건과 얼버무림의 시기”(Essays 125)에 글을 썼다고 말한다. 오웰은 「문학 예방」에서 이 문제를 원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들의 발생을 모르기라도 하는 양 외국인이 사는 파리 빈민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해 싸움, 술판, 싸구려 매음굴, 러시아 망명객, 구걸, 협잡, 임시 일거리 등의 소재를 다룬다. (Essays 102-04)

이념정치
경신정치
자본정치
대중(인생)정치
역사시대
정치권
(주자, 비정치적
의 작품)

다. 그에 따르면 "창의적인 작가는 자신의 관점에서는 사실인 주관적인 감정을 조작해야만 할 때 자유롭지 못하다" (Essays 334). 나아가 "자유롭게 떠오른 생각 하나가 금지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금지도 지성을 완전히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나은 경우라도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 검열 즉 "이 말을 해야 할까, 이것은 권파시스트적일까" (Essays 125)이 작동했다. 따라서 오웰에 따르면 1930년대에 지적인 작가 대부분은 공산주의에 투신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느라 좁은 거짓말의 우리 속에서 글을 썼다. 이는 결국 자신의 비참여와 비정치성에 정직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였던 밀러가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었던 데 반해, 정치에 헌신하고 목적의식을 지닌 채 작품활동을 이어갔던 공산주의자 작가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없었던 이유다. 오웰이 보기에 이들은 이데올로기에 집중하면서 정통성을 입증하느라 애썼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자체적인 검열을 품고 있었다.

오웰은 동물농장의 서문으로 쓴 에세이 「언론의 자유」 ("The Freedom of the Press", 1945)에서도 이 자발적인 검열의 문제를 제시한다. 전체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체제가 아닌 영국에서도 공식적이고 명시적이지 않은 방식의 검열이 작가나 언론인 자신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웰의 『동물농장』은 네 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으며 그 중 한 출판사는 준비를 마치고 영국 정보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와 접촉한 결과 출판을 포기하게 된다. 오웰은 이에 대해 "영국 문학 검열에 관한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 자발적"(Orwell, "Freedom")이라는 점이라며, 인기 없는 생각은 침묵시키고, 불편한 사실들은 공식적인 금지 없이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웰은 여기서 자유란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도 모두 주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관련된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모든 의견이,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 심지어 어리석어도 —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형태로 표현하면 거의 모든 영국 지식인은 '네'라고 말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주고, '스탈린에 대한 공격은 어떻겠는가?'라고 물어보아라.

‘그것이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대부분 ‘아니오’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통성이 도전받고, 표현의 자유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The issue involved here is quite a simple one: Is every opinion, however unpopular — however foolish, even — entitled to a hearing? Put it in that form and nearly any English intellectual will feel that he ought to say ‘Yes’. But give it a concrete shape, and ask, ‘How about an attack on Stalin? Is that entitled to a hearing?’, and the answer more often than not will be ‘No’. In that case the current orthodoxy happens to be challenged, and so the principle of free speech lapses. (Orwell, "Freedom")

이러한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은 결코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웰이 보기에, 그것은 서구 지식인들이 소련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취하는 근본적인 태도 — 즉, 비판을 ‘반동’으로, 의심을 ‘배신’으로 규정하는 이념적 압력 —로부터 직접 길러진 것이다. 스탈린 비판이 청문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적 편견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복속해 있는 거대한 조직적 충성 구조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 충성 구조의 실체가 바로 서구의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 오웰은 서구의 공산주의 운동이 애초에 표방한 국제 사회주의의 이상과는 점점 멀어져 결국 모스크바의 외교적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서구의 공산주의 운동은 자본주의를 폭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외교정책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 . . 스탈린이 파트너를 바꿀 때마다 ‘마르크스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갑작스럽고 격렬한 ‘노선’의 변화, 숙청, 비난, 당 문서의 조직적 파괴 등이 뒤따라 일어난다.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어느 때고 자신의 근본적인 신념을 바꾸거나 당을 떠나야 한다. 월요일에는 명백한 신조가 화요일에는 저주받은 이단이 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적어도 세

번이나 일어났다. 그래서 서구 국가에서 공산당은 늘 불안하며 매우 소규모로 존속했다. 공산당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사람들은 러시아 관료와 자신을 동일시해온 핵심 지식인층과 소련의 정책을 잘 이해도 못하면서 소련에 대한 충성을 느끼는 제법 큰 노동계급 집단이다. 그 외에 공산당원들은 자주 바뀌는데, '노선'이 바뀔 때마다 한 무리의 당원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식이다.

The Communist movement in western Europe began as a movement for the violent overthrow of capitalism, and degenerated within a few years into an instrument of Russian foreign policy. . . . Every time Stalin swaps partners, 'Marxism' has to be hammered into a new shape. This entails sudden and violent changes of 'line', purges, denunciations, systematic destruction of party literature, etc. etc. Every Communist is in fact liable at any moment to have to alter his most fundamental convictions, or leave the party. The unquestionable dogma of Monday may become the damnable heresy of Tuesday, and so on. This has happened at least three times during the past ten years. It follows that in any western country a Communist Party is always unstable and usually very small. Its long-term membership really consists of an inner ring of intellectuals who have identified with the Russian bureaucracy, and a slightly larger body of working-class people who feel a loyalty towards Soviet Russia without necessarily understanding its policies. Otherwise there is only a shifting membership, one lot coming and another going with each change of 'line'. (*Essays* 119-20)

소련이 국익에 따라 동맹을 맺고 파기할때마다 공산당은 이를 사회주의적 대의로 포장한다. 월요일의 신조가 화요일의 이단이 되는 현실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교조주의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당의 노선이 급격히 바뀔 때 당 내부에서는 정화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는 『1984』에서 문서의 지속적 파괴를 통해 현재의 노선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연상하게 한다. 당원들은 자신의 판단 대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게 되므로 이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 이런 구조는 서구 공산당이 왜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가톨릭교도나 공산주의자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자들이 정직하지 않고 지적이지도 않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그들[가톨릭교도와 공산주의자]의 주장에는 진실이 이미 밝혀졌고 이단자는 바보가 아닌 한 진실을 알면서도 단지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에 맞선다는 주장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공산주의 문헌에서는 지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 대개 뿌뿌부부주아적 개인주의나 19세기 자유주의의 망상이니 하는 문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며 낭만적이니 감상적이니 하는 폭언의 힘을 빌려오는데 이런 폭언은 일정하게 함의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논쟁의 방향이 실제 논점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만든다. 완전한 자유는 오로지 계급 없는 사회에서만 존재하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에만 거의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공산주의 명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깨우친 사람이라면 이 명제를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와 함께 슬그머니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끼어든다. 공산당은 그 자체로 계급 없는 사회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련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주장을 바탕으로 두 번째 주장을 이어가도록 허용할 경우 일반적인 인간의 품위와 상식을 공격하는 주장까지도 모두 정당화될 것이다.

Each of them tacitly claims that 'the truth' has already been revealed, and that the heretic, if he is not simply a fool, is secretly aware of 'the truth' and merely resists it out of selfish motives. In Communist literature the attack on intellectual liberty is usually masked by oratory about 'petty-bourgeois individualism', 'the illusions of nineteenth-century liberalism', etc., and backed up by words of abuse such as 'romantic' and 'sentimental', which, since they do not have any agreed meaning, are difficult to answer. In this way the controversy is manoeuvred away from its real issue. One can accept, and most enlightened people would accept, the Communist thesis that pure freedom will only exist in a classless society, and that one is more nearly free when one is working to bring such a society about. But slipped in with this is the quite unfounded claim that the Communist Party is itself aiming at t

모든 것은
인간, 정부,
사회

자유주의의 당
주장

유기적 지식인

이 개념적인
다양성
지은 - 대경 (적자경제)

경제에서

진정행동론 통해
지식인과
전담하는
메카니즘이
함.

인구 집중지 (정확한)

ex (인구집중 혁명론)

행동론은 벗아가고 집중지반 남산.

the establishment of the classless society, and that in the U.S.S.R. this aim is actually on the way to being realized. If the first claim is allowed to entail the second, there is almost no assault on common sense and common decency that cannot be justified. (Essays 330-31)

오웰은 가톨릭과 공산주의를 나란히 배치하여 두 집단 모두 진리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전체를 깔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리가 확정되어 있다고 믿는 순간 반대 의견은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악의적인 도발이나 이기적인 배신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문헌이 사용하는 수사적 특징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지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뿌리부르주아적 개인주의, 19세기적 망상 같은 딱지를 붙인다. 또 낭만적, 감상적 같은 단어들을 감정적인 비난을 위해 사용한다. 오웰은 이를 함의된 의미가 없는 폭언이라 정의하며 논리적 반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또 오웰의 비판은 공산주의의 논리적 전개 방식이 논리적 비약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웰은 사람들이 첫 번째 명제인 이상적인 목표에 동의한다는 점을 악용해, 두 번째 명제인 현실의 독재를 마치 필연적인 결론인 양 슬그머니 끼워 넣는 수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웰의 글은 계급 없는 사회라는 고결한 목표를 빙자하여 지적 자유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사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오웰은 이러한 정당의 방침과 작가의 자유로운 사유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영국의 좌파 지식인 그룹이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이데올로기의 우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을 때, 오웰은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관통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간파해냈다. 그는 정당의 방침에 종속된 작가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좁은 거짓말의 굴레를 거부하고, 민중 중심적 아나키즘에 기반한 반권력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결국 오웰의 자유주의는 특정 정치 집단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획득된 것이며, 이러한 독립적 작가 정신은 『1984』와 같은 작품이 공산주의 진영으로부터 “이달의 구더기”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체제 비판의 동력이 되었다.

조지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은 그의 작가 정신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맺으며, 이는 당대 지식인 사회를 지배했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자적인

이(기) 지배(체제) ? X

비판적 통찰을 제공하는 근간이 되었다. 오웰에게 있어 문학적 실천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면한 현실을 정직하게 응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유를 수호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에세이 「고래 뱃속에서」에 투영된 헨리 밀러(Henry Miller)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다. 오웰은 밀러의 비정치적 무책임성을 옹호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당대 좌파 지식인들이 보여준 자발적 검열과 정통성(orthodoxy)에 대한 강박이 문학적 진실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해부하였다.

이 같은 통찰은 이념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자유와 존엄성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론은 항상 그것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을 유지하려 한다 (Armstrong 22). 이론의 매혹적인 힘은 신봉자를 자신이 포괄할 수 없는 모든 것의 파괴로 이끌고, 필연적으로 강제 수용소에 가까워진다(Armstrong 22). 오웰은 사회주의 세력 내부의 반항자로서 바로 이 점을, 즉 이념이 신봉자들을 어디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결국 오웰의 자유주의적 배경은 그를 사회주의 내부에 머물면서, 공산주의와 대화적 교류를 하면서도 그 이념의 타락과 권력 남용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비판할 수 있게 해준 비판적 거리를 제공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전체주의에 항거했으며, 그가 보여준 정치적 통찰은 이념의 도그마보다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정직성을 우선시한 자유주의적 주체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자유주의자로 규정한 적이 없음에도 자유주의의 가치를 우선시했다는 면에 있어 자유주의를 실천한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오웰의 비판은 우선 사회주의 운동이 대중의 삶과 피리되어가는 구조적 패턴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오웰의 사회주의 비판은 대의정치의 고립된 엘리트주의를 의미한다. 로크식 대의제가 이익 조정이라는 관리의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정당조차 또 다른 권력 독점 기구가 된다. 오웰은 사회주의 정당이 노동계급을 대의(58)한다는 명분 아래

58) 대의제 비판의 대표적 이론은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가 1911년 저서 『정당사회학』에서 제시한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문으로 정병기(2005)의 연구 「과두제의 철칙과 순환론적 역사관」(2005)를 보면 "미헬스의 주된 관심은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의 내부구조를 당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235)이었으며, "미헬스에게 있어서는 대중심리적 차원이 직업적 지도자의 문화교양상의 우위 및 종신지도자의 등장과 관료제로 귀결되며, 이 귀결점들이 다시 개인심리학 차원에서 인간에 내재한 지배력의 고양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과두제의 철칙'이 생겨나는 것"(정병기 237)이라고 말한다. 또한 "미시적 관찰을 통해 본 미헬스의 관점에서는 좌파계급정당들도 국민정당과 포괄정당이

무엇이서?

자유주의라고
전제주의라고
부드러운 명목
감!

이론

정당?
거짓!

과두적인 자유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자유인가?
아니고 같은데...
- 113 -
아니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자유인가!
아니고 같은데...

민주주의, 권력쟁탈, 무로우리의 등. : 재발!

7808

실제로는 그들과 분리된 전위적 엘리트 집단이 되어 호소력을 갖지 못하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 좌파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 교조와 합리적 프로그램에만 매몰되어 대중이 실제로 느끼는 감각과 열망, 즉 정치에서의 '정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오웰의 자유주의는 대의정치와 필연적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대의정치는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스 드 토크빌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우려했던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대의제는 대중을 대신한 '이성적인 대표자'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엘리트주의의 위험을 내포한다. 오웰의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지적인 대표자들이 노동계급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대의제
계몽론
관련양도

양도 아닌

행사: 권력, 이익

권력, 이익, (대의제), (대중)

더욱 나아가면
기호적 예속

0

권력쟁탈
권리
'신'이요?

오웰의 공산주의 비판은 검열의 문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당시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검열이 존재했다. 이 검열은 예술, 문학, 언론의 메시지를 당의 노선에 맞게 획일화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 역사를 수정하며 메시지 생산의 전후 과정 전반에 개입한다. 그러나 오웰이 더욱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본 것은 공식적인 검열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에서도 지식인들 사이에 자발적 검열이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탈린 비판이 청문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인기 없는 의견이 명시적 금지 없이도 침묵 속에 묻혀버리는 현실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지식인 스스로가 내면화한 이념적 충성 구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율성을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로 삼는 오웰에게 이 자발적 검열은 공식적 억압 못지않은 심각한 위협이었다.

* 어디에
있음!

결국 오웰의 자유주의적 기질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한 그의 비판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한 원리이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계급의 구체적 삶과 정서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엘리트주의를 비판했고, 공산주의가 해방의 이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지적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이념의 도구로 종속시키는 과정을 고발했다. 이 두 비판은 서로 다른 문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자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 뿌리는 같다. 오웰은 자신을 자유주의자로 규정한 적이 없었지만 사회주의 내부라는 이름을 떠는 부르주아화의 경향을 벗어날 수 없다"(정병기 240).

= 재발?

자유주의도
비판함!
자유주의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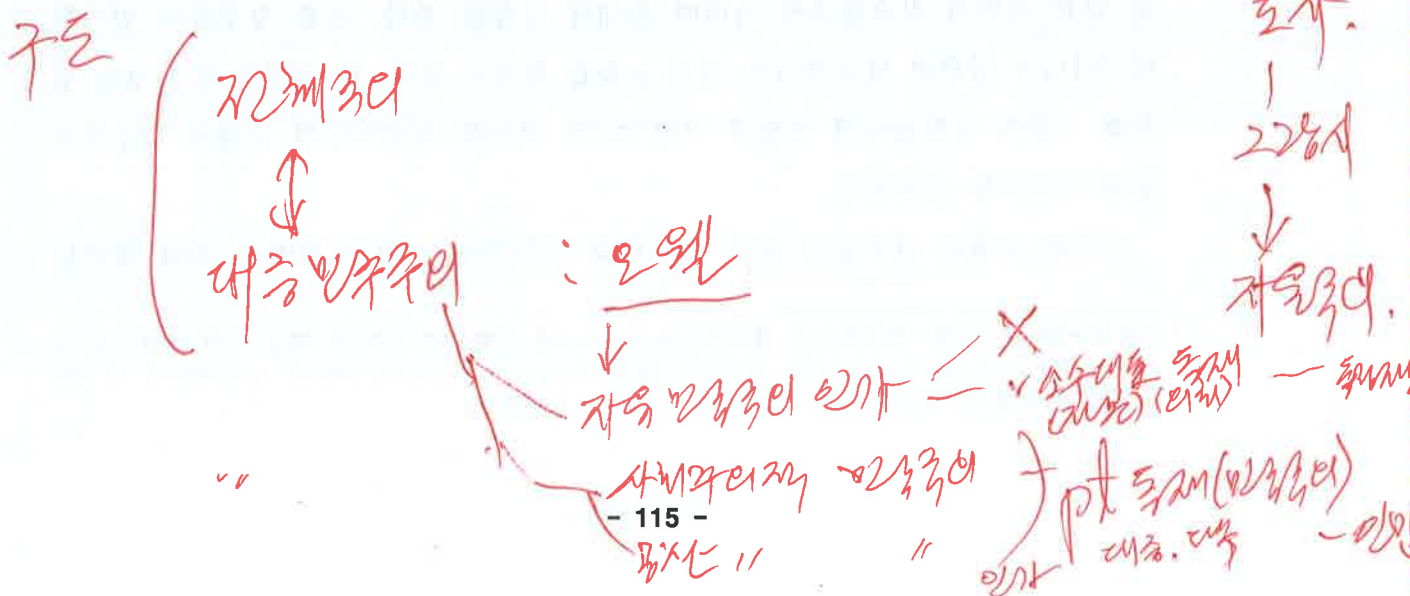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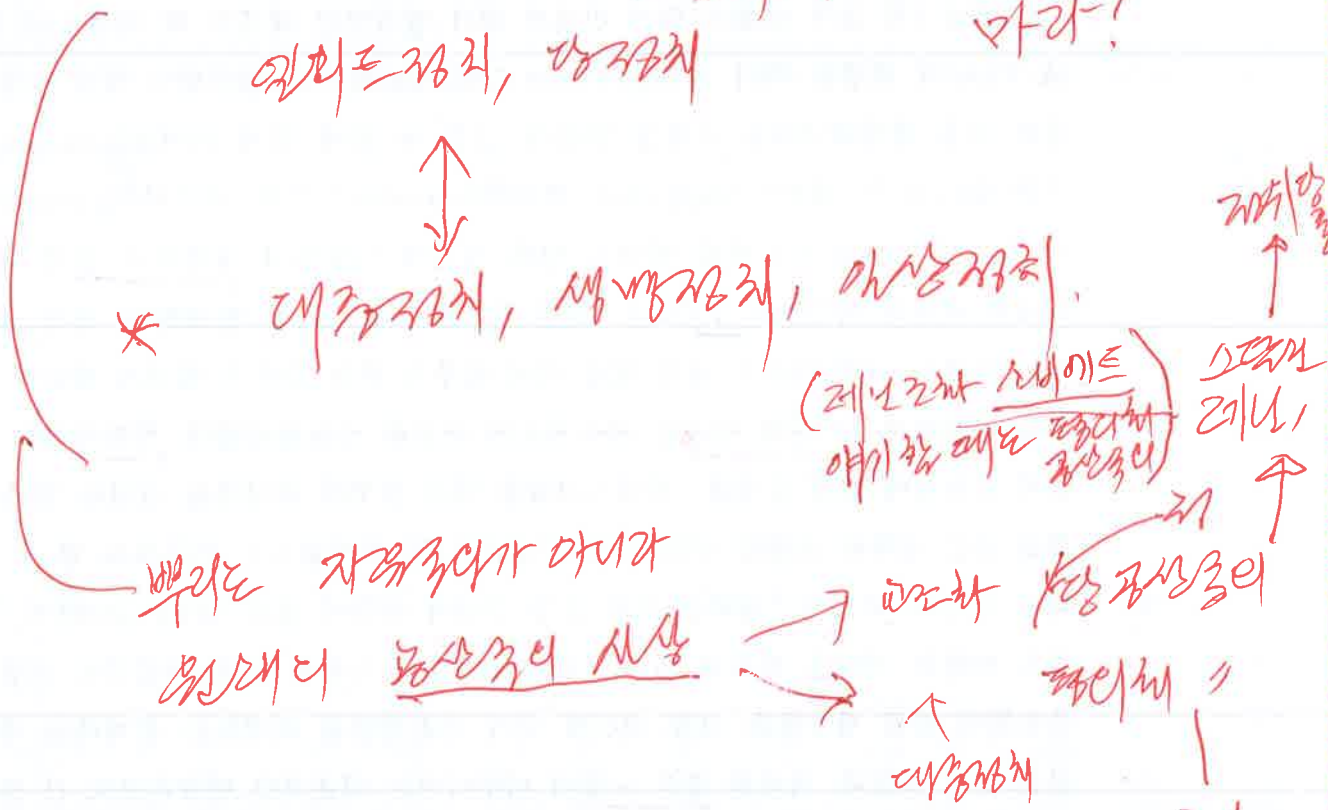
당연히 아니었을까!

자유주의 지지자?

민주주의 문제이지 자유주의 문제
 비민주적 사회는 인간적 자유

에 머물면서도 사회주의의 타락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적 기질이 그에게 이념으로부터 독립된 비판적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념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지 인간이 이념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오웰의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해 일관되게 던진 물음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속 편한 해법이
 그쳤다고? - 오웰은 합리성이
 아냐!



4.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

조지 오웰의 문학적 선취

(1)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안전 메커니즘과 국가 권력 확장의 역설

1936년 1월 조지 오웰은 당시 진보적 좌파 잡지였던 레프트 북 클럽(Left Book Club)의 편집인 빅터 골란츠(Victor Gollancz)로부터 잉글랜드 북부 노동자들의 삶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는 두 달에 걸쳐 리버풀(Liverpool), 위건(Wigan)⁵⁹⁾, 셰필드(Sheffield), 반즐리(Barnsley) 등의 랭커셔(Lancashire)와 요크셔(Yorkshire) 지방 일대의 탄광 지대에 머물면서 광부들의 삶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37년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발표한다. 당시 광부라는 직업은 가족 단위로 계속 대를 이어 광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광산을 중심으로 한 탄광 마을은 공동체로서 중요한 구심점이었다. 석탄이라는 연료의 중요성에 대해 오웰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부터 대서양을 건너는 것까지, 빵을 굽는 것부터 소설을 쓰는 것까지”(RWP 29) 석탄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더불어 “평화를 위한 모든 수단에 석탄이 필요”(RWP 29)하며 “혁명도 반동도 석탄을 필요로 한다.”(RWP 29) 광산 노동을 통해 제공되는 석탄이 중요했던 만큼 광부들은 그들 자신이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드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광산 노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탄광촌으로 간 오웰은 탄광 지역의 하숙집에서 지내며 동네의 모습을 본다. 직접 광부들의 일과를 따라다니고 탄광의 막장에까지 가서 노동을 하기도 한다. 또 광부들의 가정에 방문해 그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세밀히 관찰하면서 실직한 광부들의 삶은 어떤지를 살펴본다.

이처럼 오웰은 광부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광부들

59) 리버풀과 위건은 역사적으로 랭커셔(Lancashire)에 속했으나 197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각각 머지사이드(Merseyside)와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역사적으로는 랭커셔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노동시간 대략!

의 노동을 경험해보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차원의 취재를 완성한다. 오웰은 직접 광부들의 노동을 경험해보기로 하고 필러(filler)⁶⁰을 따라 갱도 안의 막장까지 내려간다. 갱도 안은 램프가 있다 해도 뿌연 탄진으로 인해 어두우며 덥고 갑갑한 공간이다(RWP 18). 갱도의 높이가 1미터 전후이기 때문에 광부들은 무릎을 꿇고 기는 자세를 유지한 채 삽으로 석탄을 담는다. 광부들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 석탄을 캐는데 이는 광부들이 자신의 진짜 일터인 갱도에 도착하기 위한 출근 과정과 같다. 오웰은 여기서 승강기로 이동하는 수직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탄광의 수직 갱도가 탄층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광부들은 승강기에서 내린 후에도 보통 3마일 거리, 심하게는 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기어서' 이동한 후 작업한다(RWP 22).

오웰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동이 직장인들의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는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광부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RWP 25)는 사실이다. 오웰 역시 탄광 노동에 대해 “깊이와 더위, 암흑, 채벽을 파내는 시킴해진 사람”(RWP 25)을 상상해본 적은 있어도 그 자체로 광부 아닌 사람에게는 하루치 일거리에 해당할 법한 수평거리 이동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즉 광부들의 노동에는 적어도 한 시간, 많게는 세 시간에 해당하는 이동이 앞뒤에 자리하고 그 사이에 일곱 시간 반의 무지막지한 노동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RWP 25). 이 이동은 보통 직장인들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평범한 출퇴근과는 다르게 갱도를 '기어서' 이동하는 과정으로 실상 육체노동과 다를 것이 없다. 오웰은 당시 광부들의 작업에서 공식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실제 노동만큼이나 힘겨운 이동 시간에 주목한다. 이러한 섬세한 관찰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오웰이 광부들의 노동을 직접 경험해보았기 때문이다. 오웰은 갱도를 따라 들어가 직접 석탄을 캐는 곳까지 '기어서' 이동해보았기에 광부들의 출, 퇴근 과정이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과정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광산 노동의 일과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참여적 경험을 통해 오웰은 은폐된 노동의 실체를 고발하며 정치적 도구로서의 글을 완성한다. 석탄의 명백한 중요성

반복!

60) 광산 노동에서 막장은 갱도의 가장 깊은 끝 부분을 말한다. 막장꾼은 이 갱도 끝에서 광물을 캐는 광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광부를 말한다.

에도 불구하고 오웰은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이 석탄과 멀리 있는 탄광에서의 노동을 결부시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RWP 29)라고 말한다. 즉, “우리에게 ‘석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석탄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좀처럼 또는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RWP 29)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석탄을 위해 가혹한 노동이 항상 수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감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기에 오웰의 르포르타주처럼 사회문제를 조명하는 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경험은 작가 자신에게 탄광 노동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교훈을 남긴다. 오웰은 석탄이 우리에게 그토록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석탄에 결부된 노동의 혹독함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만큼 석탄이라는 자원이 꼭 필요하며 누군가를 혹사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이기에 광부들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노동에 동원된다. 심지어 오웰은 “임신한 여자들이 땅속을 기어다니지 않으면 석탄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석탄없이 살기보다는 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리라고 생각한다”(RWP 30)고 쓴다. 이는 산업혁명 시대에 굴뚝 청소가 꼭 필요한 일이며 아이의 작은 몸이 이 노동에 적합한 유일한 방식이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실일 것이다. 오웰의 통찰은 생활의 안락함이 누군가의 가혹한 노동에 빚지고 있다는 현실을 역설한다.

오웰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태도 덕분에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오웰만이 가진 사회적 감수성과 비판적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저서로 유명해졌고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다. 오웰의 르포르타주는 비평가들로부터 “빈곤과 책임에 관한 논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복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열정적인 논설”(Stephen Armstrong)이라는 평을 받았다. 드와이트 맥도널드(Dwight Macdonald)는 “내가 아는 최고의 사회학적 보고서”(Sabin 43 재인용)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존 스티븐슨은 이를 ‘실업에 관한 문서에 준하는 문학의 위대한 고전’(Stevenson 476)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의 가치에 힘입어 “오웰은 1930년대의 어떤 작가보다도 역사학자들에게 더 많이 인용되고 존경”(Pearce, R. 410)받았다. 사빈(Sabin Margery)은 오웰의 1930년대 논픽션을 검토하는 연구 “경험의 진실: 오웰의 1930년대 논픽션(The truths of experience: Orwell’s nonfiction of the 1930s)”에서 직접적인 경험의 권위는 대부분의 독자들과 거

리가 먼 사회, 정치적 삶의 영역에 대한 오웰의 보도에서 진실의 인상을 강화시켰고 더불어 오웰의 논픽션 작가로서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오웰이 직접 광산 노동을 체험하고 광산 노동자들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한 덕분에 직접적인 경험의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독자들 또한 자신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광산 노동자들의 삶을 읽는 간접 경험을 통해 노동계급의 현실이라는 사회적 쟁점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이 담긴 『위건 부두로 가는 길』 1부는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과 작업 환경, 광산 노동의 특수성, 당대 광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복지 제도⁶¹⁾ 등을 기록한 중요한 르포르타주(reportage)로 평가되었다. 르포르타주는 흔히 단순한 뉴스를 넘어선 현장의 기록이며 독자에게 그 현장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는 보고 방식을 말한다. 좋은 르포르타주의 요건이란 저자가 직접 체험한 진실을 담아야 하며 개별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개인의 불행이나 투쟁이 어떤 사회, 정치적 구조에서 기인하는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즉 미시적 서사를 통해 거시적 구조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소외계층이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윤리적, 정치적 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르포르타주는 소설과 달리 허구를 창작하지 않기에 문학적 기법은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럼에도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소설이라는 예술적 기법인 묘사나 전개 등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르포르타주의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오웰의 글은 취재 목적과 장르적 가치에 충실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웰이 광부들의 노동을 조명함으로써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삶에 접근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오웰 자신이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에 대한 유리된 정서를 갖고 있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이에 대해 오웰이 반복해서 사용

61) 당시 광산 노동은 그 어떤 직종보다 복지 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지하 심층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특성상 광부는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1913년 생헤너드 탄광 참사(Senghenydd Colliery Disaster)와 1966년 아버판 참사(Aberfan Disaster) 같은 역사적 비극은 당시 광부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알게 해준다. 사고의 위험이 잦은 직업 특성상 광부들의 복지는 그들의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혹은 실직 위협에 대한 복지 체계들이 강조되어 있었다. 그래서 광부라는 직업은 노동자 권리, 산업발전, 사회복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직업군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복지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한 수난을 즉각 체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동자 ← 유기적 제국인

하는 용어들, 즉 노동자 아닌 이들을 가리키는 '우리'와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그들'이 도전받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오웰이 공감과 이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광부들의 삶을 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웰의 인식은 자신의 계층과 노동자들을 이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윌리엄스의 비판에 따르면 오웰의 인식 안에서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는 경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결국 "그들에 대한 인식—윌리엄스가 말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인식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Mechie 16)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캐럴 매키(Mechie C.)는 오웰의 글이 상호 인식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사실 "계급을 분리시키는 상상적, 지리적, 물리적 경계를 반복해서 떠올리게 한다"(Mechie 17)"고 말한다. 공감을 드러내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오웰의 관찰이 계급 차이에 대한 분리와 타자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평이다.

다른 사람처럼
경험한 것!
이유나?

우리과 그들이라는 분리적 용어가 오웰이 계급적 바탕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제한적일지라도 오웰이 노동자 계급의 타인에게 인간적 공감을 드러내며 계급적 한계를 넘어서는 유명한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오웰이 불결하고 우울한 하숙집을 떠나 탄광 산업 도시로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본 광경에 대한 서술에 등장한다. 3월이지만 매우 추운 날씨였고 기차 안에서 보는 바깥의 풍경은 "강둑과 직각 방향으로 뻗은 슬럼가의 작은 회색빛 집들"(RWP 15)이었다. 오웰은 여기서 어떤 젊은 여인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부엌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꼬챙이로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본다.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막힌 곳을 뚫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의 모습은 거친 옷과 꼴사나운 나막신, 추위에 빨개진 팔을 하고 스물 다섯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유산과 고역으로 마흔 살은 되어보이게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RWP 15).

자신의 배경
계급의식!

극복? 극복은
어떻게 극복은
가능한지!

극복방법!
극복(본래)적합
성 있음.

(극복의
소속?)
극복
극복의자
의 최선생
를.
(극복
성공후)

나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들이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슬럼에서 자란 사람들은 슬럼밖에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가 그녀의 얼굴에서 본 것은, 까닭 모르고 당하는 어느 짐승의 무지한 수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모진 추위 속에, 슬럼가

뒤뜰의 미끌미끌한 돌바닥에 꿰어앉아 더러운 배수관을 꼬챙이로 찌르고 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운명인지를, 내가 알 듯 그녀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It struck me then that we are mistaken when we say that 'It isn't the same for them as it would be for us', and that people bred in the slums can imagine nothing but the slums. For what I saw in her face was not the ignorant suffering of an animal. She knew well enough what was happening to her - understood as well as I did how dreadful a destiny it was to be kneeling there in the bitter cold, on the slimy stones of a slum backyard, poking a stick up a foul drain-pipe. (RWP 15)

“인류에라는 공통된 유대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Shelden 232) 이 장면에서 결정적인 지점은 오웰이 여인의 얼굴에서 무지한 수난이 아닌 자각된 고통을 읽어냈다는 데 있다. 빈곤층이 자신들의 열악한 처지에 익숙해져 감각이 마비되었을 것이라 상정한다면 이는 고통에 대한 타자화일 것이다. 그러나 오웰은 여인과 눈이 마주치는 짧은 찰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느낀 비참함과 동일한 종류의 혐오감을 발견한다. 이는 관찰하는 주체와 관찰당하는 대상 사이의 분리를 무너뜨리는 찰나의 연대이다. ~~비록 오웰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언어적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마주침의 순간은 한 인간의 수난과 불행 앞에 동등하게 마주 선 오웰의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결국 이 묘사는 슬럼의 풍경을 통해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도 중산층과 다름없는 예민한 자의식과 불행에 대한 자각이 있음을 증명하며 윤리적 공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윌리엄스 또한 오웰의 ‘우리’와 ‘그들’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면서도 오웰의 글에 담긴 양가적 가치를 인정한다. 오웰은 “특정 노동계급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모든 노동계급 행동에 대한 관찰이라고 너무 쉽게 가정”했다는 면에서는 성급한 일반화를 보였지만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추상적인 좌파 작가들보다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Williams 1960, 312)

또한 오웰은 자신의 경험이 완벽하게 윤리적인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최하층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지속하면서, “계급을 가르

공감능? 242p.
공감능이 리얼
242p.가?
오웰은
공감능 관찰가?
이유가?
이유가?

? X
비판적
자각인이
지닌

관상형으로 아님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느낌을
기대. (관상형은
관상형은
관상형?)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부랑자들의 따분한 하류세계에서 나는 해방감과 모험심을 맛보았다.”(RWP 142)지만 이것이 “터무니 없는 감정”(RWP 142)이라고 고백한다. 오웰은 본래 자신이 속한 계층이라는 안전한 삶을 잠시 치워두고 의도적으로 빈곤을 경험해본 것에 불과하다. 오웰의 경험은 자신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체험이다. 실제 빈곤은 생존을 위한 굴레이다. 실제 최하류층은 선택의 여지없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오웰은 이어서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부랑자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계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껏해야 자신의 계급적 편견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뿐”(RWP 143)이라고 쓴다. 개인적인 편견의 정화일 뿐 계급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오웰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감정적
이런게
계급해소
하냐?
누가 그래.

인사가 생각되나?

오웰의 윤리 의식은 주택의 열악한 상황과 글을 쓰는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오웰이 당시 목격한 주택들의 상황은 매우 비참했다. 이 산업 지대들에서는 집 자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어떤 조건이든 참아야 한다. 즉 “외진 슬럼 한구석에 살아도, 벌레가 우글거리고 바닥이 썩고 벽에 금이 가는 비참함을 겪어도, 노랑이 집주인에게 갈취당하고 중개인에게 공갈당해도”(RWP 47) 전부 참아야 한다. 그는 탄광촌의 집들을 답사하고 위건, 셰필드, 반즐리의 주거지들에 대한 핵심사항을 기록한다. 여기에는 주택형태, 주거면적, 창문의 개폐 여부, 화장실과의 거리, 주택 사용 적합성 여부, 집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가족 수, 각종 요금, 침대 수, 집세 등이 적혀 있다. 상세한 기록 안에 보이는 열악한 사례들은 다채롭다(RWP 48-51). 어떤 집은 화장실이 45미터 떨어져 있고, 어떤 집은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택이지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어떤 집은 8인 가족이 침대 4개로 살고 있다. 또 어떤 집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고 가스가 새는 위험한 경우도 있으며 계단 가까운 방에 문이 없고 계단 난간이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자칫하면 3미터 아래로 구를 수 있는 집도 있다. 살만하지 못한 거주 환경이 제공된 전부였고 이에 적응한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사실상
사실상

오웰은 “지붕이 샘, 혹은 여덟 식구에 침대 넷이라는 찝막한 문구가 전부 담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실재한다고 말하며 “글이란 게 이렇게 미약한 것”이라

8세기 정치경제학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이 통치술은 자유를 방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유를 생산하고 조직화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주력한다(푸코 2012, 101). 동시에 “자유를 생산한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제한, 관리, 강제, 협박에 기초한 의무 등의 확립을 함의”(푸코 2012, 102)한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자유를 전제로 작동하지만 이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구성된 자유를 말한다. 시장, 시민사회, 법적 권리 등이 자유의 공간을 만들고 개인은 그 안에서 자율적 주체로 행동하도록 유도된다.

자유주의적 통치는 직접적인 개입 대신 사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며 자유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 메커니즘(security mechanism)을 가동한다. 푸코는 “주권이라는 낡은 정치체계 내에서 주권자와 신민들 간에는 주권자에게 신민을 보호하도록 책임지우고 강제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사법적, 경제적 관계가 존재”(2012, 104)했지만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보호’는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통치성 안에서는 개인에 대한 외적 보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이 개인에게도 집단에게도 위험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절대적 요청에 대해 안전의 전략이 응답해야 한다는 것”(푸코 2012, 104)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어떤 메커니즘의 내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험이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매 순간 조정해야만 하게 될 것”(푸코 2012, 104)이다.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작하는 통치기술이라면, 이것은 동전의 이면 같은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가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안전과 자유에 입각해 성립된 메커니즘까지 관리”(푸코 2012, 104)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자유주의 통치성과 안전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안전의 전략, 이것은 이른바 자유주의의 이면 혹은 조건 그 자체입니다. 자유와 안전, 자유와 안전의 작용.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그 일반적 특징을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통치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유와 안전,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에 고유한 권력의 경제라고 불릴 수 있을 것에 관한 문제들을, 말하자면 내부로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104)

이러한 논리는 복지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자유주의 통치성 안에서 복지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복지국가는 인도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인구의 재생산과 노동력 유지를 위한 통치합리성의 산물이다. 이를테면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공중보건은 생산적 인구의 보존을 위해 중요하다.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안전과 복지는 단순히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최적화하고 자율적 주체를 생산하는 통치 기술로 기능한다. 안전은 위험의 소멸이 목표라기보다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가려내는”(푸코 2011, 103) 식으로 관리 가능한 순환을 목표에 두며 복지는 자유의 조건이자 동시에 자유의 위협이라는 역설적 위치를 갖게 된다.

바로 이 역설이 오웰의 관찰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자체 주택(corporation housing)에 대한 오웰의 관찰과 서술은 통제 속의 자유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지자체 주택들은 슬럼 문제(63)를 해결하고자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 1930년대 초 실업의 급증으로 많은 가구가 실업수당과 지방정부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주거 안정이 다시 중요한 복지 의제로 떠올랐다. 당시 영국 정부는 주거 안정과 노동자 계급의 안전한 삶을 위해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택을 지어 보급한다. 지자체 주택은 슬럼보다는 낫지만 “아주 조금만 더 나은 정도”(RWP 67)이며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무자비하고 무정한 무언가”(RW

63) 피터 홀(Peter Hall)의 『내일의 도시』(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in the Twentieth Century) 제 2장에는 19세기 슬럼도시에 대한 대응이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의 예를 통해 소개되어 있다. 중산층이 슬럼을 폭력과 반란, 부도덕, 일탈 등의 장소로 인식하면서 슬럼의 잠재적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자체 주택의 건설이 시작된다.

P 66)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 주택에 입주했을 때 당하는 제약들을 생각해보자. 그런 단지에서는 집과 정원을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일부 단지에서는 모든 정원에 같은 종류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가금류나 비둘기를 기르는 것도 안 된다. 요크셔의 광부들은 집비둘기를 기르기 좋아하며, 뒷뜰에 두고서 일요일이면 풀어놓고 경주를 시키곤 한다. 하지만 비둘기는 지저분한 새이니, 지자체에선 당연히 사육을 금지한다.

Take, for instance, the restrictions with which you are burdened in a Corporation house. You are not allowed to keep your house and garden as you want them - in some estates there is even a regulation that every garden must have the same kind of hedge. You are not allowed to keep poultry or pigeons. The Yorkshire miners are fond of keeping homer pigeons; they keep them in the back yard and take them out and race them on Sundays. But pigeons are messy birds and the Corporation suppresses them as a matter of course. (RWP 66)

표면적으로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제공은 노동자를 규칙에 따르는 관리가 가능한 거주자로 재정의하는 권력 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위생과 효율성을 위해 슬럼가를 허물고 사람들을 신축 주택 단지로 이주시킨다. 그래서 지자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규칙과 제약을 따르며 관리가 용이한 거주자라는 범주로 재정의된다. 광부들의 여가를 위한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더러운 비둘기를 키울 수는 없다. 여기서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가는 노동자를 강제 수용하지 않는다. 주택을 제공하고 노동자는 자유롭게 입주한다. 그러나 입주의 순간 그 자유는 이미 정해진 행동 양식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로 축소된다. 자유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자유의 범위를 획정하고 그 경계 밖의 삶의 양식을 비위생적, 비합리적인 것으로 배제하는 통치 행위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니콜라스 로즈(Nikolas Rose)의 지적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로즈는 자유가 통치의 목표인 동시에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

이 명확히 한다.

자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항상 자유에 따라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특정 방식의 발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개인성의 가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특정 방식을 비판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권력 전략이 생산하려고 하는 바이기도 했다. 자유주의의 중요성은 모든 시민의 권리로서 자유를 처음으로 인식·정의하거나 옹호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미는 처음으로 통치의 기술이 자유의 실천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점에 있다. 자유는 정부의 목표였고, 자유는 정부의 수단이었으며, 자유는 통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의 발명에 영감을 주었다. (Rose 1999, 67)

로즈의 이 언명은 지자체 주택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주거의 자유는 정부의 목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노동자를 위생적이고 규율화된 주체로 생산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기도 했다. 그래서 오웰은 “자유는 언제나 긴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지저분한 것”(RWP 67)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 통찰은 자유주의 통치가 표방하는 자유가 실제로는 통제의 또 다른 형태임을 고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오웰은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글을 썼지만, 자유를 바탕으로 한 통치가 자유를 제한하는 역설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탄광촌에 대한 관찰로부터 복지 제도를 고발하는 전환이 오웰이 단순한 사회 고발을 넘어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을 포착하는 지점이다.

이는 오웰이 국가의 더 많은 개입을 통한 더 포괄적이고 개선된 정책적 요구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남길 수 있었던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번듯한 집을 짓는 주택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주민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슬럼 거주민들을 번듯한 집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의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그들이 누려온 자유의 마지막 흔적까지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들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며, 새집이 (집 자체로서는 그들이 살던 곳보다 훨씬 낫지만) 좁고 불편하고

왜 자각
자유가
등장하는지?

오웰이
진정한 의미로
했나?

진정한 의미로 자유는 포기해도 되나?

고 거기다 극빈층과 이런저런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영국에서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500만 명 정도일 것이라는 계산”(RWP 69)을 했다. 그런데 실업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며 이러한 예상이 “엄청난 과소 추정”(RWP 69)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실업 수당을 타는 이들이 실업 통계에 포함되고 계산되는데, 그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실상 가정 내에서 피부양자들은 별도의 수당을 타지 않는 한 수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못 먹는 인구는 족히 1천만 명을 넘을 것”(RWP 70)이며 위건의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실업수당으로 살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RWP 70). 당시 통계의 공식 수치가 현실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웰은 나아가 실업⁶⁴⁾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대응 방식이 내포하는 모순을 분석한다. 영국 정부는 실업수당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931년 민즈테스트(Means Test)⁶⁵⁾, 즉 신청자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사는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조금의 기미만 보여도 실업수당을 거부”(RWP 72)당하는 결과를 낳았고, 더 나아가 노년의 연금생활자가 자녀 가정에 함께 살 경우 자녀의 실업수당이 삭감되어 70대 노인이 하숙집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 이산가족 사태를 만들어냈다(RWP 73). 삶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복

64) 당시 만연한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 정부는 1920년 도울(dole)이라는 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 후 6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실업수당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931년부터 자산과 소득 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실업수당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크기를 조사해서 정부 지원금액을 정한다는 취지였다. 자산과 소득의 실제 크기를 조사하는 이 제도는 민즈테스트(Means Test)라 불렸는데 많은 영국인들이 이에 대한 큰 반감을 품게 되었다. 저축해놓은 돈이 조금 있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청소년이어도 약간의 소득이 있을 경우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등은 정부 지원금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많은 가구들에서 피아노 같은 가보를 처분해야만 했고, 정부 지원금 신청 전에 저축해 놓은 돈을 다 써버려야 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이 많은 가정의 자존심을 훼손했고 자산 소득 조사 공무원은 종종 몰인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실업자들은 민즈테스트에 반대하며 런던으로 행진하는 헝거 마치(Hunger Marches)를 벌이기도 할 정도였다.

65) 오웰 역시 민즈테스트에 대한 실태를 서술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 자산 소득 조사는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조금의 기미만 보여도 실업수당을 거부”(RWP 72)당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나절씩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부두 노동자는 매일 두 번씩 직업안정소로 가서 서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The Road to Wigan Pier 72). 그렇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오웰은 이어서 자산조사가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언급한다(RWP 73). 노년의 연금생활자가 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산다면 자산 조사는 그를 하숙인으로 규정하고 자녀의 실업수당을 삭감한다. 그래서 70대의 노인이 진짜 하숙집으로 나가 살면서 하숙집 주인에게 자신의 연금으로 하숙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RWP 73).

왜 이것은
자녀들에게
과한 시가
실업수당
인가?
경!

지 제도가 역설적으로 가족 해체라는 더 큰 배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오웰이 포착하는 복지제도의 깊은 함정은 제도적 결함에만 그치지 않고 복지제도가 생산하는 수치심의 내면화에 있다. 당시 중산층은 노동계급에 대해 실업수당이나 타먹고 사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썼으며, 그런 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RWP 79). 오웰은 자신이 빈곤 계층과 어울려보았던 경험을 에세이 「스파이크」("Spike", 1931)나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삶』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자신이 처음에 부랑자나 걸인으로 인지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젊고 번듯한 광부와 면직공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은 기억”(RWP 79)을 언급한다. 실직에 의해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가 걸인으로 급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변화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충격 때문에 노동계급은 “뒹에 걸린 짐승처럼 놀라고 멍한 상태로 자신의 운명을 방관”하게 되며,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맞는다(RWP 79).

나는 노동 계급의 처지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실업에 관한 통계를 본 적은 있었으나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부끄러울 것 없는 빈곤도 늘 최악의 수모를 당한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평생토록 꾸준히 일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착실한 노동자의 끔찍한 운명, 이해할 수 없는 경제 법칙 때문에 그가 겪는 모진 고통, 가족의 해체,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수치심, 이런 것은 내 경험의 범위 밖에 있는 일이었다.

But I knew nothing about working-class conditions. I had read the unemployment figures but I had no notion of what they implied; above all, I did not know the essential fact that 'respectable' poverty is always the worst. The frightful doom of a decent working man suddenly thrown on the streets after a lifetime of steady work, his agonised struggles against economic laws which he does not understand, the disintegration of families, the corroding sense of shame all this was outside the range of my experience. (RWP 139)

이에 더불어 중산층의 무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노동계급 자신에게도 스며든다”(RWP 79). 중산층의 편견이 노동 계급의 인식으로 내재화되어 자괴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업은 당신 ‘개인’에게 닥친 재앙이었으며, 그것은 당신 ‘자신’ 탓이었던 것이다”(RWP 79). 오웰은 실업자들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실업을 수치스러워한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한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이 수치심의 내면화야말로 오웰이 비판하는 통치의 가장 정교한 결과다. 외적 강제 없이도 개인이 자신의 처지를 개인적 실패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 구조는 복지 제도의 설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오웰의 비판은 통계가 실업의 현실을 가리는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심화된다. 오웰의 통찰은 통계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인식을 거론하며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25만 명의 광부가 실업을 당한다고 할 때, 뉴캐슬 뒷골목에 사는 광부 앨프 스미스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일종의 순리라 볼 수 있다. 앨프 스미스는 단지 25만이란 숫자 가운데 하나, 말하자면 하나의 통계 단위일 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의 통계 단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 길 건너 사는 버트 존스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한, 앨프 스미스는 스스로를 불명예스러운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무슨 의미?

When a quarter of a million miners are unemployed, it is part of the order of things that Alf Smith, a miner living in the back-streets of Newcastle, should be out of work. Alf Smith is merely one of the quarter million, a statistical unit. But no human being finds it easy to regard himself as a statistical unit. So long as Bert Jones across the street is still at work, Alf Smith is bound to feel himself dishonoured and a failure. (RWP 79)

실업률이라는 수치에 따르면 어떤 광부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거의 순리처럼 보여야 한다. 실업을 겪게 될 확률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의 통계 단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RWP 79). 오웰은 통

계라는 추상적 수치가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고통을 소거해버리는 지점을 포착한다. 통계는 실업을 사회적 현상으로 객관화하지만 개인에게 실업은 건너편의 버트 존스와 비교되는 불명예스러운 실패이자 무력감과 절망이라는 실존적 재난으로 다가온다. 실업자들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수치화하여 보고해야 했다. 관료제는 가족 구성원 수, 수입, 심지어 가구의 가치까지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최소 생존 비용을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의지는 무시된다. 오웰은 이를 통해 실업자들이 겪는 굴욕감이 물리적 배고픔보다 더 크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오웰은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⁶⁶)과 마찬가지로 통계 조사가 영국 사회 상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Mechie 14).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복지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통계 조사를 사회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본 이유는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개인의 비참함을 응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신을 수치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웰의 날카로운 통찰이라 불릴 만하다. 통계는 실업을 사회적 현상으로 객관화하지만, 개인에게 실업은 건너편의 버트 존스와 비교되는 불명예스러운 실패이자 실존적 재난으로 다가온다. 실직한 광부가 자신의 실업을 개인적 실패로 받아들이고 수치스러워할 때, 국가는 어떠한 물리적 강제도 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지 제도라는 자유로운 신청 절차와 자산 조사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된다.

그러나 복지 제도의 설계를 위해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러한 지식에 힘입어 더 정교한 통치와 제약, 억압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언 해킹은 통계학의 역사를 다루며 1820년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기간을 비결정론이 막도래하려는 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기 통계 법칙을 사용해 어떤 현상을 예측하고 정리하고 설명하려 할 때 우연은 '길들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282). 어떤 영역도 "숫자의 쇄도, 결정론의 약화, 우연의 길들이기라고 부르는 사건

66)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로 그의 통계 조사 비판은 사회 비평 에세이 「차티즘」("Chartism")(1839)에 담겨있다. 칼라일은 당대 정치경제학자들이 통계 수치로 노동자들의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숫자는 인간의 실제 고통을 담지 못한다고 말하며 공리주의적 통계 접근을 비판한다. 칼라일은 차티스트 운동 자체가 공리주의적 공식에 반발한 노동 계급의 봉기라고 보았다.

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해킹 282-3). 해킹은 이 숫자의 쇠퇴가 산업화에 따라 시골에서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안전”이 요구됨에 따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해킹 286). 초기 도덕과학의 근본 원칙은 벤담주의적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불행을 측정하는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불행을 만들어내는 삶의 위험을 측정하고 대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계가 발전하고 변수가 관리되며 결정론적 인식이 약화된다는 사실이 더 많은 자유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킹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통계학을 통해 결정론이 약화되고 우연이 길들여졌지만 그것이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비결정론이 자유의지를 위한 여지를 창출한다는 주장은 공허한 웃음거리이다. 통계의 관료제는 행정적 지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분류체계를 결정함으로써 설립되는데, 사람들은 이 체계 속에서만 자신과 자신에게 개방되어 있는 행동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비결정론의 특징은 바로 이런 클리셰, 정보, 통제라 할 수 있다. 결정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제약의 가능성은 더욱 많아진다. (해킹 290)

해킹의 논의는 길들여지는 비결정론의 세계가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도리어 더 많은 제약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통계의 관료제가 분류체계를 결정하고 이제 사람들은 그 체계 안에서 자신에게 가능한 행동들을 선택한다. 이는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지만, 자유의 선택지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아니다.

안전 메커니즘이 동원하는 통계가 ‘사람들이 그 체계 안에서 자신에게 가능한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장면은 오웰이 광부들의 식생활 체계에 대한 분석을 가져올 때 드러낸다. 1930년대 영국에서는 임금, 사회보험, 공적 부조의 최저 기준을 수치로 제시하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개념이 제창되었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The Beveridge Report)는 이를 사회보장 정책의 구체적 목표로 삼아 최저 생활비를 명문화했다. 이 기획의 핵심 논리는 인간의 필요를 측정

가능한 단위인 칼로리, 단백질, 실링으로 환원함으로써 통치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통계에 기반한 자산 조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입 논의(67)로 이어졌다. 오웰은 실직한 광부와 그의 아내가 작성해준 생활비 예산(68)을 작품에 가져온다. 이 목록에는 집세부터 의복, 석탄, 가스, 우유, 노조 회비, 보험, 고기, 밀가루 등 모든 생계비가 적혀 있으나, 매달 구입하지는 않는 물품들 이를테면 구두약이나 소금, 면도날, 침구 등에 대한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식비에만 초점을 두어 정리하자면, “어른 둘과 아이 하나가 16실링으로 매주 식비를 지출하는데, 세 사람이 16실링으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한지”(RWP 86-87) 오웰은 묻는다. 당시 적정 식비에 대해 “어떤 영양학자들은 1인당 5실링 9펜스라는 주장을 했고, 다른 학파는 ‘후하게’ 5실링 9.5펜스라는 수치를 제시했다”(RWP 87), 오웰은 ‘후하게’라는 말을 강조하며 영양학자들의 주장을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이 논쟁을 역겨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어느 쪽이든 건강을 유지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적은 돈으로도 오렌지와 우유를 구입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완벽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설계해 보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돈으로 ‘자유롭게’ 설탕이 듬뿍 든 홍차와 튀김을 샀다. 통치의 시선은 이 선택을 “가정주부들의 무지(Jeacle 54)”로 해석하고 영양교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 오웰은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말한다. “값싼 사치”(RWP 81) 즉, 자극적인 음식, 저렴하지만 그럴듯한 옷, 도박, 축구는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심리적 생존의 기술이다. 비참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을 때 그 비참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합

67) 1930년대 후반 영국에서는 임금, 사회보험, 공적 부조 등에서 최저한의 보장을 결정할 때 지역,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국민으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개념이 제창된 바 있다. 이 개념은 국민생활 환경의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양, 주거, 생활 환경 등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수치로 제시하여 현재 생활 수준과 국민 기대 수준의 격차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어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The Beveridge Report)에서는 내셔널 미니멈을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비를 제시하게 된다.

68) 영국의 빈곤과 영양 문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가구주가 실업 상태였을 경우, 가구의 에너지 및 영양 가능성이 동시대의 근로 가구보다 현저히 낮으며, 에드워드안 조사자들이 빈곤 가구로 분류했을 가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Gazeley 108)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도 가정이 실업 상태였을 때 가구가 겪는 빈곤의 현실이 1901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에드워드 시대(Edwardian Era)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한 나라 안에 두 개 이상의 영국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Gazeley 109)이다. 계급적, 지역적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리적 선택이 된다. 도박이 “며칠간의 희망”(RWP 82)과 “삶의 이유가 되는 무언가”(RWP 82)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칼로리 계산표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충족시킨다. 통계는 인구를 가시화하되 그 인구를 구성하는 심리적 주체들의 내면을 배제함으로써 빈곤을 개인의 관리 실패로 귀속시키는 해석 틀을 재생산한다. 통계를 통해 생산된 정확히 계산된 수치를 반영한 식단이 설계되고 이 식단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수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체는 교정의 대상이 되고 수치에 저항하는 욕망은 무지로 치부된다. 통치의 합리성은 인간의 심리적 실재를 통치 불가능한 잉여로 추방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영양 섭취량과 열량 수치는 신체를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함으로써 빈곤을 관리 가능한 문제로 재구성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수치화되지 않는 개인의 심리는 밖으로 밀려난다. 달리 말해 통계는 대상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특정한 방식으로 불가시화하는 이중의 작용을 수행한다. 이 역설은 영양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웰은 실업 문제를 다루면서 통계가 현실을 은폐하는 작동 방식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파고든다.

이 역설적 구조야말로 오웰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전체에 걸쳐 직관적으로 포착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본질이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자유를 바탕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더 큰 권한, 개입, 권력으로 귀결된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규제하려는 통치의 과잉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지만 이제 자유는 권리라기보다 통치의 조건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국가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입 지점을 찾는다. 실업률 조사나 실업수당 같은 복지 체계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같은 복지 제공은 점점 더 커져가는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 “통계학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거대한 관료 기관이 탄생했으며 그러므로 통계학 자체를 근대 국가의 권력 테크놀로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옳다”(해킹 269)는 주장과 함께, 통계학이 끼친 중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푸코는 이에 대해 1942년 등장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계획은 발전된 복지 제도의 틀을 제시하지만 국가의 더 많은 권력과 관료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항상 더 많은 사회보장, 항상 더 많은 사회 관료주의, 항상 더 많은 소득의 혼란, 항상 더 많은 인지와 도장, 항상 더 많은 수당과 세금, 항상 더 많은 권력, 국내 소득과 책임을 국가가 수중에 넣도록”(푸코 2012, 269) 유도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며 모든 것을 집중화시키고 통제함

통계의
부자유
문제.

문장!

으로써 사회에 대해 더욱 중앙화되고 중산층에 해로운 행위, 즉 프롤레타리아화와 국가화 행위라는 특정하고 유일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국가”(푸코 2012, 269)로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담당하는 복지의 함정을 역설한다.

오웰이 비판하는 복지 제도의 함정과 통계에 대한 거부감은 복지의 역설을 정확히 짚는다. 『1984』에서 윈스턴이 “온전한 정신은 통계와 상관없어”(NEF 248)라고 중얼거리고 이 말이 심오한 진리라고 느끼며 자신감을 회복하듯 통계와 인식론은 정합적 관계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윈스턴은 소수일 것이 분명한 불분명한 동료들의 존재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의 저항을 지속한다. 반면에 확률상 높은 가능성으로 일어나는 실직을 겪은 광부는 자신감을 잃고 절망에 빠진다. 다시 말하자면, 통계적으로 작은 수치에 불과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신념을 바꿀 만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통계적으로 절대적 다수임을 증명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오웰의 통계에 대한 거부감은 통계라는 도구가 개별적 진실의 무게와 고유한 서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로버트 피어스(Robert Pearce)의 연구는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역사적 자료로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피어스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 면밀하게 조사된 수많은 연구들을 탄생시켰고, 이를 통해 실업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산업에서 일했는지, 나이는 대략 몇 살일 것인지 등을 밝혀내 전형적인 실업자의 프로필을 구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다(410). 그러나 그런 ‘전형적인’ 수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했던 것은 오직 현실 속의 혈육과 살을 가진 개인들뿐이었다(410). 따라서 역사가들이 종종 비인격적이고 때로는 건조한 통계 조사에서 벗어나 문학인의 개인적이지만 종종 특이한 인상에 주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는, 이 작품이 1930년대 영국 탄광 지대의 빈곤을 기록한 르포르타주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오웰은 광부들의 노동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참여적 방법론을 통해 복지 제도가 표방하는 안전의 보장과 실제로 작동하는 통계의 메커니즘 사이의 간극을 포착한다. 주거 복지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지자체 주택의 규정, 실업 구제 과정에서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민즈테스트의 역설, 통계적 수

이런 것들은 보장하려고
것 아니냐?

치가 개인의 실존적 고통을 소거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더 큰 통제를 작동시키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 모순을 드러낸다. 오웰은 이 모순을 이론적 언어가 아닌 살아 있는 인간의 삶을 통해 증언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통치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강. 너무 번드르르 해서

송영이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오웰이 포착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은 결국 하나의 구조적 아이러니로 수렴된다. 국가는 복지 제도라는 안전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동시에, 바로 그 제도를 통해 그들의 자율성과 자유를 제한한다. 지자체 주택의 규정은 일상을 조율하고, 민즈테스트는 수치심을 내면화시키며, 값싼 위안은 분노를 소비의 쾌락으로 분산시킨다. 자유를 명분으로 설계된 제도가 역설적으로 더 촘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웰의 문학적 통찰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는다. 『숨 쉴 곳을 찾아서』는 이 자유주의 통치성의 구조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과 안전의 원리를 바탕으로 통치를 구성하는데, 이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개인은 국가의 수혜자로 예측되는 대신 스스로를 경영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재구성되도록 유도된다. 오웰이 1939년에 발표한 『숨 쉴 곳을 찾아서』는 바로 이 전환의 징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왜 강제
자유주의
기억 남는
자?

이런 특성적인
복합적인
제도가
있나?
제도 분석이

(2) 『숨 쉴 곳을 찾아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자기 경영 주체의 역설

앞서 살펴본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오웰은 자유주의 통치성이 복지 제도라는 안전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을 고발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주거 방식을 표준화하고, 실업을 통계적 수치로 환원한다. 자유를 전제로 한 통치가 결과적으로 더 깊은 부자유를 생산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 역설이었다. 그러나 이 역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형된다. 1937년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 국가 복지 제도를 통해 작동하는 자유주의 통치성을 다룬다면, 1939년의 『숨 쉴 곳을 찾아서』는 그 통치의 무게 중심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착한다. 자유주의 통

이론
발전
주제

치성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의 이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69)란 사실 이미 닳아빠지도록 사용한 낡은 경제 이론의 재활성화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란 자신을 통해 사회에 엄밀한 상업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 세 번째로 국가의 일반화된 행정적 간섭을 은폐하는 것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한다(189-90). 그럼에도 푸코는 신자유주의가 뭔가 다른 것이라는 설명을 이어가며 신자유주의는 “포괄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푸코 2012, 191)라고 말한다. 그는 1952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학설의 구성을 탐색하기 위해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푸코 2012, 147-48). 이론적 배경으로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담론과 미국 시카고 학파의 논의를 가져온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의 전환을 다루는 세 강의에 걸쳐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설명하며 복지가 의존을 만들어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재편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복지의 수혜자로부터 능동적, 기업가적 자아로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

이 이행의 핵심은 통치의 기술과 통치성을 통해 생산하는 주체성이 바뀐다는 데 있다.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국가가 복지 제도를 통해 개인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했다면,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 논리를 내면화한 자기 경영 주체를 생산함으로써 외부의 강제 없이도 스스로 통치에 복무하는 개인을 만들어낸다. 『숨 쉴 곳을 찾아서』의 주인공 조지 볼링(George Bowling)은 이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다. 볼링은 개인 스스로 품는 성공의 희망과 자기 계발의 논리 아래 아버지 세대가 끝내 적응하지 못했던 자기 경영적 주체로 변모하는 데 성

69) 푸코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첫째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란 이미 닳아빠지도록 사용한 낡은 경제 이론의 재활성화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란 자신을 통해 사회에 엄밀한 상업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 세 번째로 국가의 일반화된 행정적 간섭을 은폐하는 것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답변의 경우 그것은 기껏해야 재활성화된 애덤 스미스이고, 두 번째로 그것은 『자본』 제1권에 의해서 판독되고 고발됐던 상업사회 자체이며 세 번째로 그것은 국가권력의 일반화, 즉 지구적 규모의 술체니친”이다. 이 세 가지 비판적 독해는 신자유주의를 기존의 경제·사회·정치 범주 안에 가두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푸코는 이러한 환원적 해석을 거부하며, 신자유주의가 그 어느 것파도 걸치지 않는 고유한 통치 합리성을 구성한다고 본다. 푸코는 신자유주의가 뭔가 다른 것이라는 설명을 이어가며 신자유주의는 “포괄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한다. (2012, 189-90)

분열이야인가?

비평가의
인의 위험!

공한 듯 보이지만, 동시에 그 변모의 논리 전체를 냉소하는 분열적 시각을 잃지 않는다. 이 분열이야말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균열의 증거이며 오웰이 이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려 했던 통치성의 두 번째 역설이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작품의 기본 구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웰이 1939년 발표한 『숨 쉴 곳을 찾아서』의 현재 시점은 1930년대 후반, 주인공인 볼링은 1893년 출생했으므로 소설에서 현 시점 40대 중반의 남성이다. 그는 웨스트 블레츨리(West Bletchley)의 엘즈미어로(Ellesmere Road)를 채운 똑같이 생긴 집 중 하나에 살고 있고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다. 15년간 결혼생활을 해왔고 아내의 이름은 힐다(Hilda)이며 그들 사이에는 두 아이가 있다. 힐다는 재앙을 예견하는 데서 삶의 가장 큰 낙을 얻는 부류로서 전쟁, 지진, 전염병, 기근, 혁명같은 심각한 문제들에는 관심이 없다(CUA 10). 그녀의 근심거리는 버터값, 가스비, 아이들 부츠, 라디오 청취비 등인데 걱정이 있을 때마다 조지 볼링에게 “하지만, 조지, 정말 심각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어디서 돈을 구하냐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당신은 모르는 것 같네!”라는 말을 반복한다(CUA 10). 볼링은 자신을 억누르는 현실을 벗어나 조용한 평화를 누리하고자 하는데 기회가 다가온다. 우연히 경마에서 17파운드라는 돈을 딴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도 여정을 밝히지 않고 고향 로어 빌필드(Lower Binfield)를 향한다. 볼링이 시도한 비밀스러운 중년의 일탈은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 때문에 씁쓸한 충격이 된다. 마침 아내에게 일탈 시도까지 들리게 되어 곤란에 빠진 볼링의 모습을 끝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작품의 표면적 주제는 중년의 위기와 따분한 삶으로부터의 일탈이라 부를 수 있다. 볼링은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어린시절 낚시의 경험을 특별하게 회상한다. 여기서 낚시는 물론 과거에 대한 은유로 간주된다. 낚시를 통해 “오랫동안 잃어버린 평온함에 대한 막연한 기억”(Maxwell "Reflections")을 드러낸다. 상상 속의 젊음의 순수함을 현 시대로부터 되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주인공의 신낭만주의적 망상을 다루는 작품이라는 평이 있다(Maxwell "Reflections"). 이러한 비평은 『숨 쉴 곳을 찾아서』
주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았다고 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작품에 도사린 불안에 주목하여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감을 담은 작품이라는 평들도 있다. 레벤슨(Michael Levenson)은 오웰의 1930년대 소설들의 사실

주의적 경향을 강조하며 그의 작품들이 비참한 사회현실을 반영하며 “입박한 재앙에 대한 예감”(Levenson 59)을 담고 있다고 쓴다. 『숨 쉴 곳을 찾아서』은 『카탈로니아 찬가』와 『1984』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오웰의 정치적 사유가 비판적, 예언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Levenson 59). 텔렌(Robert J. Van Dellen)은 이 작품에 대한 연구를 “무력감의 정치학”(The Politics of Powerlessness)이라고 부르고 개인이 사회적, 정치적 변화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반영하면서 당시 영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과 권력 구조에 대한 은유적 비판을 담고 있다고 쓴다. 메이어스(Jeffrey Meyers)역시 『숨 쉴 곳을 찾아서』를 오웰의 ‘아포칼립스’라고 부른다. 이 작품의 배경에 그려진 급속한 산업화와 전쟁을 강조하면서 산업화, 전쟁, 전체주의의 위협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간적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강조하는 종말적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Meyers 69).

심각해!

레이(Patricia Rae)는 이 작품이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미래”(149) 과거에 대한 회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지만 향수를 추구하며 실패하고 귀가하는 결말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설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본다. 볼링은 “아마도 시골에서의 주말 휴식이 그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감각을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볼링도 오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중요성이 대한 믿음”(Rae 159)이다. 즉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을 지닌 진정한 자아를 지키려 애쓰며 사적인 추억을 간직하면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Rae 159). 그 역설적 진실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 대한 저항적 장치를 말한다. 작품을 비판적으로 보기보다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읽는 연구도 있다. 아네트 페데리코(Annette Federico)는 이 작품이 오웰의 “자유와 자기결정이라는 민주적 사회주의에의 정치적 헌신”(Federico 182)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이 소설의 해방적 잠재력은 기존 질서에 대한 명백한 반란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기술관료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거의 완전히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평범한 존재가 의미의 저장소로 존재한다는 믿음의 입장에서 비롯된다. “하위 중산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이고 미묘한 표현 사이의 문제를 묘사하기 때문에 정치적”(Federico 182)일 수 있다는 평이다.

분상!

아 이오 진정한, 사회적 개념, 의의 개념, 평범한 것.

위선적 자아, 가짜 자아

* 강박관념 개념.

? 무엇이야?

『숨 쉴 곳을 찾아서』는 오웰의 “사실주의적 소설 중 최고작”(Rodden 2020, 42)으로 불린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와 사회이 작품이 “온전한 상상적 실현보다는 뛰어난 기자적 특성”(Williams 1960, 309)고 말한다. 윌리엄스는 이 작품을 통해 오웰 자신의 관찰을 제공하고 독자들이 사실적인 실감을 느끼게 한다는 평을 강조하며 허구적으로 잘 짜여진 작품이라기보다 사실적인 보고에 가깝다고 판단한다(Williams 280). 이 작품의 소설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시대적 정황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무감!

이처럼 다양한 독해가 가능한 것은 이 작품이 중년의 감상적 서사라는 표면 아래 당대 사회의 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불링의 현재 거주지로부터 고향을 향하는 여정 모두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불안, 좌절, 감정을 내면화하는 일련의 밀폐된 개인 공간에 관한 소설”(Simon Goulding)으로 읽히며 작품의 배경에는 두 겹의 불안이 깔려 있다. 하나는 전쟁의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급속한 산업화의 충격이다. “여전히 스페인과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고”(CUA 11)라는 서술에서 현 시점에도 전쟁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으나, 불링에게 더 실질적으로 각인된 것은 세계 1차 대전 참전 경험이다. 그가 안식을 얻기 위해 찾아간 고향 로어 빈필드 역시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보니 “페루의 옛 도시들처럼 땅 속에 묻혀 사라져버린”(CUA 158) 상태로 산업화와 자본주의 확대에 따른 불안이 공간의 변형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작품이 “산업의 존재와 이윤의 확장”(Federico 184)을 배경으로 불링이 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불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평의 맥락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경관에서 핵심 수식자는 자본 권력의 지위이며, 불링이 일하고 거주하는 상업 세계(보험)를 통해 자본의 존재가 표현된다((Property)이다(Simon Goulding 리터러리 런던)”. 불링이 “꿈꾸는 ‘황금의 나라’는 자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력에 의해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는”(Rae 150) 공간이다.

무감!

불링이 경험하는 불안에는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 체계가 놓여 있다. 불링이 가공 소시지를 먹는 장면은 이 체계 전반에 대한 풍자로 읽힌다. 이윤을 위해 더 값싼 물건들이 만들어지지만 과정과 내용물이 의심스러운 제품들에 대한 불링의 불만이 의식으로 표현된 장면이다.

나는 여전히 혀로 소시지를 이리저리 굴리며 어디다 뱉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독일의 식품 공장들이 엉뚱한 재료로 모조 식품을 만든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에르자츠(대용품이라는 뜻의 독일어)라고 했던가. 내 기억으로는 놈들이 생선으로 소시지를 만들고, 아니나 다를까 생선도 다른 무언가로 만든다고 했다. 현대 세계를 한입 베어 물었다가 그 속에 든 진짜 내용물을 알게 된 느낌이었다. 요즘은 다들 이런 식이다. 모든 것이 유선형으로 매끈하니 잘 빠져 있으며, 모든 것이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진다. 사방에 셀룰로이드, 고무, 크롬강이 널려 있고, 밤새도록 아크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머리 위에는 유리 지붕이 덮여 있고, 라디오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곡을 틀어대고, 초목은 모조리 사라지고, 모든 것에 시멘트가 깔리고, 중성 과일나무 아래에서는 모조 거북이들이 풀을 뜯고 있다. 하지만 본질로 파고들어 단단한 무언가, 이를테면 소시지 같은 것을 깨물어 보면 이런 풀을 당하게 된다. 고무 껍질 속에 든 썩은 생선. 입속에서 터지는 더러운 폭탄.

I was still rolling the stuff round my tongue, wondering where I could spit it out. I remembered a bit I'd read in the paper somewhere about these food factories in Germany where everything's made out of something else. "Ersatz", they call it. I remembered reading that they were making sausages out of fish - and fish, no doubt, out of something different. It gave me the feeling that I'd bitten into the modern world and discovered what it was really made of. That's the way we're going nowadays. Everything slick and streamlined, everything made out of something else. Celluloid, rubber, chromium steel everywhere, arc lamps blazing all night, glass roofs over your head, radios all playing the same tune, no vegetation left, everything cemented over. mock turtles * grazing under the neutral fruit trees. But when you come down to brass tacks and get your teeth into something solid, a sausage for instance, that's what you get. Rotten fish in a rubber skin. Bombs of filth bursting inside your mouth. (CUA 44-45)

볼링이 소시지를 맛보는 이 장면은 자본주의 상품 생산 체계 전반에 대한 날

카로운 풍자로 읽을 수 있다. 그는 소시지를 먹는 행위가 “현대 세계를 한입 베어 물었다가 그 속에 든 진짜 내용물”을 알게 되는 듯 하다고 말한다. 소시지는 식용 고무 껍질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볼링이 먹는 소시지는 ‘고무 껍질 속에 든 썩은 생선’이다. 이는 외양과 실질의 괴리를 보여주는데 소시지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이 이렇다. 그래서 볼링은 요즘은 모든 것이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상품이 그 내용물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주의 상품이 교환가치를 위해 사용가치를 희생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셀룰로이드, 고무, 크롬강으로 가득 하며 똑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초목이 사라지고 시멘트가 깔리는 세계에 대한 묘사는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산업 문명이 만연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의 공포와 급속한 산업화라는 이중의 불안 속에서 볼링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상품 생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웰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만큼이나 파시즘과 기업 국가, 혹은 지금 관리된 개입적 후기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명확하게 지적”(Williams 2007, 22)했다고 말한다. 이는 오웰이 볼링의 소시지 먹는 장면을 통해 언급하듯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숨 쉴 곳을 찾아서』는 볼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엘즈미어로의 똑같이 생긴 주택들에 대한 불만 어린 사색으로 시작한다. 볼링은 작품의 초반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주택금융조합 제도와 이 과정을 통해 지어진 주택, 그리고 그 거주자들의 현실을 뼈뺀 눈으로 바라본다. 볼링은 “엘즈미어로와 거기서부터 중심가까지 이르는 주변 구역은 헤스페리데스 주택단지, 즉 치어폴 신용 주택금융조합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CUA 14)에 속해있다고 생각한다. 볼링은 엘즈미어를 포함한 헤스페리데스 주택단지를 건설한 치어폴 신용 주택금융조합(70)을 거대한 사기극(71)이라고

70) 여기서 영국 주택금융조합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영국 주택금융조합은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 노동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는 주택금융조합의 급격한 성장이 있었으며 이는 주택 금융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는 모기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적인 주택금융 제도가 뉴딜 주택금융 개혁 입법을 통해 확립되었는데,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국가 개입의 추세가 나타났다. 1932년 이후 국민 정부의 민간 주택 기업 정책으로 인해 주택금융조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와 주택금융조합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1939년 주택금융조합법 제정을 통해 공고해졌는데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과 남동부 잉글랜드에서

부른다.

그래서 블링은 “주택금융조합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가장 영리하게 부정한 돈벌이”(CUA 14)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험업도 사기이지만, 보험업의 사기가 “가진 패를 다 보여주는 노골적인 사기”(CUA 14)인데 반해 주택금융조합의 사기에는 더 교묘한 면모가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조합이 벌이는 사기의 대단한 점은, 피해자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한 방 먹인 자들의 손을 핥는다. 가끔 나는 헤스페리데스 주택단지에 주택금융조합의 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조각상이라도 세우고 싶어진다. 그 신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양성일 것이다. 상체는 기업의 임원, 하체는 임신한 아내. 한 손에는 거대한 열쇠—물론, 구빈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한 손에는—선물을 뽑아내는 프렌치호른처럼 생긴 걸 뭐라 부르더라? 풍요의 빨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 빨에서는 휴대용 라디오, 틀니, 아스피린, 콘돔, 튼튼한 정원용 롤러가 쏟아져 나오리라.

But the beauty of the building-society swindle is that your victims think you're doing them a kindness. You wallop them, and they lick your hand. I sometimes think I'd like to have the Hesperides Estate surmounted by an enormous statue to the god of building societies. It would be a queer sort of god. Among other things it would be bisexual.* The top half would be a managing director and the bottom half would be a wife in the family way. In one hand it would carry an enormous key -the key of the workhouse, of course - and in the other... what do they call those things like French horns with presents coming out of t

의 모기지 파업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주택금융조합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숨 쉴 곳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주택금융조합 단지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71) 주택 문제를 둘러싼 '사기극'에 대해 가장 잘 조명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이다. 데이비드 하비의 저서 『반란의 도시』 2장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동원하는 국가 제도적 뒷받침을 분석하고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된 시장은 저절로 사기성을 띠게 된다는 논의를 담는다. 또 하비는 대담을 통해 주택 위기를 통한 자산증식이 “자산가치를 강도같은 수법으로 인구 한 부분의 호주머니에서 다른 부분의 호주머니로 옮겨놓는 과정”이며 이는 “약탈에 의한 축적”으로 마르크스가 말한 ‘본원적 축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하비, 백낙청 39). 흥미로운 점은 주택을 둘러싼 사기적 성격이 하비의 분석 대상보다 훨씬 앞선 오웰의 작품에서도 일부 감지된다는 점이다.

hem?... a cornucopia, out of which would be pouring portable radios, life-insurance policies, false teeth, aspirins, French letters* and concrete garden rollers. (CUA 14)

볼링이 그리는 '주택금융조합의 신' 형상은 이 교묘한 사기의 구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그 신은 가장 성공한 중산층 직장인 가장과 가정 안에서 출산하고 양육하고 살림하는 아내의 두 이미지를 결합해 완성된다. 그런데 신은 구빈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들고 있어서 중산층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볼링이 살던 영국의 당대 현실에 여전히 구빈원 제도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구빈원에서 최후를 맞이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회고를 보면 억측이 아닐 것이다. 또한 주택금융조합의 신은 다른 손에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산층의 삶을 구성하는 평범하지만 상징적인 사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주택금융조합의 신'에 대한 묘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 형상이 기업의 임원과 임신한 아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착취 대상이 공식 노동 영역의 남성 가장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 내 비공식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을 포함한다는 오웰의 인식을 드러낸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사회적 재생산 이론이 밝히듯 자본주의적 생산은 임금 노동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출산, 양육, 가사 등 무임금으로 착취되는 재생산 노동에 의해 뒷받침된다. 레오볼디나 포르투나티(Leopoldina Fortunati)가 『재생산의 비밀』에서 지적하듯 가정주부의 노동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여성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억압은 결국 자본 축적에 필수적인 구조적 조건을 이룬다(60-79). 낸시 프레이저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라 규정한 사회적 재생산 즉, 공식적 경제 바깥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새로운 세대를 낳고, 돌보고, 사회화하고, 교육하는 일”(369)을 포함하는 착취 구조가 이 조각상 하나에 응축되어 있다.

주택금융조합의 착취 구조는 재정적 층위에서도 면밀히 작동한다. 엘즈미어로 사는 거주자들은 집값을 다 내고도 집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가진 것은 자유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작용 없게끔?
임차권

자유 \$ = 개인도 사재인것
자유까지
인식에서.....

임대!

사재 소득
사재 비용
사재 과세

사실 엘즈미어로에 사는 우리는 집값을 다 내고도 집주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자유 보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6년에 걸쳐 550파운드를 지불해야 하고, 일시불로는 약 380파운드에 살 수 있는 수준의 집들이다. 이렇게 따지면 치어폴 신용은 170파운드의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380파운드에는 건축업자의 수익이 포함되는데, 치어폴 신용은 윌슨 앤드 블룸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집을 지어 건축 회사의 수익까지 챙긴다. 자재비만 대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재에 대한 수익 역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브룩스 앤드 스캐터비라는 이름으로 벽돌과 타일, 문, 창틀, 모래, 시멘트, 아마 유리도 직접 팔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명으로 문과 창틀을 만들 목재까지 판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

As a matter of fact, in Ellesmere Road we don't own our houses, even when we've finished paying for them. They're not freehold, only leasehold. They're priced at five fifty, payable over a period of sixteen years, and they're a class of house which, if you bought them for cash down, would cost round about three eighty. That represents a profit of a hundred and seventy for the Cheerful Credit, but needless to say the Cheerful Credit makes a lot more out of it than that. Three eighty includes the builder's profit, but the Cheerful Credit, under the name of Wilson & Bloom, profit. All it has to pay for is the materials. But it also scbuilds the houses itself and scoops the builder's oops the profit on the materials, because under the name of Brookes & Scatterby it sells itself the bricks, tiles, doors, window frames, sand, cement and, I think, glass. And it wouldn't altogether surprise me to learn that under yet another alias it sells itself the timber to make the doors and window frames. (CUA 14-15)

당시 “110만 채의 공영주택 중 50만 채는 민간 기업들이 건설했다”(Rose 2007, 36)는 기록을 보면, 민간 기업들이 이 구조를 통해 확실한 이윤을 형성했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택금융조합은 주택을 만들어 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의 판로를 만든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관리하는 신용회사는 건축 회사

를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집을 판매함으로써 건축회사의 이익을 챙긴다. 동시에 모든 종류의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만들어 자신들이 제공한 자재로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자재회사의 이익 역시 챙긴다. 체인형의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 본사들이 인테리어 자재나 휴지통 하나까지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물품을 사게함으로써 커피나 아이스크림이라는 판매상품 이외의 물품에서도 수익을 함께 올리는 것과 같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약탈에 의한 축적”(하비, 백낙청 41)이라고 명명한 것, 즉 자산가치를 강도같은 수법으로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 이미 1930년대 영국의 교외 주택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링의 통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기가 완전히 폭로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다. 불링은 주택금융단지의 과거 모습을 회고한다. 그가 살고 있는 엘즈미어로의 주택단지가 처음 조성되었을 때 “플랫의 초원”(CUA 24)이라는 이름의 공터가 있었는데 멋진 곳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놀기에는 좋은 공간이었다. 이 플랫의 초원에 건물을 짓지 않고 아이들이 노는 공간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으나 이 교외는 성장 중인 곳이었다. 즉 공장이 지어지고 인구가 늘고 집세가 올라가고 이러한 성장에 발 맞추어 치어폴 신용은 플랫의 초원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 모두 심한 충격을 받은”(CUA 24) 사건이었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크럼의 변호사들은 5분 만에 우리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고, 플랫의 초원에 건물들이 세워졌다. 하지만 크럼에게 준남작 지위가 마땅하다고 느끼게 하는 정신적 사기야말로 정말 교묘한 사기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위 국가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헤스페리데스 주택단지 같은 곳에 사는 우리 가난한 명칭이들은 영원히 크럼에게 충성하는 노예가 되어버린다. 우리 모두 비정한 집주인들, 그러니까 토리당 지지자, 에스맨, 아첨꾼이다.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찰 순 없다! 실제로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고, 집값을 계속 내는 중이며, 마지막 할부금을 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를 더욱더 노예로 만들 뿐이다. 우리 모두 팔렸다, 그것도 우리 돈을 내고, 전망이 아예 없고 벨이 울리지 않아서 벨 뷔라 불리는 벽돌 인형 집에 제값의 두 배를 내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혹사당하는 가난뱅이들-볼셰비즘⁷²⁾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서 죽을 가난한 호구들.

No use! Crum's lawyers had knocked the stuffing out of us in five minutes, and Platt's Meadows were built over. But the really subtle swindle, the one that makes me feel old Crum deserved his baronetcy, is the mental one. Merely because of the illusion that we own our houses and have what's called "a stake in the country", we poor saps in the Hesperides, and in all such places, are turned into Crum's devoted slaves for ever. We're all respectable householders that's to say Tories, yes-men and bum-suckers. Daren't kill the goose that lays the gilded eggs! And the fact that actually we aren't householders, that we're all in the middle of paying for our houses and eaten up with the ghastly fear that something might happen before we've made the last payment, merely increases the effect. We're all bought, and what's more we're bought with our own money. Every one of those poor downtrodden bastards, sweating his guts out to pay twice the proper price for a brick doll's house that's called Belle Vue because there's no view and the bell doesn't ring every one of those poor suckers would die on the field of battle to save his country from Bolshevism.(CUA 24)

주택금융조합의 교묘함은 거주자들에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라는 주체성을 판매한다는 데 있다. 이 주체성을 구매한 거주자들은 스스로를 채권자가 아닌 자산 소유자로, 착취당하는 임차인이 아닌 사회에 지분을 가진 시민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불령이 신랄하게 지적하듯, 이들은 자신들을 수탈하는 바로 그 체

72) 볼셰비즘(Bolshevism)은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나타난 급진적인 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을 말하며 '철저하게 혼란된 소수의 혁명가 집단이 앞장서서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혁명론을 지닌 집단을 말한다. 1912년 출간된 언윈의 소책자 과밀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Nothing Gained by Overcrowding! 에 담겨있던 주택 양식은 소규모 연립주택 시대의 도래를 선도했다. 아무것도 장관회의에서 소개된 일화가 있다. 한 광부가 자신들에게 충고하러 온 부유한 사람에게 "하수도가 거실을 통과하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에 그 부유한 자는 "볼셰비키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한다. 한 지방정부성 정무차관은 "우리가 주택에 지출해야 할 돈은 볼셰비즘과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료와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피터 홀, 내일의 도시) 열악한 주택상황을 보면 볼셰비키의 일원이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부유한 이가 인정할 정도지만 엘즈미어로에 살고 있는 이들은 볼셰비즘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느라 죽을 호구들로 그려진다.

체의 수호자가 되어 "불세비즘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서 죽을" 준비가 된 존재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헤스페리데스 주택단지에 대한 불링의 불평은 바로 이 역설, 즉 자신의 예측을 자유의 증거로 오인하게 만드는 통치의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것이다. 불링이 이러한 주체성을 뼈뼉하게 바라본다는 점은 결국 주택금융조합의 사기가 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불링은 나아가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경쟁에서 성공한 듯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뼈뼉한 비판을 한다. 『숨 쉴 곳을 찾아서』의 주인공 불링은 그의 부친이 끝내 적응하지 못했던 자기 경영적 주체로 완성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무결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불링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주체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향유하는 현실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분열적 시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요구하는 자기 경영 주체가 된 듯 보이는 불링의 냉소와 거부를 통해 당대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에 대한 오웰의 선구적인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조지 불링은 자신의 어린시절에 대한 회고를 통해 “가금류의 모이나 장사꾼들이 말에게 먹일 사료 같은 걸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CUA 43)였던 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게 저물어갔는지를 알려준다. 조지 불링의 아버지는 “아주 정직하고 자상한 사람”으로 “좋은 물건을 팔고 아무에게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으려 애쓴다”(CUA 43). 불링은 이에 대해 ‘그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장사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의 회고는 불링이 성장한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의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더욱 드문 가치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불링이 회고하는 아버지는 장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이를테면 우체국장이나 시골 역의 역장 같은 소소한 관직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할 만한 배짱이나 수완도, 새로운 판매 방식을 생각해낼 창의성도 없었다. 아버지의 창의성이 발휘된 유일한 결과물은 사육조를 위해 다양한 씨앗을 혼합한 새로운 모이(‘불링의 혼합 모이’라 불린 그 제품은 반경 8킬로미터 너머까지 알려졌다)였다. 이 역시 사실은 이지키엘 삼촌 덕분이었다는 점이 참으로 아버지다웠다.

He would have been just the man for some small official job a postma

ster, for instance, or stationmaster of a country station. But he hadn't either the cheek and enterprise to borrow money and expand the business, or the imagination to think of new selling lines. It was characteristic of him that the only streak of imagination he ever showed, the invention of a new seed mixture for cage birds (Bowling's Mixture it was called, and it was famous over a radius of nearly five miles), was really due to Uncle Ezekiel. (CUA 43)

이지키엘 삼촌(Uncle Ezekiel)은 무학임에도 불구하고 볼링의 아버지보다 훨씬 지적인 인물이어서 삼촌의 창의성으로 개발한 혼합모이 덕분에 아버지의 사업은 잠시나마 유명해지지만 이 때가 유일한 전성기이다. 볼링의 아버지는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사업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춘 인물이 아니다. 즉, 배짱이나 수완 혹은 새로운 판매 방식같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터라 이후 그의 사업은 자꾸 기울어간다.

사업이 어려워져 간 이유는 명백한데 대형 종자 소매상인 새러진(Sarazins')이 볼링의 동네에까지 지점을 내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볼링의 아버지는 볼링을 불러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아버지는 볼링에게 “요즘 장사가 신통찮아서”(CA 83)라는 말을 중얼거리지만 왜 자신의 장사가 신통찮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사실 아버지는 경쟁에서 나가떨어진 것이었다. 런던 인근의 여러 주에 지점을 갖고 있는 대형 종자 소매상 새러진이 로어 빈필드에까지 손을 뻗었다. 여섯 달 전 새러진은 장터의 한 가게를 임대해 화려하게 치장했다. 밝은 녹색 페인트, 금박 글자, 빨간색과 녹색으로 칠한 원예 도구들, 거대한 스위트피 광고는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눈에 확 띄었다. 새러진은 꽃씨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금류 및 가축 만물상'을 자처하면서 밀과 귀리 같은 곡물 외에도 특허 받은 가금류 혼합 사료, 예쁜 통으로 포장한 새 모이, 각양각색의 개떡이용 비스킷, 약품, 도포제, 동물용 분말 영양제를 취급했다. 그뿐 아니라 업종을 확장하여 쥐덫, 개목줄, 부화기, 위생란, 방조망(防鳥網), 알뿌리, 제초제, 살충제도 취급했고, 심지어 어떤 지점에서는 이른바 '가축코너'를 만들어 토끼와

햇병아리까지 팔았다. 먼지투성이의 오래된 가게에서 팔던 것만 계속 파는 아버지는 그런 거대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았고, 경쟁을 원하지도 않았다. 마차를 끄는 말이 있는 상인들이나 종자 소매상과 거래하는 농부들은 새러진을 피했지만, 여섯 달 만에 지역의 소지주들이 새러진의 편에 섰다.

The fact was that Father had been hit by competition. Sarazins', the big retail seedsmen who had branches all over the home counties, had stuck a tentacle into Lower Binfield. Six months earlier, they'd taken the lease of a shop in the marketplace and dolled it up, until what with bright-green paint, gilt lettering, gardening tools painted red and green and huge advertisements for sweet peas, it hit you in the eye at a hundred yards' distance. Sarazins', besides selling flower seeds, described themselves as "universal poultry and livestock providers", and apart from wheat and oats and so forth they went in for patent poultry mixtures, birdseed done up in fancy packets, dog biscuits of all shapes and colours, medicines, embrocations* and conditioning powders, and branched off into such things as rat traps, dog chains, incubators, sanitary eggs, bird netting, bulbs, weedkiller, insecticide and even, in some branches, into what they called a "livestock department", meaning rabbits and day-old chicks. Father, with his dusty old shop and his refusal to stock new lines, couldn't compete with that kind of thing and didn't want to. The tradesmen with their van horses, and such of the farmers as dealt with the retail seedsmen, fought shy of Sarazins', but in six months they'd gathered in the petty gentry of the neighbourhood, who in those days had carriages or dog carts and therefore horses. (CA 82)

새러진이라는 대형 업체는 아버지의 가게가 갖추지 못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토끼와 햇병아리까지 파는 '새로운 판매 방식'을 시도하며 멋지게 치장한 가게를 내세워 홍보에도 신경을 쓴다. 판매의 카테고리를 확장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은 현대식 마트와도 닮아있다. 상인이나 농부들은 의리나 관습에 따라 새러진을 피했지만 이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쥌 세력이 아니다. 지역의 소지주들이 불과 6개월만에 새러진의 편리함과 현대식 시스템을 선

택하고 이는 볼링의 아버지와 같은 영세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 주변의 영세업자들 역시 이러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회고(165)에 비취볼 때 볼링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영세 사업체의 몰락은 거시 경제적 변화의 미시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발인
가요?

새러진이라는 업체의 확장은 자본의 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자본⁷³⁾은 스스로를 증식시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기팽창적 가치(self-expanding value)를 갖는다. 경제 영역에서 팽창은 사용되고 소비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새러진과 같은 대형 업체는 다양한 물품을 취급함으로써 상품 생산의 종류와 양을 확대한다. 이 자본의 속성을 내재화하지 못한 업체는 서서히 시들어간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물건을 팔고,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수입이 줄어든다. 새러진의 팽창과 경쟁력이라는 자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아버지는 “아무래도 저 자동차들이 문제야”(CUA 83)라고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 조지 볼링은 이에 대해 “새러진이 촌충처럼 아버지를 산채로 갉아먹고 있었다”(CUA 89)고 회고하지만, 당시에는 조지 볼링도 그의 아버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73) 자본의 팽창에 대한 주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은 잉여가치의 끊임없는 추출과 재투자를 통해 구조적으로 팽창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자본의 축적』(1913)에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비자본주의적 외부 영역의 지속적인 포섭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창의 필연성을 제국주의적 수탈 구조와 연결하였다. 레닌(Vladimir Lenin)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7)에서 자본의 팽창이 독점 형성과 금융자본의 지배, 나아가 열강 간 세계 영토 분할로 귀결됨을 분석하였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자본의 무한 팽창 충동이 민족국가의 정치적 경계를 돌파하여 제국주의적 지배의 구조적 동력이 됨을 지적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는 『안티 오이디푸스』(1972) 및 『천개의 고원』(1980)에서 자본주의를 욕망의 탈코드화(decoding)와 공리화(axiomatization)의 결합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은 모든 고정된 사회적 코드를 해체하고 무한한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수행하며, ‘자본주의는 자신의 한계를 오직 자신 안에서만 만날 뿐, 그것을 끊임없이 밀어낸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후기자본주의 단계에서 실제 없는 기호의 무한 증식—시뮬라크르(simulacra)—이 자본 팽창의 최종 형태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세계체계분석(World-Systems Analysis)을 통해 자본주의를 중심(core), 반주변(semi-periphery), 주변(periphery)의 지리적 위계 구조로 파악하고 팽창 가능한 새로운 변경(frontier)이 소진될 때 체계적 위기가 도래한다고 논하였다.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장기 20세기』(1994)에서 자본 축적의 팽창이 헤게모니 사이클에 따라 반복됨을 주장했다. 물질적 팽창(material expansion)이 한계에 도달하면 금융적 팽창(financial expansion)으로 이행하고, 이후 위기를 거쳐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 주도의 축적 체계가 수립되는 주기적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1991)에서 자본의 팽창이 경제적, 지리적 영역을 넘어 문화, 예술, 무의식의 영역까지 식민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석하며 문화 공간이 자본 팽창의 최종 프런티어라고 말한다.

지 이해하지 못했다(CUA 83).

가게 주인들은 “작은 기복을 겪으며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려갈 뿐이다”(CUA A 88-89). 그래서 아버지의 가게는 “걱정이 많아지고 더 구차해지며”(CUA 89) 무장!
존속한다. 불링의 아버지는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장사꾼은 잘못될 리 없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불링은 당시에 “파산한 뒤 죽음을 맞는 침대에서도, 심지어는 구빈원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을 고수하는 소상인이 많았다”(CUA 94)라고 회고한다. 불링의 이웃이었던 “크림프 영감은 어릴 적부터 50년 동안 일한 숙련공이었는데 백내장에 걸려 구빈원⁷⁴에 들어가야 했으며”(CUA 93) 불링은 영감이 끌려갈 때 영감의 손주들이 길거리에서 울부짖었던 장면을 기억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을 때조차 안정감을 느꼈다”(CA 93). 현재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믿음 속에서 “세상의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CUA 93)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지 불링은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CUA 93)라고 회고한다. 불링의 아버지 역시 “일흔까지 산다면 결국 구빈원에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으나, “죽음과 파산 간의 경쟁에서, 천만다행으로 죽음이 먼저 아버지를 데려갔다”(CUA 89).

나이든 상인들이 구빈원으로 들어가 여생조차 편안하지 못하게 강제 노동을 하다가 죽게 되는 현실은 그들의 생명에 매겨진 값을 표현한다. 마르크스적 가치 개념을 적용해 설명하자면, 생명의 “가치는 하나의 국가적 질서를 정의하는 사적이고 공적인 제도들을 함의하는 경제-정치적 용어들(조건들) 내에서 정의”(비데 11)된다. “노동일-노동강도와 결합한 계급투쟁의 쟁점인 노동기간은 노동력의 시간? 지출과 소비의 내용을 규정하며, 동시에 이 노동기간은 더 좋거나 더 나쁨, 더 지속가능하거나 덜 지속가능한, 더 취약하거나 덜 취약한 생명의 지표를 구성”(비데 11)한다.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하지 않고 취약하다는 면에서 불링의 아버

74) 영국의 구빈원(Workhouse)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빈민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했던 수용 시설을 말한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 183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대 복지 제도의 기원이자 동시에 가난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가진 제도였다. 1834년 신 빈민법 이후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구빈원에서의 삶은 구빈원 밖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보다 더 비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구빈원에 가게 될 경우 가족이 해체되고 강제노동, 열악한 식사 등으로 채워진 감옥과 비슷한 생활을 해야 했다. <https://www.workhouses.org.uk/> 참조.

지나 크림프 영감 등은 가치없는 생명이 된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생명의 가치가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생산 효율성에 의해 위계화될 때 노령과 질병은 즉각적으로 가치 없는 생명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불링의 부친이 파산보다 죽음을 먼저 맞이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역설적 회고는 체제가 요구하는 표준적 노동력의 범주에서 탈락한 생명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폐기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신념에 매달린 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 세대와 달리 아들 세대인 조지 불링은 이미 다른 자기 관리 태도를 갖춘다.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밋 영감의 식료품점에 취업한다. 성실히 일한 덕택에 주급은 점점 오른다. 그는 대사업가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저급한 발음을 고치고, 런던 사투리를 대부분 없앴다. (템스강 주변 지역에서는 시골 방언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농장 사람들을 빼고는, 189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런던 사투리를 썼다.) 리틀번스 상업학교의 통신강좌를 듣고, 영업의 기술이라는 끔찍하게 따분한 책을 진지하게 통독했으며, 산술 실력뿐만 아니라 글씨까지 개선했다.

I cured myself of dropping aitches and got rid of most of my cockney accent. (In the Thames Valley the country accents were going out. Except for the farm lads, nearly everyone who was born later than 1890 talked cockney.) I did a correspondence course with Littleburns' Commercial Academy, learnt bookkeeping and business English, read solemnly through a book of frightful blah called "The Art of Salesmanship," and improved my arithmetic and even my handwriting. (CA 86-87)

조지 불링은 새롭게 얻은 지식을 아버지에게 전달하지만 아버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버지와 다르게 조지 불링은 멋진 사업가로서의 미래를 그리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이러한 불링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위치를 점하려는 주체적 실천으로 읽힌다. 공부하고 책을 읽고 세련된 필체까지 갖추는 모든 노력은 새로운

주체성으로서의 선택이다. 이제 개인은 “자신을 정의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야 하며, 그 이해 가능성과 한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John Rajchman 101)

“자신을 정의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시스템”은 푸코가 말하는 담론 즉, 무엇이 진실이고 정상인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칙의 총체를 말한다. 이처럼 담론의 ‘게임’ 안에서 스스로를 규율하는 주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을 하나의 자본으로 운용하는 경제적 행위자로 재구성된다. 이 주체성이 바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자기 경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볼링은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이기고자 시도한다. 볼링이 체화한 자기 경영 주체의 논리는, 오웰의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 그 역사적 전환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이는 『숨 쉴 곳을 찾아서』에 드러난 통치술의 중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이나 존 로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았으나,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기업가적 주체로 재정의한다. 나 자신이 하나의 기업 또는 자본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신자유주의로 전이되면서 시장 원리가 사회 전 영역에 침투하고 개인은 자기 스스로의 경영자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재구성된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정부의 환경적 개입으로 형성된 공간 안에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면서 자신 몸과 정신 속에 있는 자산 가치를 올리라고 주문하는 homo oeconomicus라는 “인식가능성의 격자”⁷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인 것이다. 현대의 개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인식하는데 경제적 기준만을 우

75) 푸코는 더 이상 사람들을 다양한 지식에 기초하여 특정한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그래서 Foucault에게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두 homo oeconomicus로서 간주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특화된 사람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식가능성의 격자”가 바로 homo oeconomicus라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개인들을 장의적 기업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Foucault(2009: 226)는 과거의 자유주의가 개인을 교환의 주체로 보았다면,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개인은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을 대비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본, 생산자, 수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선시하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아예 인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외부에서 보면 가장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은 통치의 용이성 때문에 사전에 기획된 공간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다고 믿는 개인들은 Foucault의 말처럼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 존재로 남게 된다. (이문수 79)

푸코가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이론적 조건을 분석했다면, 니콜라스 로즈는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니콜라스 로즈(Nikolas Rose)는 자유가 정부의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핵심 발명품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니콜라스 로즈는 그의 저서 『자유와 권력: 정치사상의 재구성(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에서 자유라는 개념의 변화를 주요 논지로 제시한다. 로즈에 따르면 ‘자유를 통한 통치’⁷⁶⁾는 개인의 자율성, 자기관리, 선택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통치가 작동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유는 이제 통치의 수단이자 기술이 된다. Rose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자유로운 개인’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자유를 특정 방향으로 관리, 규율하는 방식(Rose 2006, 144-162)이라고 말한다.

로즈의 이 분석은 자유 시장이 단순히 규제를 철폐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자연적 질서가 아님을 보여준다.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즉 자유화는 탈개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개입이라는 점이 이를 통해 분명해진다. 로즈는 자유 시장이 단순히 규제를 철폐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적 개입과 기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주장한다.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변호사,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수요, 공급 법칙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만들어 내고 노동자는 동기부여된 직원으로 사람들은 선택하는 소비자로 변환되어야 하

76) ‘자유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경제 주체들이 경쟁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생각하고 계산하며 행동하도록 만드는 관리와 계산 방식을 주입하고, 근로자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된 직원으로 전환하며, 사람들이 제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 변모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변호사, 산업 관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의 다양한 개입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Rose 1999, 65)

는데, 이는 동시에 사고방식과 계산 방식 자체의 변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층위에서 기업가적 태도와 가치관을 내면에 심어야 한다. 로즈는 자유가 억압의 반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통치 기술임을 보여주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유화(liberalization)는 탈개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지금까지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주체로 인간들이 거둬나기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때의 새로운 주체란 자신의 몸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자본 가치를 올려야 하는 존재이다. 개인이 공직자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은 기업가적 주체성을 지니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이문수 60-61)

『숨 쉴 곳을 찾아서』에서 블링의 아버지가 실패한 것은 자기 경영 주체로의 전환이다. 자기 경영 주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산물이다. 아들 세대인 조지 블링의 경우 전략적으로 자신을 경영하는 합리적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 자기 자신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선택들을 통해 효율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선택하는 행위로 인해 자유를 허용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자본주의가 설계한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가시적인 억압이 없기에 주체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며 선택하지만 이 자유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 자기 경영의 주체는 삶의 전반을 시장 논리에 따라 재편한다. 즉 경제적 선택 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정서적인 영역에까지도 자본주의 통치성이 요구하는 행동양식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삶에 온전히 만족하지는 못한다. 조지 블링의 의식은 자본주의 통치성의 테크놀로지를 사기라고 간주하는 뼈대한 반항심을 드러낸다. 신자본주의 통치성의 테크놀로지는 주체를 자기 경영과 시장 논리의 전면화로 이끌고 이를 자유롭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 논리가 언제나 무결하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자기 경영 주체로서의 블링의 형성 과정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이론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적으로 기술하는 주체화 방식과 조용한다. 그러나 이 주체화 과정은 역사적 충격 앞에서 균열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후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조지 불링은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불링은 자신의 전쟁 참전을 “기묘한 일”(CUA 101)로 회상한다. 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기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렸기”(CUA 102) 때문이다. 전쟁은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불링 역시 “콘월 북부 해안에 있는 ‘12마일 집적소’의 비축 물자를 확인하는 일”(CUA 102)을 맡아 1917년 중반부터 1919년까지 소고기 통조림 12개를 지키며 머무른다. 불링에게 전쟁이 기묘한 경험이 된 것은 전쟁이 그에게 남긴 영향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불링은 “이 사회가 피라미드처럼 영원하고 완벽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란 “그저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을 얻게 된다(CUA 107). 더불어 전쟁은 이상하게도 참전했던 이들에게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과 포부(CUA 202)를 심어주었다. 조지 불링은 자신이 다른 참전 군인들처럼 미래에 대한 장밋빛 망상에 빠져있지는 않다고 말하지만 조지 역시 “뭔가 수준 높고 중요한 일”, “과마한 비서를 거느릴 수 있는 일”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CUA 110). 조지 불링은 참전 이전에도 이후에도 멋진 사업가가 되겠다는 희망을 유지한 채 전역한다.

전쟁이 심어준 이 포부와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하는 방식, 즉 욕망을 자극하되 그 실현을 무한히 유예하는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다. 이런 희망 자체를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또는 욕망의 실현을 약속해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지속적인 경제화, 상품화를 통해 그 실현을 무한히 연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계속 통치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하나의 통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문수 59)이다. 즉 개인의 희망과 욕망은 무한히 연기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욕망 실현을 약속하면서도, 이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통치합리성을 의미”(이문수)하고 실천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라는 요구는 자유화, 유연화, 탈중앙화, 탈위계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변화의 결과이며, 노동 주체의 주체성이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이 핵심 역량으로 요구된다(김주호 59). 여기에서 개인들은 외

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이나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환경적 변수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된다(이문수 59).

조지 불링은 “식료품전 계산대의 낡고 안전한 삶”(CUA 110-11)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외판원 일을 시작한다. 이는 고정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아니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불링은 당시 “이런 사기극이 이제 막 큰 규모로 시작되고 있었다”고 회고한다(CUA 111). 이 회고는 세계 1차 대전 이후 성과 연동 보상 체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고용 형태가 본격화되고 있었음을, 즉 자기 경영 주체의 탄생이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링은 시스템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그 논리를 냉철하게 응시한다. 그는 자신이 “현대 사회의 현실”(CUA 112))에 찌들어있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현대사회의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지를 묻는다. 조지 불링은 그 현실이 “물건을 팔려는 끝없고 광적인 몸부림”(CUA 112)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파는 형태”라고 말한다(CUA 112).

난 더 이상 교양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대사회의 현실에 찌들어 있었다. 그럼 현대사회의 현실이란 뭘까? 음, 한가지만 뽑으라면 물건을 팔려는 끊임없고 광적인 몸부림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는 형태를 띤다. 말하자면 일자리를 구하고 지키는 것이다.

I wasn't a highbrow any longer. I was down among the realities of modern life. And what are the realities of modern life? Well, the chief one is an everlasting, frantic struggle to sell things. With most people it takes the form of selling themselves - that's to say, getting a job and keeping it. (CUA 112)

그는 이러한 현실을 구직의 치열함과 연결시키면서 “끝도 없이 부산을 떨며 싸워야 할 것 같은 느낌,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할 것 같은 느낌, 항상 누군가가 내 일자리를 노리는 듯한 느낌,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회사가 인원감축을 단행하고 바로 내가 잘릴 것만 같은 느낌”(CUA 112)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불링의 생각은 신자유주의적 경쟁 주체가 내면화하는 불안

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산출하는 핵심적인 기술은 결국 강제된 자기 경영 주체의 형성이다. 자기 경영 주체로의 변모는 불링과 아버지 세대의 차이를 보면 분명히 구분된다. 조지 불링이 인지하는 현실의 변화는 변화된 주체성에 대한 감각을 의미한다. 자신을 계발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생산해내는 자기 경영 주체의 미덕이 규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낙오자나 인적자본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잉여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된 삶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와 이동을 계속 해야만 하는 벼랑 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이문수 60-61).

조지 오웰의 소설 『숨 쉴 곳을 찾아서』에 나타난 조지 불링의 분열적 주체성을 통해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이행하는 당대의 징후를 추적하였다. 사이먼 굴딩(Simon Goulding)은 영국 소설에서 교외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공간의 역할이며, 오웰이 『숨 쉴 곳을 찾아서』에서 묘사하는 교외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한다(Goulding "Sound"). 굴딩이 평가하는 이 작품은 가치는 “메타히스토리 및 사회 분석과 같은 영역의 건축, 계획, 금융 및 사회 건설에 대한 성찰에 특권을 부여하는 문학적 분석”(Goulding "Sound")이며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학적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웰이 포착한 1930년대의 영국 사회는 아버지가 상징하는 영세 사업자의 몰락과 대형 자본인 ‘새러진’의 팽창을 통해 자본의 무한 확장과 경쟁력 중심의 시장 질서가 전면화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본화하고 경영해야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재구성되는데, 특히 주택금융조합의 모기지 시스템은 중산층에게 소유의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을 자발적인 ‘에스맨’이자 부채 중심의 통치 대상인 자기 경영 주체로 포섭한다. 아버지 세대의 부적응과 달리 아들인 조지 불링은 신자유주의 주체로 성공적 변모를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환경을 비롯한 삶의 조건들에 대해 그가 갖는 뼈뺀 시선은 일견 적응에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실제로는 거부감을 품고 있다는 사

실을 알려준다. 주인공 불링은 이러한 시스템의 요구를 내면화하여 보험 판매원으로서 생존 전략을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주택단지의 일상을 '교도소'로, 금융 시스템을 '정교한 사기'로 냉소하며 비판하는 분열적 시각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오웰은 불링의 냉소와 일탈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환경 권력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선택'으로 포장하여 관리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통치 합리성이 개인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균열의 지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불링의 고향 귀환과 그 실패는 중년의 감상적 퇴행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그가 찾아간 고향 로어 빈필드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장 논리가 아직 전면화되기 이전의 삶의 양식, 즉 자기 경영과 경쟁과 부채의 논리가 일상의 구석 구석까지 침투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관계와 감각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총체는 이미 지워져 있다. 어린 시절 낚시를 즐겼던 연못은 쓰레기 매립지로 변해있고 그가 기억하는 고향의 풍경은 산업화의 공간으로 대체되어 있다. 불링의 향수는 단순한 과거 지향적 퇴행이 아니라 통치성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으로 재독해될 수 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충동은 신자유주의적 자기 경영 주체로서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감각, 즉 현재의 삶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희미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론 3은 오웰의 두 텍스트 『위건 부두로 가는 길』과 『숨 쉴 곳을 찾아서』를 푸코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으로 독해함으로써 오웰 문학의 정치철학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주장은 그 역방향에서 제기된다. 오웰은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알지 못했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이 강의된 것은 1978년에서 1979년 사이이며, 푸코가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오웰이 사망하고 거의 삼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그럼에도 오웰은 1937년과 1939년에 발표한 두 편의 작품을 통해 푸코가 이론적 언어로 정교화할 바로 그 구조를 문학적 직관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는 당대 복지 제도가 자유주의 통치성의 안전 매커니즘을 배경으로 하며 안전을 명분으로 도리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설임을 보았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가 단순히 작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국가는 직접 명령보다 통계,

예측, 환경 조정, 위험관리 같은 방식으로 더 정교하게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 복지 제도가 자유를 명분으로 더 깊은 통제를 생산한다는 역설, 안전 메커니즘이 인구를 관리 가능한 주체로 재구성한다는 통찰, 자기 경영 주체의 형성이 외적 강제 없이 내면화된 복종을 생산한다는 분석이 오웰의 텍스트를 통해 제시된다. 이는 물론 오웰이 탁월한 이론가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광부들과 함께 갱도를 기어가며 노동을 체험하고 민즈테스트 앞에 선 실업자들의 수치심을 직접 목격했고 노동계급이 왜 건강 대신 값싼 위안을 찾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통찰은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그의 경험과 윤리적 공감에서 시작한다. 문학은 개념이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현실의 구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웰의 르포르타주와 소설은 바로 그 문학적 선취의 사례 중 하나라는 것이 이 연구가 조명하는 오웰 작품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문학 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오웰을 가리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표현을 빌려 "내부 망명자"(Eagleton "Reach")로 규정한다. 이글턴에 따르면 오웰은 공립학교 출신이면서 제국의 하수인이 되었고 자신의 나라와 단절된 느낌을 받았으며 평생을 그 나라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웰은 와일드, 제임스, 콘래드, T.S. 엘리엇이 문자 그대로 망명자였던 것처럼 영국에서 내부 망명자였고 그들처럼 그는 더 열정적이었고,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다(Eagleton "Reach"). 이 내부 망명자의 시선이야말로 이글턴이 오웰을 두고 지적한 두 번째 특징, 즉 "통명스럽고 상식적인 문체로 그 문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급진적인 정치 사상을 표출"(이글턴 257) 는 역설적 글쓰기의 근원이다. 따라서 "오웰의 정치학은 인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오웰의 산문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이글턴 257) 그 급진성의 내용은 오웰이 문학 에세이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940)에서 밝힌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웰이 보기에 디킨스는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혁명적 작가가 아니며 그의 비판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을 향한다(Essays 47). 그러나 디킨스의 감수성은 "언제나 패자의 편에 서는 감정이자 강자에 맞서 약자의 편에 서는 감정"(Essays 77)이며 독자가 알아보는 급진주의를 드러낸다(Essays 75). 오웰은 이 논리를 디킨스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웰 자신의 정치학을 설명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에서, 승리가 아닌 투쟁의 몸짓 자체에서 가치를 찾는 그의 윤리는 디킨스의 정치학처럼 "50년 정도 시대에 뒤떨어진 감정"(Essays 77)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류애라는 사상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대다수 인간의 내면과 공명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오웰의 정치학에 주목하면서, 그를 자유(Liberty),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주의 통치성(Liberal Governmentality)이라는 세 개념의 교차로에 위치한 작가로 상정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독해하고자 했다. 오웰은 생전에 끊임없이 오독에 시달렸으며 사후에는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 조건 속에서 자신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우파적 맥락으로 소환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오독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자유'였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자유라는 단어를

우파로 소환하여
심각이 흔들리게
필요함

투쟁의
중요성!

* 신의
영광

왜냐하면
필요

에서는 아버지 세대의 부적응과 불령의 자기 경영 주체로의 변모가 대비됨으로써 그 이행이 개인의 내면에 남기는 흔적이 형상화된다.

이 세 장의 독해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발견은 오웰이 이론이 분석하려 했던 구조를 문학적 직관으로 포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통찰은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윤리적 공감과 참여적 경험에서 시작한다. 이는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가 말하는 정치적 예술의 실천이기도 하다. 사회에는 무엇이 보이고 들려야 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칙, 즉 감성의 분할(Distribution of the Sensible)이 존재하며, 정치적 예술이란 그 분할을 재배치하여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소음으로 취급되던 목소리를 정당한 언어로 만드는 작업이다. 즉 광산 노동자들이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비둘기를 키우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뭔가 차가운 분위기가 있다고 불평할 때 이를 배은망덕한 발언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분할을 재배치함으로써 광부들의 불편이 자유주의 통치성 안에서의 주체의 의구심이라는 점을 대변한다. 문학은 개념이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현실의 구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 오웰의 텍스트는 그 문학적 선취의 사례가 된다.

이 연구가 오웰 연구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세 방향에서 요약된다. 첫째, 투쟁의 결과보다 투쟁 행위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오웰이 추구했던 진실을 말하는 자유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했다. 둘째, 오웰을 어느 하나의 이념으로 귀속시키려는 단일 범주화를 상정하지 않고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라는 세 정체성을 자유주의적 기질이라는 하나의 내적 논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셋째, 자유주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아 오웰의 텍스트를 독해한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백에 응답했다. 오웰이 강조한 자유는 단일하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었다. 외부의 강압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자유이기도 했고, 그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었으며, 자유를 보장하는 바로 그 장치가 어떻게 개인을 관리하고 종속시키는가를 묻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문제와도 교차했다.

오웰은 자신의 글쓰기가 전체주의의 시대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건져올리려 했다. 국가 감시, 언론 조작, 복지의 규율화, 자기 경영의 강요가 새로운 형태로 반

광부들!
비행
취재요.

이것이 오웰의
태버링.
이것은
각각의
기적적인
방식. 각기
다양함!!

취재의 인공적 생명.
(보인 주장)

페인의 참호 속에서, 위건의 경도 안에서, 「1984」의 고문실 안에서 구체적인 몸과 삶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수행이 폐배로 귀결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자유이며, 그것이 오웰이 평생을 통해 증언하려 했던 자유의 의미였다.

오웰은 자신의 글쓰기가 전체주의의 시대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건져올리려 했다. 국가 감시, 언론 조작, 복지의 구울화, 자기 경영의 강요가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현재에도, 오웰이 포착했던 자유의 역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결과가 아닌 행위에서, 승리가 아닌 투쟁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그의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도 우리 시대의 독자에게 말을 건넨다.

2020이 작중의 1984년과 같은 상징이다.
 2020이 1984년과 같은 상징이다.
 2020이 1984년과 같은 상징이다.

자본주의의 시대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건져올리려 했다.
 국가 감시, 언론 조작, 복지의 구울화, 자기 경영의 강요가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현재에도,
 오웰이 포착했던 자유의 역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결과가 아닌 행위에서, 승리가 아닌 투쟁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그의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도 우리 시대의 독자에게 말을 건넨다.

